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사람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윤2월 22일)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안개가 휘도는 산'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는 매년 홍매화 축제를 열고 사진 콘테스트와 청소년 백일장을 진행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홍매화 축제의 사진 콘테스트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전문 사진작품 부문에는 김진관 씨의 '안개가 휘도는 산'이 조계종 총무원장상(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김진관 씨는 "봄비에 젖은 홍매화가 어쩌면 햇빛 아래보다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겹겹이 기와 사이로 몇 백 년동안 한자리를 지켜왔던 홍매화, 그 검은 기와 빛을 닮아 검붉게 빛이 났다. 봄볕에 데워진 지리산은 비를 맞아 안개를 내뿜었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글=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진제공=화엄사

조계종 원로의장에 자광 대종사 선출

원로회의, 4월 6일 제 72차 회의서 만장일치로
수석부의장 보선 · 차석부의장 도후 대종사 선출
직지사 법등 · 선운사 동명 스님은 새 원로의원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조계종 원로회의 새 의장에 자광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4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72차 원로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자광 대종사를 원로의장으로 선출했다. 원로의장은 종헌 제27조 및 원로회의법 제4조에 따라 원로회의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5년이다.

새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7년 조계사에서 경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8년 동국대 인도철학과 종비생 1기로 졸업했으며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 호계원장, 동국대 이사장, 법계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0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으며 현재 동국대불교학술원장, 반야선원 주지 등을 맡고 있다.

새 의장단으로는 수석부의장에 보선 대종사가, 차석부의장에 도후 대종사가 선출됐다.

수석부의장으로 선출된 보선 스님은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6년 용암사에서 수계했다. 14~15대 중앙종회의장, 총무원 호법부장, 대흥사, 용암사, 향림사, 청연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흥사 회주다.

차석부의장 도후 스님은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8년 신흥사에서 사미계를, 1974년 법주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법주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스님은 인제 백담사, 고성 건봉사, 철원 심원사, 양양 낙산사 주지 등을 지냈다. 제12~13대 종앙종회의원, 불교방송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원로회의는 이날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상정하고 대종사 혜자(직할교구), 진허(마곡사), 장윤(동화사), 정인(해인사), 영환 · 지정(이상 범어사), 영배(통도사) 스님 등 7명, 명사 정륜(동화사), 혜안 · 진광 · 용운 · 성월 · 보선(이상 해인사) 스님 등 6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원로회의는 또 중앙종회에서 추천된 직지사 법등 스님과 선운사 동명 스님을 새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법등 스님은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1년 사미계를, 197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제12 · 13대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제8교구본사 직지사 · 조계사 주지, 조계종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더프라미스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금오종합사회복지관장, 직지사 승려복지회장을 맡고 있다.

동명 스님은 봉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내소사에서 사미계를, 1973년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 개운사 · 전등사 주지,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등사 회주와 전등선림 선원장, 행원문화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회의에 앞서 원로의장 대원 대종사는 임기 만료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원로 대종사들의 덕화로 종단의 중책을 맡아 무사히 마치게 됐다"면서 "원로 대종사님들의 깊은 애종심과 헌신으로 우리 종단의 안정과 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9일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 5월 3일 '아미타불교요양병원' 개원 등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주요 종책 진행과정을 보고했다. 진우 스님은 "집행부가 준비하는 주요 종책 과제들이 원로의원 대종사님들의 지혜와 덕화에 힘입어 원만히 진행되고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큰 가르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대법원 무효 판결 後 특별재심 청구 가능

조계종 중앙종회, 제227회 임시회서 가결

호법부장 30일 내 청구 명문화
"종단의 자주적 운영 침해 방지"
종무원법 등 종법 개정 통해서
벌금 미납시 교역직 임용 못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단 호계원 심판을 통해 이뤄진 징계가 국가 사법기관을 통해 무효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다시 종단에서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벌금 징계자가 이를 완납하지 않으면 교역직 종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4월 3일 속개한 제227회 임시회에서 '총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종헌종법특위)가 제안한 '총무원법 개정안'은 징계확정자가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해 징계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호법부장이 30일 내 재심호계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법 개정에 대해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만당 스님은 "징계확정자가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음으로써 국가 기관에 의해 종단 자주성이 침해되고, 종단 종헌 · 종법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럴 경우 호법부가 재심호계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어 특별재심 청구를 종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무원법 개정에 대해 중앙종회의원들은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과 '종단 호법부 조사의 신빙성 문제' 등 우려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만당 스님은 "대법원 등의 판결로 인해 종단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서는 안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애초 특별재심 청구는 호법부 업무에 포함돼 있다. 특별재심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 이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살펴보면 전부 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가지 조항이 있다면 그 중 3~4가지가 과하다는 것이고 1~2건은 잘못이라고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종단에서 징계해야 할 부분은 징계하자는 것이 근본적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종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승려법, 사찰부동산관리법, 사찰법 개정안을 잇달아 가결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종무원법 개정안'은 범계행위를 해 벌금이나 변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완납해야 교역직 종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가능해 변상금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말사 주지 등에 임용된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

특위 위원장 만당 스님은 "현행 종단 선거법과 산중총회법에는 벌금 및 변상의 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하지만 말사 주지 및 교역직 종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를 명시해 벌금 및 변상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승려법 개정안은 승려분한심사 시 이뤄지는 승려의 사정에 대해 현재는 '승려분한신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법에도 명확한 규정을 둬 그간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직할교구 이외 사찰이 건물의 신축, 이전, 철거할 때는 관할 교구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사찰법 개정안은 개정된 사찰부동산관리법과 연동되는 개정법안으로 동일 내용의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중앙종회는 종무보고, 종책질의, 종단 주요 인사안, 불기 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예산 경정안 승인의 건, 불기2566(2022)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관련 기사 2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 정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장 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연수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1일차 (9월 6일,수)	2일차 (9월 7일, 목)	3일차 (9월 8일, 금)
09:00~12:00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시연까지'	마음불사 도량불사 스님들의 고민 톡!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한마음과학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수행 법회 사찰 운영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실습
▶ 한마음과학 특강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 스님 첫 정견 발표

4월 4일 태고총림 선암사서 발표회 개최
4월 11일 2차 발표…4월 18일 선거 진행

순천=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각 후보들은 자신이 태고종을 이끌 적임자임을 종책 공약을 통해 종도들에게 알렸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산)는 4월 4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적묵당에서 제28대 총무원장 후보자 정견발표를 개최했다.

이날 정견발표에는 15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기호 1번 상진 스님, 기호 2번 성오 스님의 종책 공약 발표와 후보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상진 스님 "해외 불교대학과 학점 공유"

기호 1번 상진 스님은 '하나된 종도와 함께 한국불교태고종의 중흥을 이루겠다' 는 캐치프라이즈를 제시했다. 상진 스님은 "그동안 우리 종단은 내 · 외적인 성장통도 많았지만 호명 스님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구도에 들어섰다"면서 "이제야말로 종도들이 종지종풍을 높이면서 한국불교의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상진 스님은 종단의 미래가 체계화된 종도 교육과 문화 포교에 있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종단의 미래는 체계화된 교육시스템과 그 지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태고종의 100년 대계를 위해 선암사를 비롯해 동방불교대학의 각 지방 분교를 활성화하고, 해외 유수의 불교대학과의 학점을 공유화해, 한국불교를 혁신화하는 교육제도의 근간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하기 위해 불교 무형문화재 발굴과 국가지원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 태고종과 연계된 지방무형문화재도 육성해 나갈 것" 이라며 "한국불교에서 최대의 불교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문화종단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상진 스님은 "이제 종단은 안정의 계기를 마련하고 힘차게 도약할 때"라며 "지금은 이러한 전통을 만들고 후학들에게 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하고, 소납이 수레의 손잡이를 끌고 나아가고자 하니, 종도의 힘찬 격려와 협조로 바퀴를 굴려주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성오 스님 "연륜과 경험으로 종단 발전"

기호 2번 성오 스님은 '연륜과 경험' 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캐치프라이즈 역시 '연륜과 경험을 살려 육부대중과 함께할 것입니다' 였다.

성오 스님은 "태고종은 종단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우리는 변화하지 못했고, 지금도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불교 태고종을 한국불교 장자종단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스님은 "리더는 조직의 비전을 세우는 것이다. 적시적소에 인재를 세우고, 각 인재들이 소신껏 각자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태고종을 일류로 만들기 위한 대작불사의 총도감이 돼 종단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1번 상진 스님

"교육, 문화포교 변화를 이끌 것"



기호 2번 성오 스님

"종단 기구 개편으로 새 태고종 만들 것"

성오 스님은 종책 공약으로 △종헌 종법 개정과 종단기구 개편 △종단 교육기관의 시스템 개편 및 교육불사 추진 △종단 사찰 운영프로그램 개발 △사회연계망 확대와 봉사체제 수립 등을 제시했다.

스님은 "태고종 사찰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고, 종단이 지방교구 각 사찰과 함께 특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널리 알리겠다"면서 "종도들의 의견을 온 · 오프라인으로 공의를 수렴해 각 교구별 대중공사를 통해 재확인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종도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제주교구에서 종단 교육에 대한 스님들의 열정을 기억한다, 소납이 당선되면 종단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바로 개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후보 스님들 서로에 종책 공약 질의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후보 간 종책 관련 질의들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상진 스님은 성오 스님에게 "공약 내용은 많은데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성오 스님은 "종헌 종법을 개정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학교 불사는 장학금 모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종도 중 프로그램을 잘 아는 분을 등용하겠다"고 말했다. 봉사활동 연계 공약에 대해서 성오 스님은 "종도들이 쌀 한 가마니씩 기부하면 3200가마니가 된다. 종도들의 모연만으로도 태고종은 종단 차원 봉사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오 스님은 상진 스님에게 "(상진 스님은) 동방불교대학서 40년 가까이 몸담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되도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상진 스님은 "동방불교대학의 교육부 인가와 사이버 대학 인가는 종도들의 염원"이라며 "학교를 세우는 것은 학교법인 설립과 땅과 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사진 구성과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 종도들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참가자 질의응답인 '포교와 화합' 에 대해 상진 스님은 "31개의 각 교구 종무원을 찾아가 각 종무원과 연합하여 큰 법회를 개최해 종단의 위상을 높이겠다" 고 답했다. 성오 스님은 "우리 종단 프로그램을 현대화하여 직접 포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종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후보자 정견발표회는 오는 4월 11일 태고종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진행되며, 4월 18일 최종 선거가 진행된다.

통도사 주지에 현덕 스님 임명

진우 스님, 임명장 수여



불보사찰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에 현덕 스님이 임명됐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현덕 스님은 자비나눔 기금 3000만 원, 승려복지 기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통도사는 불보종찰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 중 하나이고, 종정예하와 많은 어른스님 그리고 대중들이 수행하는 도량"이라며 "종정예하의 신임과 대중스님들의 인망이 두터운 스님이라고 들었다. 종정예하와 어른스님들을 잘 모시고 총림 운영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덕 스님은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큰 소임을 주셔서 송구할 따름이다. 총무원장스님 말씀대로 총림 화합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종단 행정과 복지 불사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중앙종회의원 "출가자 감소 구체적 대책을"

4월 3일 임시회 종책질의서 교육원 주문
기본교육기관 조정 문제 거론돼
교육원 "출가자 확대 정원 해결"
포교원엔 잼버리 대회 지원 촉구

'출가자 절벽 시대' 에 대한 종단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사진〉에서 종무보고와 종책 질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는 출가자 감소 문제에 대한 종책적 대안과 오는 8월에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종단적 지원책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이날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은 교육원에 대한 서면 종책 질의를 통해 △승가기본교육기관 조정 △여성 출가자 감소 △출가상담제도의 체계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현장에서도 출가 종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중앙종회의원 심우 스님은 "2023년 상반기 행자 수료자가 39명이다. 이 인원만으로는 승가기본교육기관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선광 스님은 "교육원에서 출가자 목표를 200명으로 세웠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며 "없는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출가자를 양성해 사회의 모범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종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 스님은 제9대 교육원에서 제시된 출가자 확대를 기조로 종책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특히 승가기본교육기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지우 스님은 "제9대 교육원의 기조는 출가자 증대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기본교육기관 조정 문제는 출가자를 늘려서 정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통폐합 등의 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원에서는 그간 출가 관련 홍보가 미비했다고 본다. 방송과 언론 홍보를 준비 중"이라면서 "종단 연수 교육 중 법계교육에서 출가 진흥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 향후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출가 진흥 정책에 교구본사와 중앙종회의원 등의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포교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세계잼버리대회의 종단 지원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일원에서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72개국에서 14~18세 청소년 약 4만 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중앙종회의원 성행 스님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 4만 5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형 대회로, 불교를 전법하기에 매우 좋은 기회"라면서 포교원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물었다.

중앙종회의원 원경 스님은 "지난번 회기에도 잼버리대회의 종단 차원의 관련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면서 "그렇다면 종단 차원에서 지역 본사와 총무원이 대응할 TF팀 정도는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준비 중이라는 답변뿐이다. 다음 6월 종회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종책 질의에서는 사업단 차원의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지원 방안이 나왔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세계잼버리대회에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금산사 · 선운사 · 내소사와 함께 1만 4000명 규모의 특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용주사 주지 후보 성효 스님 선출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신임 주지 후보에 성효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용주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강)는 4월 6일 경내 관음전에서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성효 스님의 당선을 확정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4월 3일 열린 제393차 회의에서 용주사 주지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성효 스님의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후보 자격 이상없음' 을 결정했다. 성효 스님은 "효행 근본 도량 용주사에는 어른스님들을 잘 모시는 가풍이 있다. 문중 화합을 우선으로 해 본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분한 신고 공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대한불교 원융종 종도 여러분과 가람에 항상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원융종은 종단행정의 재정비와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분한 신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간 이내 분한 신고를 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이내에 분한 신고를 못한 경우 사)대한불교 원융종의 승려와 종도의 자격이 정지 및 말소되어 대내외적으로 본 종단의 종도로서의 어떠한 업무 확인도 해드릴 수 없으니 종도 여러분께서는 총무원의 업무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 기 간 : 2023년 4월 1일~2023년 4월 30일 당일 접수분까지
■ 대 상 : 사) 대한불교 원융종 종도 및 승적보유자 (유승법사) 포함
*분담금 3년 이상 체납자 및 체탈도첩자. 제적자 제외
■ 접수 장소 :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
■ 제출 서류 : 분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사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180-6호 / 02-853-0430-1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배진호

연꽃마을, 수좌스님들 노후복지 나선다

3월 31일, 선원수좌복지회와 MOU
수좌스님들 안정적 노후 돕기 위해
협력하며 다각 지원방안 모색키로
원상 스님 "각현 스님 뜻 잇는 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연꽃마을이 3월 31일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수좌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약속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이사 원상)이 수좌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에 나선다.

연꽃마을은 3월 31일 용인 연화사에서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대표이사 의정)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간병과 요양이 필요한 수좌 스님들을 연꽃마을이 수탁 운영하는 용인노인전문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수좌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기관 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공동사업 기획 및 협력하기로 한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대표이사 의정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일오 스님, 연꽃마을 대표이사 원상 스님, 용인노인전문요양원장 원범 스님 등이 배석했다.

이번 협약은 연꽃마을 2대 대표이사 각현 스님(1944~2014)의 원력에서 시작됐다. '복지 화신'으로 불렸던 각현 스님은 1990년 연꽃마을 이사장을 맡아 25년간 헌신했다. 무엇보다 스님은 '노인이 모셔지는 사회, 노인이 공경받고 존중 받는 사회'를 지향하며 효 사상의 사회화에 가치를 두고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대했다. 스님의 원력으로 연꽃마을은 노인전용의원, 무료양로원, 고령자 재취업교육,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쳤다.

출가 후 특히 노인복지사업에 진력을 다해 온 각현 스님은 일생을 수행에만 전념해 온 선원 수좌스님들의 노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에 선원수좌회 의정 스님과 수좌스님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2014년 입적하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각현 스님의 상좌로 2019년 연꽃마을 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원상 스님은 어른 스님의 원력과 유지를 받들기로 결심,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양기관의 업무 협약으로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수좌 스님들은 누구나 용인노인전문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좌스님들에게 제공될 용인노인전문요양원 전경.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대표이사 의정 스님은 "평생을 수행한 수좌들을 위해 마음을 내준 연꽃마을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전국 수좌들이 보다 안정적이 노후를 보낼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꽃마을 대표이사 원상 스님은 "용인노인전문요양원은 각현 스님의 원력이 빚어낸 결실이자 불교계 최초의 무료양로원"이라면서 "그 뜻을 잘 기려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용인시 처인구에 개원한 용인노인전문요양원은 대지면적 1만964㎡(3316평), 건축면적 2509㎡(760평)면적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다. 1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기원"

조계종, 종단협 등 논평 · 성명 발표 잇달아

조계종 등 불교계와 종교계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기원하고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4월 5일 발표한 논평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은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 7대 물류 중심 도시이며, 천년고찰 범어사를 비롯한 전통문화와 산업화 이후 발전한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으로 독특한 문화 도시"라며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이어 온 대한불교조계종의 모든 사부대중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평화와 상생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조계종의 모든 사부대중은 우리나라 모든 종교인들과 합심해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한 기도 정진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는 4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한마음으로 염원한다"고 기원했다.

종단협은 성명에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유치를 준비 중인 부산 세계박람회는 IT강국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한류문화와 전통문화 강국의 면모를 전세계에 알리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불교계 회원종단의 전국 16000여 사찰에서는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국민이 염원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도하겠다"고 응원했다.

불교를 비롯한 7대종교 지도자 모임인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이하 종지협)도 4월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경제 · 문화 올림픽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종지협은 "부산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면 올림픽 · 월드컵 · 등록 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면서 "2030 부산 엑스포는 저출산 · 고령화 · 저성장으로 힘든 국가 경제의 활력을 가져오고 국민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4대 종교 제주4 · 3 추모재…"국가 폭력 없어야"

4월 3일, 서울 탐라영재관에서
사노위,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불교 등 4대 종교가 제주4.3 75주기를 맞아 4월 3일 서울 탐라영재관에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불교, 원불교, 천도교, 개신교 등 4대 종교가 제주 4 · 3 75주기를 맞아 4월 3일 서울 탐라영재관 11층 강당에서 '4 · 3 제75주기 추모제사 및 4대 종단별 추모의례'를 봉행하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서울제주도민회와 재경제주4 · 3유족회가 함께한 이날 의례는 △천도교 제주4 · 3희생자 위령식 △개신교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해결과 치유를 위한 추모기도회 △원불교 제주4 · 3 위령재 △불교 제주4 · 3 제75주기 추모재 등으로 진행됐다.

불교계를 대표해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이날 추모재에서 4 · 3 당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다 희생된 스님들을 비롯해 3만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남북의 평화를 염원했다. 사노위원 고금, 주연, 동신, 현성, 선우, 여등, 도승, 대각, 법정, 보현, 혜문, 시경 스님이 동참했다.

이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대표해 사노위원 시경 스님은 "더이상 이념대립을 통한 국민 갈라치기와 국가 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 · 3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 시경 스님은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통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한맺히고 억울한 삶이 드러나고 있고 유해발굴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이 75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만나고 있다. 드러나는 진실들이 기록으로 잘 남아 미래에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생명의 존엄함을 가르치시며 폭력과 살생을 금하고 자비를 중시하셨다"면서 "조계종 사노위는 제주4 · 3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4 · 3 당시 사찰로 피신해 온 주민들을 지키다 희생된 스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이념 대립 없는 사회, 생명이 존중받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도 동참자들은 올해 제주4.3 슬로건인 "제주 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서노라"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어 제주4 · 3과 같은 국가 폭력에 의한 참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봉행하고 헌화했다.

한편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000년 6월부터 시작된 사건희생자 신고 접수 결과 1만 4532명으로 집계되었지만, 미신고 또는 미확인 희생자가 있어 실제로는 3만 명 이상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불교계는 4 · 3 당시 사찰로 대피해 온 주민들을 지키다 35개 사찰이 전소, 폐허됐고 스님들 15명이 총살, 수장, 고문 후유증 등으로 희생되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스님들의 경우 후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 역시 잘 알려지지 않아 진상규명이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다.

임은호 기자

동행, 튀르키예에 컨테이너 100동 지원

튀르키예 한인회와 업무 협약
400명 거주 컨테이너 설치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이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주거 시설 100동을 지원한다.〈사진〉 아름다운동행은 3월 27일 튀르키예 한인회와 컨테이너 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2월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현재까지 약 5만 7000명이 사망하고 400만 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무너진 건물들을 복구하는데 1년에서 길게는 5년이 예상됨에 따라 아름다운동행은 재건 복구 전까지 이재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컨테이너 주택 100동, 약 4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주택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튀르키예 한인회에서는 주정부로부터 임시 거주 시설 지원을 요청받고 27,700㎡ 부지에 360가구가 살 수 있는 컨테이너 주택 단지를 준비 중이다. 사업 부지는 지진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하타이주 이스켄데룬시(Hatay Iskenderun)에 위치하며 '한국마을(KOREAN VILLAGE)'로 명명해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을이 들어설 하타이주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을 위해 튀르키예 군인들이 출발했던 항구도시로 대한민국과 인연이 깊은 도시이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에서는 임시 컨테이너 주택 100동을 지원, 한국마을 건설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아름다운동행이 지원하는 컨테이너 주택은 거실과 방, 주방, 화장실로 구성됐으며 4인 가족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한 튀르키예의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추가로 에어컨과 순간온수기도 설치된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4월 말쯤에는 이재민들이 입주, 텐트보다 더 안정적인 컨테이너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임은호 기자

‘SMART’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세계가 주목한다

우즈벡 국제대 유아교육과 학장 선재어린이집 ‘ICT시스템’ 참관

아이 스스로 신장 체중 재보고
오늘 기분 체크… 모두 DB축적
발달 과정 수치화로 부모 신뢰↑
서울시 유일 ‘스마트 어린이집’
“조계사 주지스님 지원에 가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에 다니는 A군은 등원하자마자 스마트TV에 띠워진 자신의 사진을 터치해 출석을 확인한다. 그리고 스스로 오늘 기분을 체크한다. 오늘은 등원하기 전 동생과 싸워 엄마에게 꾸지람을 들어 기분이 영 좋지 않다. 그래서 ‘화나요’아이콘을 터치했다.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교사 B씨는 스마트TV와 연동된 플랫폼을 통해 원아의 생활 데이터를 확인했다. ‘아, 오늘은 A군이 기분이 좋지 않구나.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네’라는 생각을 하며 아이를 돌봤다.

아이가 스마트에듀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자기의 기분을 체크하고, 이를 교사가 확인해 케어하는 ‘스마트’한 광경은 미래 사회의 상상이 아니라 현재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상이다.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원장 우정순)은 지난해 10월부터 스마트 보육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추진했던 스마트 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스마트 어린이집 모델 개발 및 실증’ 연구결과를 적용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이 유일한 ‘스마트 어린이집’이다.

현재 조계사에는 ㈜아이좋아의 에듀케어플랫폼 ‘트레져맵’을 바탕으로 한 ‘굿데이(생활데이터 분석)’ ‘아띠맵(또래관계 데이터 수집, 분석)’ 등과 비전21테크에서 개발한 ‘키잼 키오스크(스마트 성장 측정)’ 등을 도입 · 운영 중에 있다.

이 같은 스마트 플랫폼을 활용한 K-유아교육은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 4월 4일에는 이인화 우즈베키스탄 국제대학 유아교육과 학장이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을 찾아 해당 시스템들을 참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정순 선재어린이집 원장, 민선옥 ㈜아이좋아 대표, 권경숙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등이 함께 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제대학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스마트 보육 모델 운영 참관 행사에서 시연을 담당한 김민주 원아가 키오스크에 얼굴 인식을 하고 있다.

이날 참관행사에는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에서 이뤄지고 있는 스마트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시연이 이뤄졌다. 특히 김민주 원아가 ‘키잼 키오스크’를 활용해 직접 자신이 얼굴을 인식하고 자동 신장 체중계에 올라서 스스로 신체 데이터를 입력하는 모습은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아띠맵을 통해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를 골라보는 등 또래관계 형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고 관계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실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교사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이들의 상황이 모두 DB화되고 수치화돼 발달 과정을 쉽게 파악하게 됐으며, 보육과 상담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조계사인근 직장인 학부모들이 학력 수준이 높은 만큼 수치화된 데이터를 보고 선재어린이집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졌다.

이슬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교사는 “‘굿데이’를 통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감정을 체크하고 자신의 기분과 상태를 친구에게 알려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유도됐다”면서 “‘아띠맵’은 아이들의 관계 형성을 파악하는 게 용이해 학부모 상담에 적극 활용됐고, 부모님들의 반응도 좋았다. 교사 역시도 좋아하는 또래 네트워크와 싫어하는 또래 네트워크를 알 수 있어 개별적 지원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스마트 보육서비스에 대해 이인화 우즈베키스탄 국제대학 유아교육과 학과장은 해외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봤다. 이 학과장은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같은 스마트 보육 플랫폼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은 20년 전 한국과 같이 ‘지식’ 위주로 유아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놀이’를 중심으로 한 한국식 유아교육을 어떻게 전할지가 관건이지만, 한번 물꼬를 트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충분히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내용적으로는 업그레이드 할 부분이 있다. 이를 보완하면 코이카(KOICA)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스마트 보육 플랫폼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의 ‘스마트 보육 플랫폼’ 구축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터치형 스마트TV를 한 대 더 구입할 계획이며, 아이들이 어린이집 내부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수직정원도 조성하려 한다. 이 같은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조계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정순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원장은 “조계사처럼 산하 어린이집에 이 같이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주지 지현 스님께서 모든 교육 서비스를 파악하시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시고 있다”고 말했다.

80대 노보살들 인재불사로 아름다운 회향

부산연꽃모임 5인, 동국대 건학위에 5100만원 기부

부산에서 신행과 봉사활동을 펼쳤던 보살들이 평생을 아끼며 모은 재산을 인재불사를 위해 회향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4월 6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동국대 건학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대원성(이정옥) 보살, 대자행(권정원) 보살, 금강월(윤정희) 보살, 진여성(이성림) 보살, 불국화(홍옥자) 보살이 참석했다.

법인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 사무처장, 학교 측에서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 정각원장 진명 스님, 하홍열 대외협력처장, 장환영 학생처장과 동국건학장학생들이 함께 했다.

기부자들은 ‘부산연꽃모임’에서 만난 도반으로 신행과 지역사찰 봉사 등을 50여년 간 펼쳐왔다. 모임 회원들의 고령화로 최근 모임을 회향하면서 조계종에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불사와 튀르키예 지진 구호금으로 11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번 기부 역시 인재불사로 회향하고 싶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뤄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49재 장례비용까지 모두 미래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정재를 내놓아 감동을 전했다.

기부금액이 5100만 원인 이유도 눈길을 끌었다. 본래 기부 동참 불자 1명이 1000만 원을 기부키로 했으나 대원성 보살의 지인이 1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며 최종적으로 5100만 원이 전달됐다.

동국대는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학교 대표 장학제도인 ‘동국건학장학’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평생에 걸쳐 한 푼 한 푼 모아둔 돈을 동국대 학생들에게 기부해주신 보살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면서 “불자들께서 소중하게 주신 작은 마음들이 나비효과처럼 크게 확산돼 우리 사회에 큰 메아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생 모은 정재, 장학기금 보시
전액 장학제도 ‘건학장학’ 활용



행사 관계자들이 전달식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재웅 총장은 직접 노보살들의 공덕을 찬탄하는 축사를 직접 써 낭독했다. 윤 총장은 “멀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겠다는 보살님들의 선행보시의 공덕을 찬탄한다”며 “아름다운 선행 공덕이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에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선행 선업의 새로운 씨앗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정각원장 진명 스님은 “불자로 살아오시면서 기도와 수행, 그리고 회향에 이르기까지 다른 불자들의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며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행생활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자도 회향의 자리를 만들어준 동국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원성 보살은 “작은 마음을 전한 것 뿐인데 큰 행사를 열고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감사와 감동을 넘어 죄송한 마음”이라며 “지난해 40년 간 인연을 맺어온 지정 스님이 입적하시면서 동국대에 장학금을 후원하셨다. 지정 스님의 뜻을 받들어 스님 대신 제가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고, 저 역시 동국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대자행 보살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으며, 금강월 보살은 “부처님께 은혜 갚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여성 보살은 “다음 생애 동국대 학생으로 부처님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다. 부처님의 은혜가 동국대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축원했으며 불국화 보살은 “작은 마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씨를 심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동국건학장학생 1기 대표학생들이 지난 1년 간 활동을 소개하며 노보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성민 기자

광화문, 특정종교 성역 될 수 있는가?

비구니회, 4월 18일 광화문 답사
공공성 회복 촉구 입장문 예정도

특정종교의 광화문광장 성역화로 불교역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광장에 대한 공공영역 회복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광화문광장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공공영역 광화문, 특정종교의 성역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현장답사 및 특강을 연다.

불교역사제자리찾기본부와 대한불교청년회가 함께하는 이번 시간은 1부 현장답사와 2부 특강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1부는 10시 30분부터 광화문광장 일대를 현장답사하는 시간이다. 조계사에서 출발해 종각역사거리, 광화문광장까지 걸으며 일대에 널리 설치된 천주교 성역화 표식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광화문광장은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으로서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 정치의 정통성이 지켜진 공간이다. 현장답사는 특정종교의 성역화 표시 설치물을 세우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부는 12시 4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홍선기 교수 등 이 특강에 나선다. 질의응답 토론 후에는 ‘광화문광장의 역사성과 공공영역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비구니회의 입장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광화문광장은 공공영역의 특성이 어느 곳보다 크고 상징적인 곳”이라면서 “이번 자리는 광화문광장에 특정종교의 성역화 표시 설치물이 세워진 것이 과연 합당하고 합법적인 일인가를 검토하고, 바른 역사를 지키고 세우는 실천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동국대,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학교 선정

문화재청 4월 4일 지정 발표…불화장 육성 3년 지원

조계종립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무형문화재 불화장 육성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운영 지원 학교로 선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젊고 우수한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양성하고, 무형유산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운영 지원 대상으로 불화장 종목의 동국대와 진주검무 종목의 경상국립대를 선정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운영 지원 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수료하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전수교육학교 중 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에 걸쳐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며, 무형유산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전수교육종목 전승자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게 문화재청은 총 3년간의 지원 기간 동안 전승자 교원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전수장학금 등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동국대와 경상국립대는 전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연 60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선정으로 △경상국립대(진주검무) △동국대(불화장) △충북대(한지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단청장, 목조각장, 제와장, 한산모시짜기)의 4개교(7종목)가 됐다.

문화재청은 “변화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진입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전승체계의 우수사례를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보존처리 과정 담다

국립문화재硏, 보존처리 책자 발간

지난 2015년 10월 양양 선림원지 발굴장에서 통일신라 추정 금동보살입상이 출토됐다. 오랜 시간 땅에 묻혀 있던 만큼 금동보살입상 표면에는 흙과 청동녹이 뒤엉켜 붙어 있었고, 오른쪽 발목은 부러져 대좌(臺座)와 분리돼 있었다. 광배는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어 긴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발굴기관인 발굴조사를 수행한 (재)한빛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금동보살입상을 긴급 인수해 보존처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센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보존처리를 시행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이 같은 양양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의 보존처리 과정과 성과를 담아낸 〈양양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보존처리〉를 최근 발간했다.



책자는 금동보살입상의 출토 당시 현황과 미술사적 의의를 비롯해 성분분석, 방사선 비파괴 조사와 과학적 보존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결과를 수록했다. 또한 3차원 입력(3D 스캐닝)과 X선 컴퓨터단층촬영(CT) 자료를 융합한 가상의 디지털 복원 결과도 담겼다. 책자 원문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음(portal.nrich.go.kr)에 공개된다. 신성민 기자

태극권 최고수, 서울 조계사에 뜬다

조계사, 4월 21일 ‘진병 노사’ 초청 국제 세미나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지현)가 4월 21일 오후 4시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진병 노사 초청 태극권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태극권에 담긴 수행 문화를 전달하고, 한 · 중 우호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한국진씨태극권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진병 노사가 태극권과 건강을 주제로 강연하며 태극권 시연이 이어진다. 진병 노사는 중국 진씨태극권 제12대 적종전인으로 중국 국가 1급 권사이다. 현재 진가구 국제태극원장이며 진가구태극권협회장, 초작시 태극권협회 부회장 및 법인대표다.

진병 노사의 특강에 이어 태극권 대련인 추수가 진행된다. 태극권 추수는 진병노사와 제자 이우현 진병태극원 원장이 시연을 보인다. 이우현 원장은 진병노사의 정식입문제자로, 2001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태극권의 발원지인 중국 하남성 진가구에서 유학했다. 2003년 대한 한의사 진식태극권학회 교련을 역임했으며 2004년 중국 하남성 초작시 초 · 중 · 고 체육교사를 상대로 태극권을 지도했다.

추수에 이어 청암사 김천 청암사승가대학의 스님들이 참가해 태극권, 태극선, 태극검을 시연할 예정이며, 세계진소왕태극권총회 서울분회 시연도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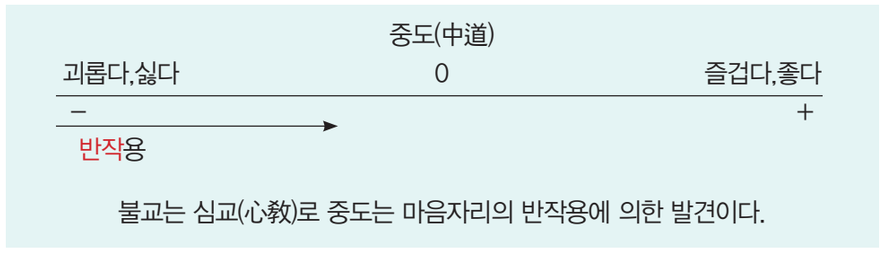
이 원장은 “이번 진병 노사의 한국 방문이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된 한중 무술의 활발한 교류와 민간차원의 한중 우호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010)3589-1202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왜 0은 쌀 모양 타원형일까

중도, 마음 작용과 반작용의 조화 (上)


동양인의 주식인 쌀. 부처님은 고행을 끝내고 우유죽을 공양받고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 득도 계기는 '쌀'이었다.

부처님, 우유죽 먹고 '中道'의 깨달음
'쌀은 하얀 보살' 〈계림유사〉 기록돼
고려~조선 중기, 쌀은 'ᄇᆞᆯ'이었다
붓다의 득도 계기 '쌀', 0 형성 영향



불교는 심교(心敎)로 중도는 마음자리의 반작용에 의한 발견이다.

수학의 '0'은 붓다의 공(空)사상을 설명하는 언어이다. BC 6세기 붓다께서 득도하신 공 사상이 인도사회의 상식이 되어 AD 6세기 인도의 수학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 세계에 투사(投射)하여 '0'이 발견된 것이다. 0은 (-0.1) 이하의 모든 수보다 큰 Zero가 아닌 없는 듯 있는 수로 진공묘유(眞空妙有)라고 한다. 즉 공과 0은 동위개념으로 오늘날 핸드폰의 기호일 때는 010(공일공), 숫자에서는 0(영)이라고 한다. 인도에서는 1층을 0이라고 한다.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던 영국에서도 0층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다. 0은 나눌 수 없으며 곱하면 0이 되는 숫자의 왕이 되었다. 태극(太極)은 크다는 뜻이 아닌 무극(無極)으로 음양의 태극 문양(紋樣)도 (−)와 (+)를 내포하고 있는 0과 동위(同位)개념으로 보고 싶다.

붓다의 시절 몸을 괴롭히는 만큼 비례하여 정신은 고차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붓다는 과거와 미래의 어느, 수행자도 자신만큼 철저한 수행자는 없다고 하였다. 간다라 미술의 피골(皮骨)이 상접(相接)한 수행자 붓다의 조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붓다는 출가 후 5년 6개월 동안의 고행수도가 무익(無益)함을 깨닫고 파계수준의 중도(中途)에서의 수행 중단의 영단(英斷)으로 중도(中道)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때의 상황은 5명의 동행 수행자가 실망한 나머지 붓다의 곁을 떠나는 사건으로 짐작할 수 있다.

미당(未堂) 서정주(徐廷柱) 선생은 사람의 몸값을 인류사상 최고치로 인정한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몸 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떠오른다. 몸은 행복을 만드는 화학(化學) 공장이다. 이 무렵 수자타라는 처녀의 쌀 우유 죽 공양으로 몸을 추스르신 후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시었다. 붓다의 일생을 그린 〈불소행찬(佛所行讚)〉에 따르면 태자 시절 미식(米食)의 미식가(味食家)였다. 붓다의 득도는 밥맛을 통한 몸의 깨달음이다. 즉 출가 전의 맛있다(좋다, 즐겁다)의 제1세계와 출가 후 고행 시절 맛없다(싫다, 괴롭다)의 제2세계 뿐 아니라 고행 중단으로 새롭게 느끼는 밥맛을 통해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맛있음(좋지도 싫지도,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즐거움)'의 중도라는 제3의 신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수자타의 공양이 외조(外助)였다면 붓다의 공양은 내조(內助)가 되어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진 것이다. 붓다 이전의 많은 출가자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들은 귀족이 아닌 평민이었으므로 출가 전 쓴맛의 생활이 출가 후 똑같은 쓴맛의 생활로 이어져 비교우위의 세계를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의 출가는 가출이었던 셈이다. 오늘날 무문관(無門關) 수행의 착상은 붓다의 6년 고행 수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 수행은 폐쇄된 독방에서 문을 잠그고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 받고 3년에서 길게는 10년 용맹정진하는 혹독한 수행법이다. 무문관 수행 기간 마음자리는 붓다의 6년 고행 때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 머물게 될 것이다. 긴 암흑의 터널을 통과하는 괴로운 시간을 끝내고 해제(解制)되는 날 마음자리는 (-)에서 반작용으로 0으로 돌아오면서 중도의 법열(法悅)을 몸으로 느낄 것이다. 따라서 장좌불와(長坐不臥)수행은 오로지 고통의 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다.

비행기 탑승 중 갑자기 공기 밀도가 낮은 에어포켓(air pocket) 공간을 통과할 때 비행기는 순간 수백 미터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탑승객들은 마음자리가 순간 마이너스(-)로 변하면서 죽음의 맛을 보게 된다. 다시 정상 비행을 할 때 탑승객들이 느끼는 심경(心境)이 바로 중도의 맛이다. 이처럼 중도는 마음자리의 (-)작용과 반작용(0)의 오묘한 조화(造化)이다.

한 여름철에는 보리밥을 물에 말아 보리굴비를 반찬으로 별식으로 먹기도 한다. 보리쌀은 (-)의 찬 성질이 있어 여름이 제격이다. 반면 겨울철에는 더운 성질(+)의 찹쌀로 만든 약식(藥食)이나 찹쌀떡이 입에 당긴다. 그러나 보리와 찹쌀은 일년 내내 먹을 경우 물려서 먹을 수 없다. 중도(0)의 성질인 멥쌀은 평생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일상사(日常事)에서 중도라는 진리를 누구나 깨닫게 될 수 있다. 전통 사찰음식 가운데 일반인은 먹을 수 없는 빈대 냄새나는 '고수풀'이 있다. 아마도 스님들에게 중도의 맛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방편의 나물이었던 듯하다. 우리 속담에 "덤덤한 호박 맛을 알 때 인생의 철이 든다"라고 하였다. 나는 식도락가(食道樂家)의 호기심에서 시식(試食)한 인연으로 기호(嗜好)식품이 되었다. 나의 인생길에서 이 냄새보다 참기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이 있었던 듯하다.

고수풀 나물은 인생의 고수(高手)가 먹는 식품이다. BC 6세기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의 계기가 된 쌀이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인격체로 의인화되어 기원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교의 삼보(三寶)인 불 · 법 · 승에서 붓다는 쌀, 법은 보리, 승은 콩으로 비유하여 쌀을 부처님과 동격으로 대접한다는 어느 고승(高僧)의 글을 본 적이 있다. 고려는 농경사회로 "일완지사 함천지인(一碗之食 含天地人, 한 사발의 밥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합작품일세)"(註)(食: 밥 사, 먹다 식) 과거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들은 밥알 한 알도 버리지 않고 사셨다. 밥은 하늘같은 존재였다. '民以食爲天', 백성들은 밥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기며 살았다. 송나라 때 백과사전인 〈계림유사〉(12세기 초)에 의하면 '白未曰 漢菩薩 粟曰 田菩薩- 흰쌀은 하얀 보살, 좁쌀은 전 보살 밭에서 나는 보살'이라고 하였다.

'ᄇᆞᆯ'의 음운 변화과정이다. '한ᄇᆞᆯ→한ᄲᆞᆯ(축약)→합ᄲᆞᆯ→햅ᄲᆞᆯ→햅쌀' '전ᄇᆞᆯ→접ᄇᆞᆯ→접ᄲᆞᆯ→좁쌀' 오늘날 'ᄇᆞᆯ'의 'ᄇ'과 'ㅅ'이 '햅쌀과 햇과일' 처럼 종성(終聲)에 살아남아 있다.

〈계림유사(鷄林類事)〉는 고려 숙종 때 중국의 사신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기록관리인 서장관(書狀官)으로 온 손목(孫穆)이 11~12세기 고려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설명한 고려 시대 언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부터 조선 중기까지 오늘날의 쌀을 'ᄇᆞᆯ(菩薩)'이라 하였다.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구도자'라는 뜻이다. 사리(舍利)는 성자의 유골을 뜻한다. 석가모니에게 밥이 생전에는 득도의 스승이었다면 사리는 80 평생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수도자로서 사후의 성적표인 결정체(結晶體)인 것이다. 즉 쌀 · 밥과 사리는 동격으로 생전과 사후 최고가치의 기념물이요 표상(表象)이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동지 다음날부터 해가 노루 꼬리만큼 길어진다"라고 하여 얼마나 해의 존재를 귀히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다. 동서양 고대인들에게 태양은 곧 신이었다. 예수의 탄생일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왜 12월 25일로 정했을까. 이는 태양의 빛이 길어지는 평균 시점(時点)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A.D 6세기 인도의 수학자들은 새로운 기호인 영(零)의 모양을 정할 때 둥근 태양 (○)모양과 쌀 모양의 (0) 타원형으로 최종 의견이 양분되지 않았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국은 농경사회인 동시에 석가족(釋迦族)은 태양숭배민족이었다. 그러나 붓다의 득도 계기가 쌀이었으며 왕가의 돌림자가 '밥 반(飯)'으로 정반왕(淨飯王), 백반(白飯), 곡반(斛飯), 감로반(甘露飯)으로 쌀 모양이 우세하게 되었다는 추론(推論)은 무리가 아니다. 앞으로 식생활의 혁명이 일어날지라도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의 재료인 쌀로 빚은 가래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득한 2600년 전 일상의 밥맛에 중도라는 행복이 있음을 일깨워주신 붓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한낱 에너지원으로 섭취하고 있을 뿐이다.

불교는 '현재〈미래(종교)', '현재〉미래(철학)' 부등호에 따라서 종교와 철학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현세에서 어쩔 수 없이 있게 마련인 사회 절반의 실패자들을 위해서 천국이라는 내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불교가 인간의 욕망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미래 종교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대과학자의 예언대로 오늘날 서양에서는 마음챙김(meditation) 열풍이 불고 있다. 올바른 불교의 깨달음은 중도(中道)에서 도(道)를 이해해야 한다. 국어학에서 뜻이 있는 말을 실사(實辭), 뜻이 없는 말은 허사(虛辭)라고 한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부득이한 예로 돼지 '족발'에서 족(足)은 뜻이 없는 발음이며 '발'이 뜻이다. 이처럼 중도에서 중(中)은 발음이며 도(道)가 0이라는 뜻이다. 도(道)를 파자(破字)하면 '首(처음/0)'와 '辶(쉬엄쉬엄 감 착, 일명 책받침)'의 합자(合字)이다. 즉 마음자리가 처음으로 간다는 뜻으로 곧 도(道)는 '0'을 뜻한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란 마음자리가 언제나 중도의 자리인 '0'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노자(老子)의 명구(名句)인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에서 도(道)를 0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뜻이 가능해진다. 사람은 마음이 심란할 때 5만 가지 생각이 난다고 한다. 한 심리학자의 실험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 실제로 5만 번 변한다.〈계속〉

▲이규항 前 KBS아나운서 실장은?



서울 출생. 고려대 2학년 때 학년을 4학년으로 올려 KBS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나, 규정에 어긋나 졸업하던 해 다시 KBS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야구, 씨름, 유도 전문 캐스터로 활동하며 35년 동안 KBS 아나운서로 봉직했다. 퇴직 후에는 일본 프로 야구의 주니치로 이적한 선동렬, 이종범, 이상훈 선수의 활약상을 중계했다. 저서로 〈부처님의 밥맛〉 〈0의 행복〉 〈한국어 발음사전〉 등이 있다.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마하사, 무허가건물 양성화 준공검사 得

3월 27일, 9개 동 준공검사 得
개축 및 보수 불사 기틀 마련
전통사찰 건축 규제 모범사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마하사가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절차를 진행해 3월 27일 준공검사를 획득했다. 사진은 마하사 경내 모습.

부산 최고(最古) 사찰 마하사(주지 정산)가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절차를 진행해 3월 27일 준공검사를 획득했다. 마하사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절차로 합법적인 준공검사를 받아 앞으로 건축 개보수 및 사찰 건물 보수 공사 등 증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은 3월 31일 경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준공검사 획득은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전통사찰에 반가운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허가 건물이었던 전각 9개를 한꺼번에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런 성과는 그동안 전국 사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함께 노력해준 부산불교연합회와 연제구 공무원을 비롯해 기도해준 모든 불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마하사는 11개 전각 가운데 지장전, 나한전, 설법전, 종각, 초당, 방하착 문서고, 다각실, 창고, 화장실 등 9개 건출물이 무허가 상태였다. 이번 준공검사 획득으로 해당 건축물은 건축대장에 정식 등재되어 마하사는 앞으로 합법적으로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각종 규제로 건축물 보수나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통사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법을 적용해 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고 철거명령까지 응해야 하는 불공정을 감당해야 한다.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87년에 제정된 후 30여 년 동안 정부와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좁히고자 노력해왔다. 불교계의 개선요구에도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전통사찰 개발을 규제하고 있으며 여전히 불교계에서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에 준공검사를 획득한 마하사 전각 대다수가 1960년에서 1980년대 사이에 지어졌다. 이때 당시에는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이 없었고 지자체에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관념이 없었다. 현행법상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사찰의 노력이 다각화로 이뤄지지만 지자체의 건축과, 녹지과 등에서 적용하는 법안이 상충되고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산 스님은 "주지 취임 이후 마하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전통사찰보존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손발이 묶여 있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2년 6개월간 마하사에 가해진 불공정 규제를 해소하고자 노력을 다했다.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고 부산 불교 최초 사찰이라는 마하사의 위상에 맞는 사찰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전통사찰이 마하사와 비슷하게 1960년과 1970년대에 지어진 경우가 많다. 당시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고 그로 인해 강제이행금과 과태료 등 상당한 불이익을 현재 받고 있다. 비상식적인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전통사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최초 사찰인 마하사는 신라 미추왕 재위시절 아도화상이 창건했다. 황령산 봉수대에 식량 보급지로 역할을 해왔으며 마하사 주위에 시릿대나무를 심어 왜적의 침입에 대비해 화살 제작을 하기도 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조선 숙종 때 신도 박성우가 초암 형태로 대웅전과 나한전을 지은 후 중건 불사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마하사는 오랜 역사만큼 '불씨를 구해준 나한과 동지팥죽', '참새를 쫓아낸 나한', '소리 나지 않는 금구'와 같은 다양한 설화도 가지고 있다. 마하사는 저녁 종소리가 아름다워 '수영8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명찰이다. 부산시 문화재 21점(사찰문화재 4점 포함), 사찰문화재 7점, 범어사 성보 박물관 기탁 9점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통도사, 불기2567 보살계 산림법회 봉행

4월 16일~18일, 3일 간 법석
〈범망경〉 보살계본에 근거해
10중계 · 48경계 설법 예정



통도사가 4월 24~26일 금강계단서 '불기2567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2017년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모습.

계율근본도량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내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7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입재법회는 4월 24일 오전 9시 30분 경내 설법전에서 열린다. 오전 입재불공을 시작으로 입재식 및 설계(設戒)가 진행된다. 둘째 날인 4월 25일에는 오전 불공에 이어 설계 후 마무리 되며, 회향일인 4월 26일에는 오전 7시부터 설법전 앞에서 계첩 배부가 진행된다. 오전 8시 불공 후 오전 9시 10분 설법전에서 수계식 및 영축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된다. 이후 참가자들은 계첩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지고 금강계단 앞에서 스님의 연비를 받은 뒤 사리탑을 돌며 회향한다.

이번 보살계 수계산림에는 전계대화상인 영축총림 율주 덕문 스님을 비롯해 3사 및 7증사 스님이 3일 동안 〈범망경〉 보살계본에 근거해 10중계(重戒)와 48경계(輕戒)를 설할 예정이다.

통도사는 보살계 동참자를 격려하고 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회향법회에서 특별한 시상식을 마련한다.

통도사는 매년 보살계를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불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통도사는 10회 · 15회 · 20회 수계자에게는 기념메달을 전달하고 25회 · 30회 · 35회 · 40회 수계자들에는 성만패를 증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매년 참가 동기를 높이고 보살계를 지키고 불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도록 도와 신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인재불사를 위한 나눔도 이어진다. 영축총림 강원과 율원에서 수행 및 정진하고 있는 학인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축장학회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통도사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는 계율근본도량이다. 개산조 자장 율사는 부처님의 금란가사와 진신사리를 봉안해 모신 금강계단을 수계 증명단으로 삼았다"며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어가기 위해 보살계 산림법회를 봉행한다. 널리 동참해 인연공덕을 맺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55)382-128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파라미타, 2023년 정기총회 개최

3년 만에 대면으로 총회 열어
"분회 활동 활성화 적극 지원"



사단법인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보운 · 이하 부산파라미타)가 3월 31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2023 부산파라미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대면 총회이며, 대면화 시기를 맞아 발대식, 부산문예창작마당, 연등축제 등 분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파라미타는 분회활동으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학생들의 사회관계 증진에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정기총회에는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과 백명숙 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기총회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격려사 및 인사말씀,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감사결과 보고와 안건심의로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총재 보운 스님은 인사말 대독을 통해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 파라미타에 감사하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성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에게 좋은 가르침을 선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명숙 협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행사를 진행하고 서면으로 인사말을 대신해 아쉬움이 많았다"며 "청소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노력이 청소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남해 용문사, 어르신 무료 점심공양

남해 마을 2000여 어르신 대상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가 3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남해 일대를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

이번 점심 공양 나눔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효사상을 실천하고 지역 어르신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용문사는 남해 용소리 마을을 시작으로 남해군 관내 마을 22개와 인근 마을 1개를 포함해 총 23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3월 29일 남해읍에 소재한 한우식당에서 첫 행사가 열렸으며, 행사에는 주지 승원 스님과 장충남 군수, 지역 군의원 등 관계자가 동참했다.

공양 행사에서 주지 승원 스님은 "이번 무료 점심 공양은 농촌에 홀로 남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잠시라도 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불교교육대학, 호국영령 수륙대재

'칠천량 · 장문포해전 호국영령 수륙대재' 4월 16일 장목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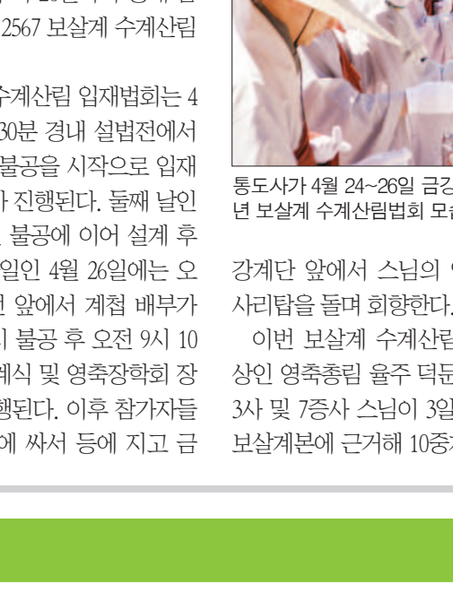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4월 16일 오전 10시 거제시 장목항에서 '칠천량 · 장문포해전 호국영령 수륙대재'를 봉행한다.

이번 수륙대재는 거제 칠천량해전에서 숨진 1만여 호국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열리며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생와 화엄승가회 소속 사찰 신도 1000여 명 및 지역민 등 3000여 명의 대중이 함께할 예정이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은 "칠천량해전은 최근 영화 '명량'과 '한산'의 연이은 흥행으로 조명 받은 전투"라며 "임진왜란 해전 중 유일한 패전으로 기록된 전투이며 병사 1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투로 아픈 역사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칠천량해전이 비록 왜적에게 패한 치욕의 역사라 할지라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의미로 칠천량 · 장문포해전 호국영령 수륙대재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오프라 윈프리는 왜 명상에 열광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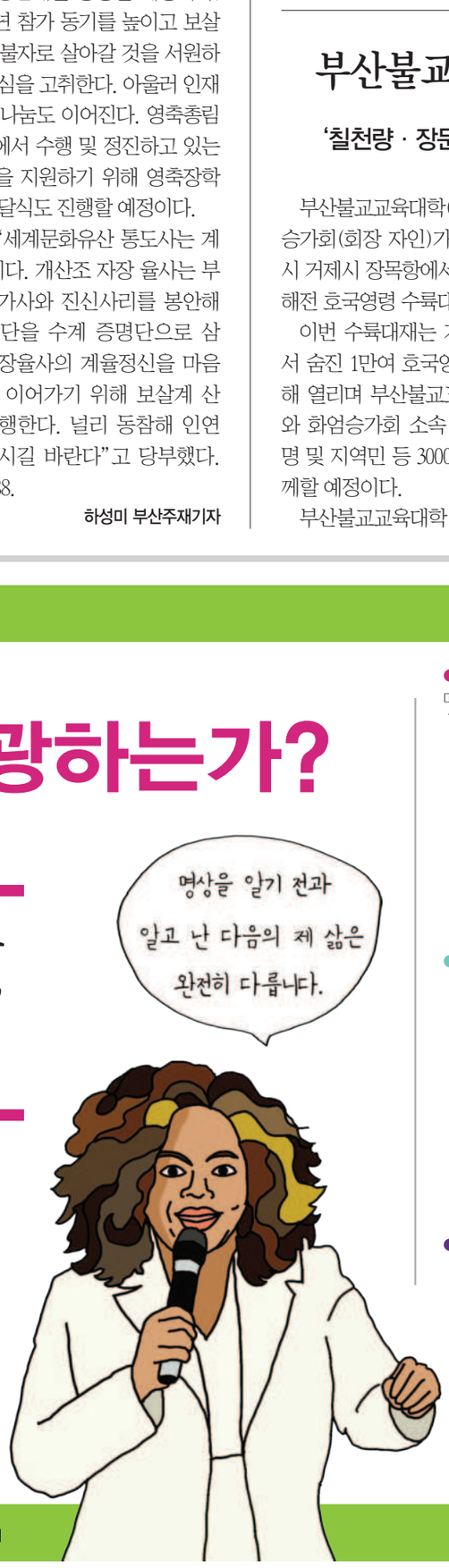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글 혜명 김일행 · 그림 배중훈 | 192쪽 | 15,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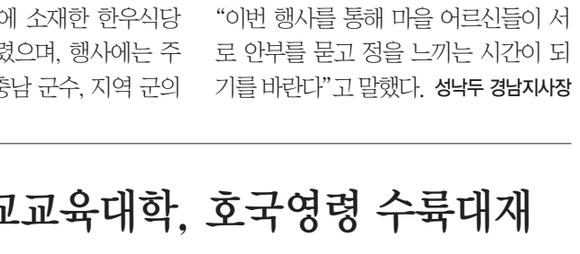
"제가 명상을 하면 1000%는 더 나은 사람이 되거든요."
–매일 제 중심을 잡고 저를 위해 명상을 하는 겁니다–

성공의 필수 습관이 된 명상!
스티브 잡스, 빌게이츠, 마이클 조던은
왜 명상에 열광하는 걸까!
뇌과학을 통해 증명된
명상의 중요성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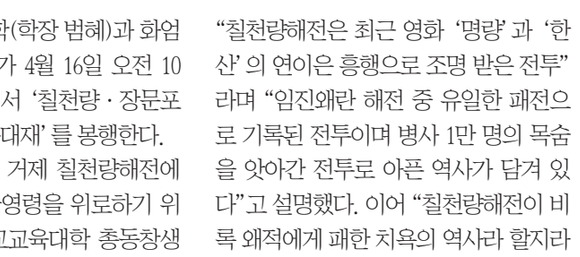
●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마음을 바르게 보는 매커니즘을 밝혀 심리 작용을 알려주는 마음 입문서!

●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불교의 깊이와 지혜를 담아낸 본격 불교 교리 입문서!



●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붓다의 생애, 가르침, 역사, 계율, 교단 성립이 한눈에!

●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뜻 모르고 독송하던 천수경의 자상한 해설서!



●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
부처님 생애를 일상어로 풀어낸 최고의 불교 입문서!

●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등 중요 경전(20종)의 요점을 한눈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연화산 옥천사 장유불교대학 김해서 개원

부처님 점안 및 불교대학 개원식
"불교도래지 김해서 개원 의미 커"
2년 과정 개원 매주 월요일 강의

성낙두 경남지사장

옥천사 장유불교대학이 경남 김해에서 개원했다. 장유불교대학(학장 수운)은 3월 30일 김해시 번화로 굿모닝 빌딩 6층 법당에서 연화산 옥천사 장유불교대학 부처님 점안법회 및 불교대학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적멸보궁 지성 스님과 관음사 동명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된 1부 점안식에 이어 2부 장유불교대학 개원법회가 이어졌다.

초대 학장에 취임한 약수암 수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법을 전해야 하는 것이 출가 수행자로서 당연한 소명이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불교가 많이 쇠퇴해진 것을 느꼈다" 며 "산중의 사찰에 안주하는 것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곳에서 불법을 펼쳐 보이고 싶었다"고 장유불교대학 개원취지를 밝혔다.

수운 스님은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도래지인 김해 장유에서 장유불교대학 개강으로 부정적인 마음에서 밝은 긍정의 마음이 되기 위해 불교대학을 만들었다"며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유불교대학은 3월 30일 김해시 번화로 굿모닝 빌딩 6층 법당에서 연화산 옥천사 장유불교대학 부처님 점안법회 및 불교대학 개원식을 봉행했다.

적멸보궁 지성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장유화상이 이 국토에 처음으로 불교의 씨를 뿌렸고 오늘은 장유불교대학 개원이라는 꽃이 활짝 피는 날"이라며 "지역을 초월해서 이곳 장유에서 불교가 새롭게 태어나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삼보에 공경하고 수행정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음사 동명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부처님의 유훈을 받들어 정법의 가르침으로 불교대학 학생들이 용기와 희망이 되어 어려운 시기에 큰 등불처럼 삶의 지팡이가 되고 발전하기 바란다"고 개원을 축하했다.

옥천사 마가 스님은 축사를 통해 "그럴 수 있지 하면 행복해 지고, 그럴 수 없지 하면 불행해진다. 학장 수운 스님께서 일평생 부처님 밥 먹고 살았는데 마지막 회향으로 장유에 불교대학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다"며 "귀 기울이기, 바라보기, 소통하기, 공감하기, 함께하기의 학훈을 가지고 행복으로 가는 장유불교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조계종 前 종회 부의장 이암 스님도 축사에서 "포교당 없는 이곳에서 개강함에 감사하며 그것은 불교가 위대하기에 가능하다. 근본교리를 중심으로 명상, 사섭법에 의한 개인 맞춤형 강의를 통해 장유불교대학이 발전하기 바란다"며 힘든 시기에 어려운 결정을 한 수운 스님에게 정기적인 후원을 당부했다.

윤선자 불자는 입학생 선서를 통해 "버릴 것은 집착이고 배울 것은 지혜이며 실천할 것은 자비임을 명심하여 학칙을 준수하며 수학, 수행, 정진할 것"을 서원했다.

장유불교대학은 '귀 기울이기, 바라보기, 소통하기, 공감하기, 함께하기' 를 학훈으로 2년 4학기과정으로 이날 개원했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이날 법회에는 장유불교대학 학장 수운 스님(약수암), 고성 적멸보궁 지성 스님, 고성 관음사 동명 스님, 천비룡사 일선 스님, 고성 옥천사 마가 스님, 조계종 前 종회 부의장 이암 스님(고성 문수암), 고성 운흥사 월암 스님, 고성 청수암 진각 스님, 고성 보현암 성혜 스님, 고성 약사암 법조 스님, 진주 보광사 현도 스님, 화순 법계사 지묵 스님, 거제 보현사 영담 스님, 강원도 신흥사 덕문 스님, 해인사 백련암 일신 스님 등 스님 30여 명과 하학렬 前 고성군수, 입학생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김해 바라밀선원 개원 10주년 맞이 행사

기념법회 · 승보공양법회 봉행
관음전 낙성, 가사공양 등
총 1000만 원 장학금 전달

김해 바라밀선원(주지 인해)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승보공양법회를 봉행했다.

4월 1일 바라밀 선원 2층 대법당에서 열린 개원 10주년 기념 법회는 관음전 낙성식, 육법공양, 스님들에 대한 가사공양, 주지스님 법문,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음성공양, 생전예수재 49재 및 천도재의 순으로 진행됐다.

바라밀선원 보현화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 대표들은 15명의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주지 인해 스님, 부주지 덕암 스님을 비롯한 12명의 스님들에게 우슬착지하고 가사를 이마에 정대한채 스님들께 가사를 공양했다.

바라밀선원 주지 인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처음에 아무 연유도 없는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천일기도를 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지난 10년간을 회고하고 "이제 큰 산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부터는 바라밀선원의 재정도 공개하고 신도님들이 모든 것을 맡아 하고 스님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 바라밀선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승보공양법회를 봉행했다.

스님은 이어 "자타불이력이라고 해서 내가 꼭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력, 서원이 늘 있어야 한다"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한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바라밀선원 장학회 장학증서 및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인해 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과정 금산 스님을 비롯한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석사, 박사과정 학인 스님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바라밀선원에서는 지난 10년간 매년 10여 명의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이상덕 동국대 대외협력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 학인스님들께 장학금을 전달해 오신 것은 스님과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이라며 "종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보현화 신도회장은 "바라밀선원이 오래도록 유지되면서 바라밀선원에 오면 누구라도 행복한 절이 되길 바란다"며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을 이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서 바라밀선원이 최고의 명품 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라밀선원 합창단의 음성공양에 이어 생전예수재 49재 및 천도재를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녹색환경연합 상임대표 진성스님 추대



전북녹색연합은 3월 31일 전주에너지센터 3층에서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사진>을 상임대표로 추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환경운동 결과 보고, 감사결과 보고, 결산 보고, 운동평가 보고, 2023년도 운동계획 승인, 예산계획 승인, 임원 선출 및 감사 선임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원선출에서는 상임 공동대표로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태고종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협의회 의장, 전북교구 종무원장)이 추대되어 23년도부터 2년간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전북녹색환경연합을 이끌어가게 됐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라북도뿐만 아닌 전 세계의 환경 지킴이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겠다"며 "녹색환경 연합회 회원의 지도 아래 전북의 환경을 살리고 녹색연합 운영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서 공개 촉구 공동행동과 수라갯벌 연안습지 보존, 생태조사, 저어새 번식지 현장 조사, 수라갯벌 문화재 발견 대응에 신속대처하고 진안 용담댐 상수원 오염 조사를 통해 금강과 섬진강을 살리는 데 역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성주사, 강가라마야 사원 친선 협약

스리랑카 강가라마야 사원서



창원 불모산 성주사(주지 법안)가 3월 23일 스리랑카 강가라마야 사원에서 친선 협약식을 개최했다.

친선 협약을 통해 성주사와 강가라마야 사원은 스리랑카 자립지원센터 건립 및 주변 시설 조성을 위해 함께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을 비롯한 성주사 및 강가라마야 사원 불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식은 사찰 소개 및 인사말,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가라마야 사원은 스리랑카 내 불치사와 함께 가장 규모가 큰 사찰 중 하나이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강가라마야 사원은 불교 사찰이며 또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사찰"이라며 "양 사찰의 친선 협약으로 불교문화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자"고 제안 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창군 종합 · 노인복지관 짜장면 나눔



고창군 종합 · 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은 고창밀알회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고창밀알회(회장 유문호)는 4월 3일 고창군 종합 ·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고창밀알회는 고창군 종합 · 노인복지관과 협업을 통해 고창군 지역 지역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복지관 이용 어르신 300여 명에게 짜장면을 준비해 함께 식사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고창밀알회 유문호 회장은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짜장면을 드시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종합 · 노인복지관 관장 대원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 주신 고창밀알회 회장 및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개발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日, 사찰서 만든 코인 보시금 대용 화제

현금 없는 사회 속 전통문화 새로운 형태

박영빈 객원기자

나고야 반쇼지, 코인 제작
관음보살 새겨진 작은동전
카드·모바일로 자판기 판매
사찰 기념품으로 인기몰이

최근 현금이 아닌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하는 '캐시리스(Cashless)'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불교계도 이에 따라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 고찰에서 자체 제작한 코인을 경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시도가 등장해 화제다. 4월 2일, 일본의 'J-캐스트 뉴스'는 나고야 반쇼지에서 제작한 '반쇼지 코인'에 대해 보도했다.

반쇼지(萬松寺)는 일본 나고야에 소재한 선종사찰로 16세기 중반에 세워져 당시 권력자들의 후원을 받아 근대까지 크게 번성했던 고찰이다. 이후 2차대전 당시 공습으로 전소, 90년대 중반에 들어 현대식 빌딩의 형태로 재건됐다.

이곳 반쇼지에서 최근 고안한 것이 바로 '반쇼지 코인'이다. 본존불인 11면 관세음보살상의 모습이 새겨진 작은 동전으로 경내에서 보시금, 혹은 경내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반쇼지 경내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판매 중인 반쇼지 코인은 1개에 500엔(한화 약 5천 원)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최대 10개 들이 패키지로도 구입할 수 있다. 자판기 역시 현금결재는 물론 카드나 모바일 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SNS를 통해 소문이 나고 있는 반쇼지 코인은 누리꾼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항상 잔돈이 없어서 보시금을 낼 때마다 고민했는데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저렇게 사찰 전용의 대체통화를 만든다면 보시금의 도난문제도 줄어들어 운영 측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안자의 아이디어가 대단하다고 평했다.



반쇼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쇼지 코인', 절의 본존인 11면 관음상이 찍혀있다.
사진출처=J-캐스트 뉴스

반쇼지 측은 "반쇼지 코인은 기본적으로 사찰을 방문하는 젊은 층이나 외국인들을 주요 타겟으로 고안됐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사찰 참배는 동전을 보시함에 던져 넣어 기원하는 방식이기에 그러한 참배법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 끝에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반쇼지 코인은 경내에서 보시금이나 기도접수, 공양물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거스름돈은 내지 않고 있다. 동전의 형태지만 참배자가 이미 구입한 물건이기에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 사찰 측은 "기념을 위해 구입하는 참배자도 있는 만큼 절에서 통화로 회수된 코인은 재사용하지 않고 자판기에는 언제나 새로 주조된 코인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반쇼지의 주지 다이토 겐유 스님은 "계획 자체는 5~6년 전부터 생각했다. 당시 보시함의 밑판을 뜯어서까지 보시금을 훔쳐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사회적으로도 캐시리스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시국을 겪으면서 실제 현실화된 것은 지난달부터"라고 말했다.

스님은 SNS의 긍정적인 반응들에 놀라면서 이렇게 호평일 줄 몰랐다는 반응이다. 스님은 "사실 교계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진행했다. 하지만 청년층의 호응에 자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방식을 사용하는 젊은이들에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 그저 관습적인 방법들만을 유지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그 절은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현재 불교계의 고민을 지적했다.

작가 루스 오제키 "불교는 나의 영감"

하버드대 행사 '작가가 말하다'서 불교 애정 드러내

장편 소설 〈내가 너를 구할 수 있을까〉로 맨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루스 오제키(Ruth Ozeki)가 "불교를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글을 쓰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오제키는 3월 30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열린 '작가가 말하다' 행사에서 자신의 작품 활동에 불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혔다. 하버드대 마힌드라 인문학 센터는 '작가가 말하다'를 주제로 매회 유명 작가들을 초대해 강연회를 열고 있다.

오제키는 2022년 3월 출간해 2022 영국여성작가대상(the United Kingdom's 2022 Women's Prize)에서 수상한 최신작 〈형태와 공허함에 관한 책(The Book of Form and Emptiness)〉의 한 구절을 읽으며 행사를 시작했다. 이 책은 무생물의 소리를 듣는 소년의 이야기로 불교의 공(空) 사상과 고통에 관한 소설이다.

오제키는 "'공'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설명하기도 어려운 개념"이라며 "그러나 광대하고 또 광대한 바다를 '공'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설명했다. "지평선이 끝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닌, 거대하고 끝이 없는 공허의 바다"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은 후에 종교에 귀의한다"는 오제키는 "나의 부모님이 늙어가는 것을 보며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불교와 명상을 통해 한 인간의 변화를 돌아보고,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맞게 되면 새로운 책임을 배우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불교를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을지 모르겠다"며 "불교는 계속해서 나에게 생각할 것을 던져준다.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글을 쓰게 된다"고 했다. 특히나 불교 명상과 관련해선 "나는 본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웃어 보이며 "명상을 통해 인내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사진출처=하버드 크림슨

루스 오제키는 당초 다큐멘터리 영화 작가로 활동했고, 첫 번째 영화인 '조화의 몸'(Body of Correspondence, 1994)은 프란시스코영화제에서 '뉴비전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후 작가로 전향한 그는 〈My Year of Meats〉(1998), 〈All Over Creation〉(2003) 등 다수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특히 그의 세 번째 장편 소설인 〈내가 너를 구할 수 있을까〉는 2013년 맨 부커상 최종후보에 올라 주목받았다.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몽골불교에 새로운 지도자 공개

10대 제쭌 담빠 후툭투 환생자
몽골·중국정부 공식 입장 없어

몽골불교의 최고지도자로 존경받는 제쭌 담빠 후툭투의 10번째 환생자가 공개됐다. 3월 29일 아시아 정치외교 전문 외신인 '더 디플로맷'은 달라이라마가 공개한 몽골인 소년의 이야기를 전하며 향후 티베트와 몽골 불교계, 중국정부와의 갈등을 시사했다.

제쭌 담빠 후툭투는 몽골불교의 최고지도자로 외몽골이 공산화 되기 전까지 내몽골의 짱갸 후툭투와 함께 몽골 불교계를 이끌었다. 특히 8대 제쭌 담빠 후툭투는 신해혁명 이후 청나라에서 독립을 선언한 외몽골이 대칸으로 추대하여 복드 칸이라는 이름으로 즉위하여 독립운동을 이끄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몽골의 공산혁명 세력도 그를 존중하여 그의 입적 후에야 몽골을 정식 공산국가로 천명했다.

그러나 9대 제쭌 담빠는 몽골이 공산화 된 이후에 티베트에서 환생했으며, 신변의 안전을 위해 신분이 비밀에 붙여졌다.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한 이후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 달라이라마와 함께 인도로 망명했으며 90년대에 들어 몽골의 공산정권이 무너진 이후에야 그 신분이 공개됐다. 이후 9대 제쭌 담빠는 인도와 몽골을 오가며 포교활동을 이어갔다.


10대 제쭌 담빠 후툭투의 환생자로 소개된 소년(좌측)이 달라이라마에게 예물을 공양 올리고 있다.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당시 이러한 행보에 대해 중국정부는 "몽골과 중국 양국 관계에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며, 몽골정부가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제쭌 담빠를 공인할 경우 그 대가를 치룰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9대 제쭌 담빠는 몽골 시민권을 취득, 2011년에 공식적으로 몽골불교의 최고 지도자로 취임하였고 이듬해 울란바토르에서 입적했다. 이때 9대 제쭌 담빠는 유서에서 자신의 환생자를 찾는 것은 전적으로 달라이라마에게 정해져있으며, 몽골에서 다시 환생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2016년 마지막으로 몽골을 방문한 달라이라마는 "10대 제쭌 담빠 후툭투는 이미 몽골에서 환생했으나, 아직 너무 어리기에 공표할 수 없다"고 공언했다. 중국은 다시금 즉각 반발을 표한 바 있다.

지난 3월 8일, 달라이라마는 몽골불자들의 요청으로 봉행된 법회에서 약 6천 명의 대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상의 상석에 앉은 몽골인 소년을 소개하며 "오늘 우리는 기쁘게도 몽골의 제쭌 담빠 린뽀체의 환생자와 함께 한다"고 조용히 공개했다. 소년은 법회 중에 몽골불자들을 대표하여 달라이라마에게 공양물을 전달하는 의례 등을 봉행했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달라이라마께서 10대 제쭌 담빠를 대중 앞에 소개하시고, 법회 후 몽골불교계의 주요한 대표단들과 잠시 만남을 가지셨다"고 밝혔다. 현재 몽골불교계와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그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내지 않고 있다.

달라이라마의 발표에 몽골은 물론 세계 티베트 불교계의 반응은 뜨겁다. 특히 3대부터 9대까지의 제쭌 담빠가 티베트 출신이었던 것에 비해 350년 만에 몽골 출신의 제쭌 담빠가 탄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신원에 대해서는 이름을 비롯해 많은 부분이 안전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알라딘'된 태국 스님…하늘서 현금 뿌려

46번째 생일·출가 24년
현금 15만 바트 신도들에

태국의 한 스님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 하늘에서 현금 약 15만 바트(한화 약 576만원)를 뿌려 화제다.

지난 3월 31일 더 타이거(The Thaiger)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북동부 수린 주(州)에 위치한 사찰에서 프라 크루 폿 수완나랏(Phra Khru Phot Suwannarat) 스님이 자신의 46번째 생일과 출가 2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하늘에서 현금 약 15만 바트를 뿌렸다.

스님은 이를 위해 직접 크레인 기사를 고용했다. 크레인을 탄 스님은 알라딘처럼 하늘을 날며 땅에서 손을 흔들며 자신을 축하하는 신도들에게 현금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더 타이거

태국 승려들은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부를 축적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남방불교 전통에 따라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일이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방해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려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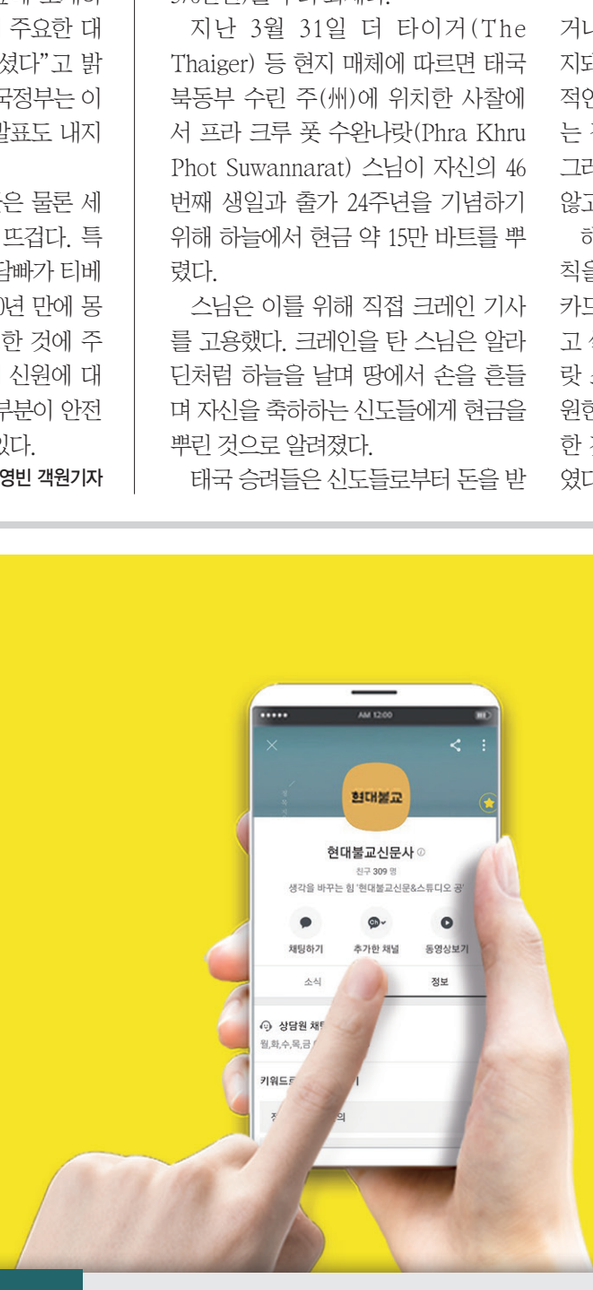
해당 매체는 "승려들의 대부분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며 "일부는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수완나랏 스님은 자신의 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라며 "좋은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디지털 귀향’ 해외 유출 문화재

‘디지털 귀향전, 봄 봄 봄’ 탑골미술관 4월 29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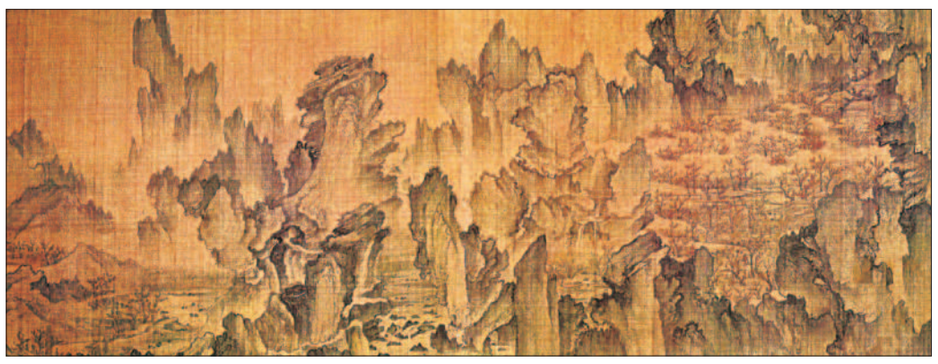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이 3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2023년 첫 번째 기획초대전 ‘디지털 귀향전, 봄 봄 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예술의 쓰임과 향유방식의 다양성을 찾기 위해 (사)한국문화재디지털보존협회와 협력하여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디지털 환수’의 의미를 담은 디지털 귀향 전시다.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원작을 미디어 아트로 생생하게 전하는 이번 전시는 해외로 유출된 22만 9655점(출처-국외소재문화재단)의 문화재 중 (사)한국문화재디지털보존협회가 미디어아트로 제작한 ‘디지털 몽유도원도(Ultra HD, 7분 15초, 일본 텐리대학 소장)’를 비롯하여 크라우드펀딩으로 새롭게 ‘디지털 귀향’을 진행한 ‘디지털 수월관음도’(미국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소장)를 영인본과 함께 선보이며 국보급 문화재 8점을 선보인다.

더불어 전시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나라 밖 문화재에 대한 향유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15명의 어르신 전시해설가가 작품의 해설과 작품 유출경로, 디지털 작품의 해설 등 전시의 이해를 돕는 도슨트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안견_몽유도원도

수월관음도 등 해외 우리문화재 디지털미디어로 재현
해외유출 문화재 만나는 새로운 방법론, ‘디지털 귀향’

‘디지털 귀향’ 캠페인은 해외 유출 · 소장되어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문화재 원본을 미디어 아트로 선보이는 ‘디지털 환수’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를 사는 대중과 미래 세대에게 ‘디지털 향유’로 국외 소재 문화재의 가치를 전하고, 더불어 해외 문화재 환수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디지털 귀향’을 염원하는 민간 차원의 대국민 캠페인이다.

탑골미술관 관장 희유 스님은 “이번 해외 문화재 ‘디지털 귀향’을 통해 어르신들과 지역사회가 ‘디지털 향유’로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아울러 해외에 유출된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디지털 귀향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사)한국문화재디지털보존협회의 남상민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해외유출 문화재의 ‘디지털 환수’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기를 바라며 향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소장 중인 수많은 문화유산도 디지털작품으로 제작하여 보다 다양한 매체로 국민들과 향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소장 수월관음도(세로 113.7㎝, 가로 55.3㎝, 비단에 천연안료와 금)는 관세음보살이 바위 위에 책상다리 자세로 앉아 있고, 그 앞에 버드나무 가지가 꽂힌 정병, 아래 오른쪽에 선재동자가 그려져 있고 배경으로 대나무가 그려져 있다. 화면의 기본 구도는 일반적인 고려 수월관음도와 큰 차이가 없으나, 아래 왼쪽 부분에 공양자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양자를 그린 고려 수월관음도는 희귀본으로 일본 교토 다이토쿠지(大德寺)에 한 점 더 있는 정도다. 이 그림의 제작 시기는 다이토쿠지 수월관음도보다 늦은 14세기 중반쯤으로 추정한다. 공양자들을 맞이하는 관음보살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부드러운 표정, 그리고 양자의 극적인 만남에서 느껴지는 화면의 긴장감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 수월관음도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 가장 많이 그려진 불화 중 하나로 〈화엄경〉 입법계품에 묘사된 내용을 그린 불화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서쪽 골짜기에 시냇물이 굽이져 흐르고 수목은 우거져 있으며 부드러운 향풀이 오른쪽으로 쓸려서 땅에 깔렸는데, 관자재보살이 금강석 위에서 가부하고 앉았고 한량없는 보살들도 보석 위에 앉아서 공경하여 둘러 모셨으며 관자재보살이 대자대비한 법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게 하고 계시었다. 이때 선재동자는 관자재보살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여쭈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는 과정 중 보타락가산에 머물고 있는 관음보살을 찾아가 법을 구하는 장면이다. 관음보살은 선재동자가 28번째로 찾아간 선지식이다. 고려 불화 중 백미로 꼽히는 수월관음도는 제목 그대로 달이 비친 바다 가운데 금강보석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을 그린 그림이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불화는 160여 점으로, 그 중 130여 점이 일본에, 20여 점이 미국과 유럽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10여 점이 있다.

큐레이터 설명과 함께 보는 불교미술

국립중앙박물관 4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4월 19일 개막 18번째 괘불전
‘부처의 뜰-청양 장곡사 괘불’
사유의 방 ‘반가사유상’ 등 다채

국립중앙박물관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오후 6시~9시)에 큐레이터의 상세한 해설을 들으며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하고 있다. ‘4월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상설전시실 곳곳에서 문화유산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된다.

선사고대관에서는 신라실의 ‘함안성산산성 목간-출토, 제작, 보존처리’, 백제실의 ‘고대 구슬의 제작 기법’ 등 문화재의 제작기법에 대한 보존과학 분야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 청동기실의 ‘농경문 청동기’, 가야실의 ‘갑옷으로 보는 고대사’, 신라실의 ‘황남대총, 마립간의 왕권과 무덤’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선사고대의 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유의 방

중근세관 고려실의 ‘고려 왕실 이야기’에서는 고려시대 왕실과 관련한 문화재, 정치사적 의미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다. 조선실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의 양상을 나눈 두 전쟁에 대한 전시 설명이 이어진다.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는 4월 19일에 처음 선보이는 18번째 괘불전 ‘부처의 뜰-청양 장곡사 괘불’의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국보로 지정된 청양 장곡사의 장엄한 괘불을 직접 관람하고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세계문화관에서는 ‘쐐기문자 점토판 속 이야기’, ‘베제클리크 석굴사원의 불교미술’, ‘중국 고대 와당의 특징’ 등이 진행된다. 사유의 방의 ‘반가사유상’, 기증관의 ‘디지털로 만나는 평생도 8폭 병풍’ 등 다채로운 주제의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20명 이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관련 리플릿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관람정보-전시해설-큐레이터와의 대화’ 자료실에서 e-book, PDF 형태로 제공한다.

박재완 기자

대원사 티벳박물관 인도세밀화 특별전

기획전시실 9월 30일까지

대원사 티벳박물관은 4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인도세밀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원사 티벳박물관 관장인 현장 스님이 그동안 인도여행을 통해 수집한 인도세밀화를 선보인다.

‘인도세밀화’는 인도 대륙이나 페르시아에서 발생한 독특한 회화양식으로 세밀한 그림이라고 하여 영어로는 ‘Indian Miniature Painting’이라고 한다. 인도세밀화는 예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 왕조의 비호 아래 대량으로 조직된 화가들에 의해서 인도의 신화와 역사, 설화, 영웅담, 궁전의 다양한 볼거리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생동감 넘치는 표현과 함께 당시의 풍속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종교의 특색 있는 존재에 대한 통찰과 그들이 형상화하고 싶은 신들의 모습, 우주의 모습, 신화적 장면들이 정교한 배치를 이루며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어 동양화나 서양화에서 느낄 수 없는 세밀화의 기법과 독특한 미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인간의 문명은 기후와 풍토, 주변의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발전해 왔다. 세계 곳곳의 인종의 성향과 문화배경이 다르듯이 예술의 한 장르인 회화양식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특히 독특하고 화려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인도의 문화양식은 인류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인도세밀화 역시 세계회화의 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인도세밀화

박재완 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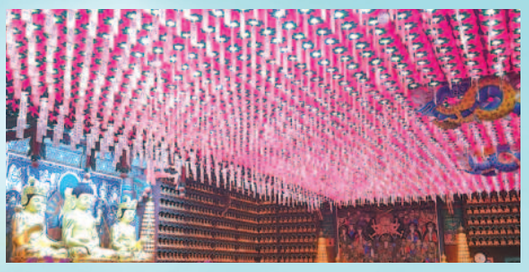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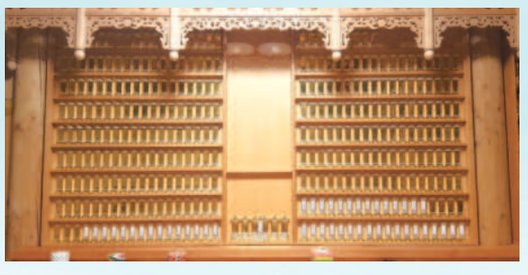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모두 보살되는 수행법…티베트 불교 수행 토대



보리도등론 난처석
아띠샤 지음/중암 선혜 역주
불광 펴냄/4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 의미
티베트불교서 중요 위치 차지하는 논서
티베트불교 보리도차제의 사상적 뿌리
아띠샤의 상세한 주석서 국내 초역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 이라는 의미의 〈보리도등론〉은 티베트불교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논서이다. 수행자의 근기를 작은 사람(下士), 중간 사람(中士), 큰 사람(上士)으로 나눠 궁극에는 모두가 보살에 이르는 수행법을 담은 이 책은 훗날 티베트불교의 수행체계인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의 토대가 되었으며, 현재 티베트불교의 교리적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68구의 게송이라는 짧은 분량 탓에 그 속에 담긴 심오한 이치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보리도등론〉에 대한 다양한 주석서이다. 대표적인 것만 뽑아도 총 15종에 달하는 주석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아띠샤 본인이 남긴 주석서, 〈보리도등론난처석(菩提道燈論難處釋)〉이다. 〈보리도등론〉의 난해한 곳과 근저에 깔린 심오한 의미를 아띠샤 자신이 직접 바르게 드러내고 해설해 보인 이 책을 처음 소개한다.

티베트불교 원전을 번역,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데 매진하는 중암 스님이 〈보리도등론〉과 다양한 주석서를 바탕으로 비교대조해 오류를 바로잡고, 원전의 내용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어와 용어에 대해 상세하게 주석을 달았다. 또한 부록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티베트불교의 용어와 인물에 대해 풍부하게 설명했다. 30여 년간 인도와 네팔에 머물며 수행과 경론 번역에 매진하고 있는 역자의 공부와 수행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이 책은 티베트불교 수행법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국내 최초 유일 완역본 〈보리도등론난처석〉

티베트불교만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수행법인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 람림)를 꼽을 수 있다. 수행자의 최종 목표인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수행을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맞는 수행을 통해 점차 높은 단계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티베트불교에서는 보리도차제를 최고의 가르침으로 꼽는다.

현재 보리도차제 체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쫑카빠를 꼽지만 쫑카빠 이전에 아띠샤(982~1054)가 있었다. 인도에서 초청된 승려 아띠샤는 후기 티베트불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티베트에서는 '대은인(大恩人)' 이라는 뜻을 가진 존칭, '조오제(Jo bo rje)' 로 불린다. 티베트 랑다르마(799~842) 왕의 불교 탄압 이후 쇠퇴한 티베트불교 부흥을 위해 티베트로 온 아띠샤는 13년간 티베트에 머물면서 후기 인도불교의 사상은 물론이고, 올바른 수행의 길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68구의 게송으로 된 〈보리도등론〉이었다. 후기 인도불교의 사상은 물론이고, 현교와 밀교 양측의 견해와 가르침을 모두 녹여내어 서로를 무시하거나 배격함 없이, 그 둘을 함께 닦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티베트불교는 '현밀쌍수' 의 불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리도등론〉에 담긴 심오함에 비해 글이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그 뜻을 충분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보리도등론〉에 대한 대표적인 주석서만 꼽아보아도 15종에 이르는 까닭이다. 하지만 수많은 주석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주석서이자 최고의 주석서는 바로 아띠샤 본인이 남긴 주석서 〈보리도등론난처석〉이다.

〈티베트어 원전 완역 보리도등론난처석〉은 티베트불교 최고 수행서인 〈보리도등론〉에 대한 주석서 〈보리도등론난처석〉을 완역해 소개한 최초의 책이자 유일한 책이다.

〈보리도등론〉을 처음으로 완역하고, 상세한 해설을 달아 소개한 중암 스님의 번역으로 처음 선보이는 이 책은, 〈보리도등론〉과 여러 주석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판본을 비교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원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어와 용어에 대해 상세한 각주를 달았다. 뿐만 아니라 책의 절반가량을 할애한 부록을 통해 티베트불교의 용어와 인물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달아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풍부하게 설명했다.

이를 통해 〈보리도등론〉에 숨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낯설 수도 있는 티베트불교의 수행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번역…깨달음 밝히는 주석서

〈보리도등론〉과 〈보리도등론난처석〉의 저자 아띠샤는 인도 비끄라마실라 사원의 장로로 있던 고승으로 후기 인도불교의 사상에 정통했으며, 현교와 밀교 양측의 가르침을 모두 깊이 알고 있는 뛰어난 스님이었다.

티베트의 법왕 장춥외는 온갖 사견(邪見)과 비행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쇠퇴의 길에 들어서 있던 티베트불교를 정화하기 위해 아띠샤를 초청하여 바른 법의 등불을 밝혀 달라고 청하였다. 그 간청에 대한 답이 바로 〈보리도등론〉이었다. 아띠샤는 이 논서에 후기 인도불교의 사상은 물론이고, 현교와 밀교 양측의 견해와 가르침을 모두 녹여내어 서로를 무시하거나 배격함 없이, 그 둘을 함께 닦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68구의 게송이라는 짧은 분량 때문에 그 심오한 의미를 모두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고,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여 오해와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법왕 장춥외는 아띠샤에게 〈보리도등론〉 내용 중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질문하였고, 그에 대해 아띠샤가 내놓은 것이 다양한 경전과 논서를 바탕으로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밝혀 바로 〈보리도등론난처석〉이었다. 물론 〈보리도등론〉에 대한 주석서가 〈보리도등론난처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티베트불교 수행과 교리 양쪽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논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꼽아보아도 15종에 다다른다.

하지만 저자 자신이 남긴 주석서라는 점에서 〈보리도등론〉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지, 본래의 의도를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주석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티베트에서 저술된 다른 주석서들과는 달리, 인도 출신인 아띠샤의 주석서에는 인도 정통불교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주석서이기도 하다. 〈보리도등론〉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리도등론난처석〉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끊임없는 수행으로 빚어낸 완벽한 번역서

티베트어로 된 〈보리도등론난처석〉의 정확한 번역과 오탈자 대조, 거기에 상세한 각주를 달기 위해서는 평범한 수준 이상의 자료와 어학 실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문, 산스크리트어, 빠알리어 등 다른 불전 언어와 달리 티베트어에 능통한 이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의 역자 중암 스님은 티베트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30여 년간 인도와 네팔에 머물며 수행에 매진한 분으로, 현재도 네팔의 양라쉬에서 티베트불교 수행과 티베트어 경론 번역에 매진한다. 특히 티베트불교 수행법에도 조예가 깊어 이미 〈보리도등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역해서를 출간한 바 있다. 이런 이력에 비추어볼 때 〈보리도등론난처석〉을 번역할 인물은 중암 스님 외에 없었을 것이다. 역자의 수행에서 비롯된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 그리고 성인에 대한 존경심이 녹아 있는 이 책은 〈보리도등론난처석〉에 관한 '가장 충실한 번역서' 라고 손꼽을 수 있다.

▲저자 아띠샤는?

동인도 방갈라 지방에서 법왕 게왜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법명은 '디빰까라쓰리즈냐나'로, '아띠샤'라는 존명은 티베트 구게 왕국의 법왕 장춥외가 존경의 뜻을 담아 올린 이름이다. 비끄라마실라 사원 장로로 있던 당시, 티베트의 법왕 예시외와 장춥외의 간곡한 초청을 받아 1042년 티베트로 건너갔다. 그리고 13년 동안 티베트에 머물면서 가르침을 펼치고 경전을 번역하는 등 갖가지 교화 사업을 통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던 티베트불교를 다시 세웠으며, 1054년 중앙 티베트 지역에 있는 녜탕 사원에서 입적하였다. 티베트에 불교와 학문을 중흥시킨 은혜가 막대하다고 여긴 티베트인들은 그를 '큰 은인'이라는 의미의 티베트어 '조오제(Jo bo rje)'라는 존칭으로 부른다. 〈보리도등론〉과 그 주석서인 〈보리도등론난처석〉을 비롯한 여러 저서와 경전 번역서를 남겼으며, 제자로는 까담빠의 창시자인 돔뙨빠, 대역경사 린첸쌍뽀와 낙초 · 로짜와 출팀 걜와 등 무수하게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보리심의 나무가 발아하는 데는 물의 촉촉함과 같은 두 가지의 법이 선행(先行)하니, 이같이 마음을 닦는 수심(修心)과 스승님께 예물을 올리는 헌공(獻供)이다.

첫째, 스승님께 예물을 올리는 헌공은 또한 〈현겁경(賢劫經)〉과 〈비화경(悲華經)〉에서 그와 같이 설함과 같다.

둘째, 마음을 닦는 수심은 「보현행원」에서 앞서 설함과 또한 보리행(菩提行)에 들어가는 도리로 행하는 것이다. 그 뒤 상사(上士)의 법의 궤도인 대승도(大乘道)를 한 스승으로부터 일맥(一脈)으로 전승하는 아사리 적천 보살의 의궤 또는 아사리 무착 보살의 의궤에 의해서 사무량(四無量)을 미리 닦는 것으로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한다." 〈p.139〉

"원심을 일으키고 그것의 공덕을 아는 그것으로 그것을 증장하기 위해서, "허다한 노력으로 두루 자라나게 하고"라고 말했다. 이것의 뜻을 내가 지은 〈발심의궤(發心儀軌)〉에서 자세하게 설하였으니, "그와 같이 보리심을 발한 보특가라는 보리심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낮에 세 번 밤에 세 번씩, '거룩한 부처님과 달마와 중중존(衆中尊)께, 대보리를 이룰 때까지 저는 귀의하나이다. 제가 보시 등을 행한바 이것들에 의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붓다가 되게 하소서!' 라고, 보리심을 발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p.167〉

"양성(兩性)이 바뀜은 과거에 없던 계율을 또한 버리지 않고, 이미 받은 것을 또한 버리지 않는다. 정법이 소멸함도 또한 그와 같다. 사망함으로써 버리는 것 또한 이같이 몸이 같지 않음과 그 몸에 '율의의' 닦음을 행하지 못함과 계율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사리 세친(世親) 보살을 추종하여 설하였다. 그 비나야(毗奈耶)의 전적이 아닌 다른 종론도 많이 있으나 여기서는 적지 않는다." 〈p.202~203〉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5~4/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6	불교적심신의학과생명윤리	김성철	오타쿠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3	예수재의범	해사 편찬	운주사	8	원측의소에의한해심밀경	김윤수 역주	한산암
4	인생수업(잘물든단풍은봄꽃보다아름답다)	법륜/유근택 그림	휴	9	수심결과마음공부	법상	불광출판사
5	입중론강해	월칭 조송,법존 역강	운주사	10	티벳스승들에게깨달음의길을묻는다면/증보판*양장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책세상

중국불교철학 신호탄…〈조론〉 주석 최초 완역



조론오가해 전 6권
장경각 펴냄
조병활 역/총 30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 학술 사업 일환 출간
다수 주석중 각 시대 대표한 5종 주석서에 대한 역주
교감 표점 등 작업 거쳐 풍부하고 상세한 각주 주목
각 책 〈해제〉 함께 읽으면 중국불교 흐름 파악 가능

반야 중관사상 요체 담은 승조 스님 논서

후진시대(384-417)를 살았던 승조(僧肇, 384~414) 스님이 반야 · 중관사상의 요체를 설명 하고자 〈반야무지론〉 〈부진공론〉 〈물불천론〉 〈열반무명론〉 등을 지었고, 그 이후의 어느 때 사람들이 이 글들과 동진(東晉, 317~420)의 유유민(劉遺民, ?~410) 거사가 쓴 〈유유민 거사의 질문편지〉와 이에 대해 승조 스님이 답한 〈승조 스님의 답변편지〉 등을 묶어 편찬한 책이 바로 〈조론〉이다. 승조 스님의 이름인 '조(肇)' 자와 이치를 논의한 글이라는 의미의 '논(論)' 자를 결합해 〈조론〉이라 불렀다. 승조 스님이 지은 논문의 묶음이라는 뜻이다. 1061년 찬술된 〈조론집해령모초〉에 "당나라(618~907)부터 북송 때까지 출간된 〈조론〉 주석서는 20여 종이나 됐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조론〉은 주목받는 중요한 저서였다. 현존하는 〈조론〉 주석서들 가운데 남조 진나라(557~589)의 혜달 스님이 지은 〈조론소〉 3권(하권 결락), 당나라(618~907)의 원강 스님이 627~649년 찬술한 〈조론소〉 3권, 북송(960~1127)의 비사(994~1056) 스님이 1053년 강술한 내용을 토대로 북송의 정원(1011~1088) 스님이 1058년 집해한 〈조론중오집해〉 3권, 원나라(1271~1368)의 문재(1241~1302) 스님이 저술한 〈조론신소〉 3권, 명나라(1368~1644)의 감산 덕청(1546~1623) 스님이 1616년 짓고 1617년 출간한 〈조론략주〉 6권 등 각 시대를 대표한 다섯 부의 책을 선택해 역주한 것이 바로 〈조론오가해〉이다. 책 이름도 각 시대를 대표한 다섯 스님이 주석한 책들을 모았다는 의미에서 〈오가해〉라는 이름을 붙였다. 〈조론오가해〉 가운데 〈조론략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번역됐다. 일본어나 영어 그리고 현대 중국어로도 옮겨진 적이 없다. 여기에 〈조론〉을 연구 분석하고 〈조론〉 본문을 주해한 내용을 담은 〈조론연구〉를 보탠 것이 전 6권 1질의 〈조론선집〉이다.

인도불교 중관파의 개조 용수(대략 150~250) 논사와 서역 구자국 출신의 명승 구마라집(鳩摩羅什, 343~413) 스님의 반야 · 중관사상을 계승한 승조 스님은 이 〈조론〉으로 삼론종 개창에 사상적인 길을 제공했고, 인도와 중국사상의 교류 및 범어와 중국어 회통에 새로운 모범을 보였다. 그래서 〈조론〉은 중국 사상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위치를 차지한다. 실재론적인 노장 철학의 무유개념으로 유학을 새롭게 해석하며 형이상학적인 논의를 진행한 위진현학의 물줄기를 성공을 통해 공 · 유를 탐구하는 수당불학으로 돌리는 인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명나라 말기부터 청나라 초기까지 활동한 운서주굉(1535~1615), 자백진가(1543~1603), 감산덕청(1546~1623), 우익지욱(1599~1655) 등 4대 고승 가운데 한 명인 우익지욱 스님은 각종 경전과 논서들을 열람하고 지은 〈열장지진〉에서 "중국서 찬술된 저서 가운데 승조 스님, 남악혜사 스님, 천태지의 스님 등의 것이 유일하게 순일하고 순일하다. 진실로 인도의 마명 논사, 용수 논사, 무착 논사, 세친 논사 등의 저술에 비해도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특별히 대승종론에 포함시켰다. 나머지 여러 스님들의 저작들은 순일한 맛은 있으나 흠이 있기에 다만 잡장에 넣었다."며 승조 스님을 인도의 마명 · 용수 논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로 기록했다. 중국의 정사와 이십사사 가운데 종교 관련 기록이 있는 〈위서〉 권114 〈지제 20 · 석노지〉에도 구마라집 스님과 승조 스님을 높이 평가한 기록이 있다.

역사서가 출가자에게 이처럼 높은 평가를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중국불교사에서 승조 스님이 차지하는 위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조론선집〉의 주요 특징은?

이 번에 출간된 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현존하는 각 권들의 여러 판본들을 비교 · 교감했고, 표점을 모두 찍었으며, 이를 토대로 역주했다. 주석서들이 탄생된 그 시대의 불교적 · 정치적 ·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 〈해제〉를 각 권 앞부분에 붙여 놓은 것도 특징이다. 이외에도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각주를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저자는 〈조론〉 본문과 주석서에 있는 내외전 인용문들의 출처와 근거를 확인했으며, 제 1권 〈조론연구〉에 수록된 〈공사상, 현학 그리고 조론〉이라는 글과 〈조론오가해〉 각 책 앞부분에 있는 해제를 함께 읽으면 중국 불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은…

우리나라 불교계도 〈조론〉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삼국유사〉 권제4 〈의해 편 '이혜동진' 조에 〈조론〉이 등장한다. "혜공 스님이 일찍이 〈조론〉을 보고 '이것은 내가 옛날에 지은 것이다' 고 말했다. 혜공 스님이 승조 스님의 후신임을 이로써 알 수 있다."는 문장이 그것이다. 원효(元曉, 617~686) 스님이 찬술한 〈금강삼매경론〉 권하 〈총지품 제8〉에는 〈부진공론〉의 마지막 구절, 즉 "승조 스님이 말한 것과 같다. '그러면 깨달음은 멀리 있는가? 사물의 본성을 체득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성스러움은 멀리 있는가? 중도를 체험하는 그것이 곧 신령스러움이다.' "는 구절이 인용돼 있다. 〈조론〉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 또 다른 문헌은 고려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스님의 문집이다. 의천 스님은 1085년 5월 각종 불교서적을 구하고 화엄종 · 천태종 교학연찬을 위해 송나라에 들어갔다가 1086년 6월 귀국한 적이 있다. 당시 의천 스님은 송나라 화엄학의 중흥조로 평가받는 항주의 진수정원(晉水淨源. 1011~1088) 스님에게 화엄교학에 관해 물었다. 귀국한 의천 스님은 정원 스님과 여러 번 편지를 교환했다. 이 글들이 〈대각국사문집〉과 〈대각국사외집〉에 남아 전한다. 그래서인지 의천 스님이 1090년 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전3권. 1,010부 4,857권 수록) 권 제3에 정원 스님이 펴낸 세 권의 〈조론〉 주석서를 포함해 적지 않은 〈조론〉 주석서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 현존하지 않는 주석서들이다. 이처럼 〈금강삼매경론〉 〈대각국사문집〉 〈신편제종교장총록〉 〈삼국유사〉 등에 〈조론〉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신라시대 이래 해동의 불교인들도 이 책을 적지 않게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조론〉 읽기 연구의 부수적 효과

〈조론〉 읽기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조론〉은 중국의 자생적인 사유체계인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았을까' 가 하나이다. 한국 · 중국 · 일본의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여기에 동의한다. '〈조론〉이 불교중국화의 출발점이 되는 저작인지' 가 다른 하나이다. 중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주장을 편다. 그들의 주장은 정확한 분석에 기반을 둔 것인가? 〈조론〉을 읽어가며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삼국시대부터 십육국시대까지의 정치적인 상황, 사상적인 변천, 불교사적인 변화 등을 차례로 천착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사상도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 시대와 동시대의 정치적 · 사상적 · 문화적 함의 속에서 탄생 · 성장 ·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론〉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초기 중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당시의 중국사상을 역동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 초기 중국불교도들이 인도불교사상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여 중국인 자신들의 사상으로 변화시켜 나갔는지를 입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 세 번째는 초기 중국불교의 변천과 그 궤적에 대한 연구는 중국사상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불교와 유교 · 도교가 서로 습합되는 과정, 명대 이후 중국불교의 변용 등을 천착할 때 초기 중국불교, 특히 〈조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네 번째, 각 시대별로 나타난 〈조론〉 주석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매 시기의 중국인들은 불교를 어떻게 이해했고, 중국사상사에서 불교의 위치를 어디쯤 설정했는지를 문헌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조론〉과 주석서 및 이와 관련된 사상의 흐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중국불교사상의 역동적인 변화는 물론 20세기 이후 중국사상의 변동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모델 ·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

〈조론선집〉의 각권 내용 소개

마지막으로 각 권의 내용을 소개한다. △**제1권 〈조론연구〉**=중국불교 토대를 다진 〈조론〉의 내용을 분석하고 역주한 책이다. '연구 편' 과 '역주 편' 으로 구성됐으며, '연구 편' 에는 〈조론〉을 연구한 논문들이, '역주 편' 에는 〈조론〉 본문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 각각 들어있다.

△**제2권 〈조론소〉**=〈조론오가해 1〉 진나라 혜달 스님이 찬술한 현존 최고의 조론 주석서이다 오래된 책이라 문장도 어렵고 필사과정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뒤섞인 단락' 도 있다. 위진남북조시대(220~589)의 중국불교에 나타난 열반학파 성실학파 섭론학파 지론학파 등과 관련된 내용이 곳곳에 기록돼 있다. 위진남북조시대 불교를 연구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평가된다. △**제3권 〈조론소〉**=〈조론오가해 2〉 당나라 원강 스님이 삼론학 입장에서 저술한 책으로 〈조론〉에 대한 현존 최고의 주석서로 평가된다. 중국 고전과 훈고학 서적 등에서 인용한 내용과 불교의 경전과 논서의 내용을 인용해 설명한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 책에 인용된 문헌 가운데에는 현존하지 않는 책들도 있다. △**제4권 〈조론중오집해〉**=〈조론오가해 3〉 북송의 비사 스님이 강설하고 정원 스님이 집해한 송대를 대표한 조론 주석서이다. 분량은 혜달 스님의 〈조론소〉나 원강 스님의 〈조론소〉에 비해 적은 편이나 압축된 설명이 특히 돋보이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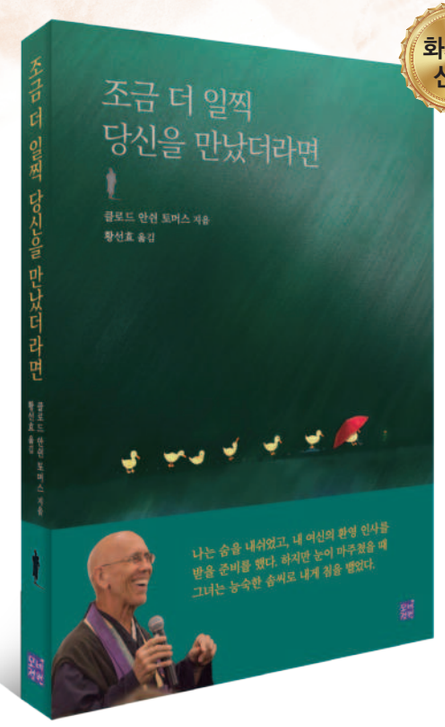
△**제5권 〈조론신소〉**=〈조론오가해 4〉 원나라 문재 스님이 기술한 원대를 대표하는 〈조론〉 주석서이다. 방대한 내전과 교리에 근거해 〈조론〉을 풀어낸 솜씨가 탁월하다. 훌륭한 책이기에 '상당한 인내심' 과 '정교한 사고력' 을 갖고 도전해야 된다. 역주자는 다섯 권의 주석서 가운데 굳이 한 권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제6권 〈조론략주〉**=〈조론오가해 5〉 감산 스님이 본인의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찬술한 책으로 명대를 대표하는 조론 주석서이다. 간략한 말 속에 풍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조론〉을 보다 쉽게 설명한 점도 돋보인다.

▲역자 **조병활**은?



불교학자. 중국 북경대 철학과 졸업. 북송 선학사상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 취득. 중국 중앙민족대 티벳학연구원에서 티베트불교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 성철사상연구원장 등 역임. 주요 논문으로 〈혜홍의 문자선 사상 연구〉(중국어, 북경대 박사학위논문) 등이 있고, 저서로 〈불교미술 기행〉 〈다르마로드〉(상, 하) 등이 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13



▶한줄요약
깨달음을 얻은 싯달타 왕자가 붓다가 되어 궁으로 돌아오고, 붓다의 설법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출가의 뜻을 밝혔다.

붓다가 되어 궁으로 돌아온 싯달타

뉴델리에서 며칠 ②

아디카야의 검을 찾아서

1 갈림길

그가 돌아온다는 소문이 성안에 퍼지기 시작하자 온통 나라는 축제 분위기였다. 그는 본시 이 나라의 왕자였고 왕자가 성인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는 전륜성왕이 될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출가하여 이제 세상을 구할 등불을 들고 돌아온다고 했으니 들뜨지 않는 이가 없었다.

물론 그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왕위를 넘보며 언제나 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촌 수라다나 그의 이복동생인 난타 등이 그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소문을 듣고 은근히 그를 시기하고 있던 학파들도 있었다.

성자는 제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운 법이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코 흘리는 모습도 보였을 것이고 어리석은 짓도 보였을 것이고 못 볼 짓도 많이 보였을 것이다. 더욱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곧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스스로 가진 불성(佛性)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 누구에게나 붓다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이다. 그런 이들은 언제나 편협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항상 소중한 것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나중에야 "어 맞네!"라며 무릎을 치는가 하면 "그런가!" 하고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렇게 유명하고 이름난 이라면 뿔이라도 나거나 자신과는 달라야 할 터인데 만나 보니 그도 똥 싸는 인간이요. 자신과 똑같았으니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렇기에 입을 비쭉이길 좋아하는 것이다. 그따위 녀석이 무슨….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었겠느냐는 것이다.

인간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수성인간(獸性人間)-성정(性情)이 개발되기 전의 인간. 용성인간(勇性人間)-성정이 짐승의 상태에서 벗어난 인간. 신성인간(神性人間)-성정이 신적인 단계에 이른 인간. 문제는 수양이 좀 된 사람의 행동거지다. 수양은 농익어야 한다. 익다가 말면 성정은 더욱 사납다. 입을 비쭉일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막연한 환상을 깨고 싶어 한다. 바로 용성인간이 그들이다. 좀 배웠다는 인격의 속성은 짐승의 성정보다 더욱 악랄하다. 환상이 깨어지면 상대의 실망은 더 커진다는 것을 영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성의 경지에 이르면 그 환상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 거기에 현자의 위대성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있어 환상은 깨어지기 마련이지만 현자는 그 환상을 통해 그를 제도한다. 그렇다고 현자가 금계(禁戒)를 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현자도 화가 나면 화를 내어 제자를 나무란다. 현자도 인간이다. 최고의 깨달음(無生法忍)을 얻었다 해도 삼계(三戒) 밖에서는 금계를 헌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내거나 꾸짖거나 칭찬하기도 한다. 하지만 삼계 안에서는 탐욕과 성냄과 금계를 허는 일이 없다. 이것은 중생의 측면에서 보면 금계를 허는 것 같지만 붓다는 삼계 안에 있으므로 금계를 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석가모니 붓다의 친족 중에서도 그를 업신여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에는 난타(難陀)라는 사람도 있었다. 난타는 붓다의 이복동생 되는 사람이다. 참으로 잘생긴 사내였는데 그의 아내 손타라(孫陀羅) 역시 용모가 뛰어난 미인이었다. 난타의 몸은 금비와 같았으며 서른 가지 몸매(三十相)를 갖추었는데 석가모니 붓다보다 네 손마디만큼 키가 작았다.

난타는 아내 손타라(孫陀羅)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다. 틈만 나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 했고 죽을 때도 함께 죽자며 그녀의 곁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석가모니 붓다가 고국을 찾았을 때 난타는 왕자로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다. 가시(迦尸)에서 나오는 최상의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손타라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는 세 개나 되는 궁전에서 살았다. 봄에는 봄 궁전, 여름에는 여름 궁전, 가을 겨울에는 가을 겨울 궁전에서 살았다. 비가 오는 여름철에는 노래와 춤을 즐기고, 꽃이 피는 봄에는 꽃동산에서 잠을 자고, 낙엽 지는 가을과 눈이 오는 겨울에는 따뜻한 온천물에서 물고기처럼 헤엄쳤다.

그렇기에 옛날의 왕자가 붓다가 되어 돌아온다는 소문이 온 나라 안을 술렁이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개의하지 않았다. 아내 손타라와 이제 막 낳은 아들과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온 나라가 붓다께서 오신다고 야단인데 정말 괜찮으세요? 마중이라도 나가 봐야 하는 도리이지 않을까요?

손타라 역시 남편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주위의 눈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말했다.



-알 수가 없어. 왜 그분이 궁을 떠나 구걸하는 수행승이 되었다가 이제 돌아오는지…?

-구걸승이 아니라 붓다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유의 신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붓다가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을 깨달아? 삶의 이치를 깨달아? 생사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생사의 그늘을 뛰어넘을 수 있지? 형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이야. 중생을 현혹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붓다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로서는 당연한 회의였다. 손타라는 주위의 눈도 있고 해서 계속 난타의 등을 떠밀었다.

-아무튼 가 보세요. 주위의 눈도 있고 하니.

난타는 손타라와 있고 싶었으나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부왕이나 모후나 대신들이나 하인들이나 하나같이 들떠 웅성거리고 있었다.

-어리석은 사람들.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사람을 금의환향이라도 하는 양 저렇게 맞을 준비 하고 있다니….

그는 후원을 향해 걸었다. 후원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서기가 그를 사로잡았다. 무성한 전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다. 그 옛날 싯달타 형님과 함께 이곳을 거닐던 때가 떠올랐다. 싯달타 형님과 모여 앉아 코코넛 과자를 즐겨 먹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 그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짓눌렀다. 후원을 돌아 잔디가 편편하게 깔린 동산으로 나가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그들도 싯달다 형님을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잠시 후 석가모니 붓다가 도착했다는 전갈이 왔다. 난타는 내키지 않았지만, 터덜터덜 내궁을 향해 걸었다. 이미 궁 안은 붓다가 되어 온 싯달타를 만나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난타는 멀리서 그 옛날의 싯달타 형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머리를 자르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 분명 그는 그 옛날의 싯달타 형님이 아니었다. 볼품없이 변해버린 중늙은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이상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라후라를 돌아보는 싯달타 형님의 눈가에 만감이 어리는 것을 난타는 분명히 보았다. 그에 부채질이나 하듯 한 여인의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가물거리며 일어났다. 바로 싯달타 형님이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야쇼다라 비의 모습이었다. 아름다운 자태, 그 자태를 살포시 옷깃 속에 감추고 그녀는 싯달타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를 마주 바라보는 싯달타 형님의 눈가에 따뜻한 웃음이 스쳤다. 출가하기 전만 하더라도 싯달타 형님에게는 야소다라 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손타라를 사랑하듯이 그도 인간인 이상 어찌 저 아름다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으랴. 분명히 세상의 그 무엇도 그녀보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선업도 어떠한 죄업도 지을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 아닌가.

그런데 그는 그것을 버리고 갔다. 오히려 갓 태어난 자신의 핏덩이가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자라 하여 라후라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떠났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것이다.

-보아라, 아들아, 저분이 네 아버지란다. 가서 인사를 드리려무나.

야쇼다라 비가 아들 라후라의 등을 밀며 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난타는 싯달타 형님을 예전에 자주 거닐던 풀밭에서 만났다. 옛날을 생각하듯 풀밭을 한동안 말없이 거닐던 붓다가 그윽한 눈길로 난타와 아나율을 돌아보았다.

-난타 벌써 어른이 되었구나.

-싯달타 형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가 봅니다.

붓다가 빙그레 웃었다.

그때 뒤를 따르던 중늙은이 제자가 나섰다.

-말을 삼가세요. 형님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붓다이십니다.

그는 난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엄숙할 수 없었다.

그때 붓다가 제자를 말렸다.

-사리풋드라야, 그만두어라.

붓다는 그렇게 말하고 난타를 따뜻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난타야, 세상은 변하는 것이 아니더냐.

-기억납니다. 이곳에서 놀던 때가.

붓다라고 불러야 할지 형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그렇게 말했는데 붓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인간인데 어찌 옛날이 그립지 않겠느냐.

붓다가 밤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 바라보던 그 별이 빛을 열고 있었다.

다음 날 난타는 이제 형님이라 부를 수도 없는 붓다의 설법을 들었다. 그가 설법하는 사이 난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빛이 붓다를 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그윽하고 거룩한 어떤 현상이었다. 어떤 현상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었다. 붓다는 예전에 보았던 싯달타 형님이 아니었다.

아아, 황금처럼 빛나는 저 찬란한 자태. 헌 누더기를 입은 보잘것없는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난타는 붓다의 설법을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왜 형님이 혈육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저런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제야 뭔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난타는 손타라 곁으로 돌아왔지만 이상스러운 기운이 좀처럼 잊히지 않았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긍지라는 말이 계속 입가에서 맴돌았다. 비로소 긍지가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았다.

그래서일까?

주위의 사람들이 출가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친인척이 귀의할 뜻을 밝혔다. 난타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싯달타 형님의 양모요 자신의 어머니인 교담비가 귀의할 뜻을 비쳤고 형님의 아내였던 야소다라, 아들 라후라, 밧디야, 아나율 심지어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었던 수라다까지 출가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하나 같이 그렇게 나서고 있었지만, 난타는 도저히 출가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었다. 출가 소리만 들어도 사랑하는 손타라가 눈에 밟혔다. 손타라도 그것을 눈치 챘는지 더욱더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며 애달픈 소리로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계속〉



'아바타 명상' 월호 스님이 찾아낸
간화선 대표 화두 '이 뭐꼬?'의 답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직 '이것뿐'!

고정된 실체로서 '나'는 없다.
걸어갈 때 걸어가고, 머무를 때 머무르며,
앉아 있을 때 앉아 있을 뿐.
이렇게 살면 그대로 '생사해탈',
무한한 가능성의 '나'로 거듭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즉각적인
마음의 평안으로 안내하는
세 가지 명상의 모든 것

온갖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법
아바타 명상

중생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
바라밀 명상

부처님처럼 일생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
행불 명상

월호 스님 수행 법문 결정판!

월호 지음 | 312쪽
18,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❼ 생전예수재 下



▶한줄요약
망자를 대상으로 한 천도재와 비교할 때 예수재의 가장 큰 특징은 '시점'과 '주체'이다. 시점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생전에 미리 치른다는 것이고, 주체는 재자(齋者)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재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주체적 의례라 할 수 있다.

'나의 죽음' 성찰하는 '자행의 의례'

〈自行〉

한국에서만 전승되는 예수재

사후를 위해 미리 복덕을 쌓는 의례라 하여 생전예수재를 '살아있을 때 올리는 천도재'라 보기도 한다. 망자를 대상으로 한 천도재와 비교할 때 예수재의 가장 큰 특징은 '시점'과 '주체'이다. 시점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생전에 미리 치른다는 것이고, 주체는 재자(齋者)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재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주체적 의례라 할 수 있다.

모든 천도재는 주인공이 망자이기에 남은 자들이 치러주는 타행(他行)의 의례이다. 이에 비해 예수재는 스스로를 향한 자행(自行)의 의례, 자행의 천도재에 해당한다. '자행의 천도재'란 합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불가능한 개념이다. 누구든 자신의 죽음의례에서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재는 '삶의 영역인 자행의례'와 '죽음의 영역인 천도재'를 결합함으로써, 본연적으로 '나의 죽음'을 성찰하도록 이끄는 힘을 지녔다.

예수재 소의경전인 〈예수시왕생칠경(預修十王生七經)〉(시왕경)에는, 예수재를 올릴 때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삼보를 공경하고 시왕(十王)에게 기도하며 정성스레 수행할 것을 일렀다. 사후를 내다보며 참회하는 의식이기에 특별한 때를 두지 않고, 오늘날의 초하루 · 보름 법회처럼 일상 속에서 닦아나가게 한 것이다.

오늘날 예수재는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중국 당나라에서 예수재가 처음 성립되었으나 송나라 이후 점차 사라졌고, 일본의 경우 예수재와 관련된 기록조차 찾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시왕경〉 편찬과 함께 시왕사(十王寺) 등을 세우고 생전에 명부(冥府) 시왕을 섬기는 예수재를 행하였다. 그러나 의례와 관련된 기록은 전하지 않다가, 조선 중기에 들어와 의식집의 발간과 함께 예수재 설행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학계에서는 예수재 의식이 수륙재에서 파생된 것이라 보고 있다. 16세기 중반에 대우(大愚) 스님이 편찬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의식절차를 보면 수륙재 의식문과 큰 틀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산 자를 대상으로 한 천도재이기에, 수륙재의 기본구조에 예수재의 특성을 안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초에 왕실에서 불교식 칠칠재 · 기일재를 지내다가, 1420년(세종 2)에 이를 모두 수륙재로 대체하도록 명하게 된다. 당시 수륙재의 규모는 칠칠재 · 기일재보다 간소했기에, 수륙재를 불교식 상제(喪祭)로 통일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수륙재는 불교의례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화되어, 중종 대에 폐지될 때까지 지배층과 서민의 불교 상제로 사후 구원의 문제를 맡아왔다. 이후 제도적인 수륙재는 폐지되었으나, 민간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기에 이른다.

특히 16 · 17세기는 기온이 낮아지는 소빙기(小氷期)에 접어들어 자연재해가 만연하고, 대규모 외침으로 백성의 삶은 극도로 피폐하였다. 이에 종교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교의례가 성행하게 된다. 아울러 생전에 사후를 위한 의식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망자를 위한 수륙재뿐만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예수재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라 하겠다.



구인사 예수재. 한편에서는 경전을 읽고, 한편에서는 지전을 이고 도는 모습.

'예수 9단'의 의미

큰 틀에서 수륙재의 구성을 따르지만 예수재가 지닌 특성은 뚜렷하다. 우선 삼단으로 이루어진 예수재의 신위체계(神位體系)는 '상위 불보살–중위 신중–하위 영가'라는 일반 천도재의 삼단과 구조가 다르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례이기에 하단에 모시는 존재가 영가일 수 없는 것이다.

예수재에서 상단의 불보살은 증명의 역할을 맡고, 중단이 핵심을 차지한다. 중단에 모시는 존재는 시왕을 주축으로 하여 명부(冥府)를 관장하는 여러 성중이다. 예수재를 '예수시왕생칠재'라고도 하듯이, 사후를 다스리는 시왕이 주 의례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명부 성중을 섬기는 중단 의식은 의례목적과 직결된 것으로, 예수재가 사후에 만나게 될 심판자적 존재들에게 미리 기도 올리며 참회하는 성격의 의례임을 말해준다.

하단은 '부속단'이라 하여 여러 가지 궂은일을 처리하는 명부 권속들을 모신다. 명부창고를 지키는 고사(庫司)를 비롯해, 지상과 명부를 오가는 사자(使者), 말과 낙타 등을 위한 단을 각각 마련하고, 빠짐없이 청해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삼단에 모시는 존재를 위상에 따라 다시 상중하로 나누어 9단을 갖추게 되는데, 이를 '예수 9단'이라 부른다. 이를테면 하단의 경우 고사단은 하상단, 사자단은 하중단, 마구단은 하하단이 된다. 부처님에서부터 지천(地天)을 오가는 말에 이르기까지, 천상과 지옥을 다스리는 각 존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계와 존재가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련사 예수재. 시왕 앞에 쌓아놓은 경전과 지전.

생전 미리 치르는 내 천도재인
예수재 특징은 '시점'과 '주체'
살아서 '自力 공덕' 의미 가져

특히 상단의 존재를 제외하면, 중단과 하단의 존재는 모두 명부와 관련된 존재들이다. 의식문에는 이들이 맡은 각각의 직책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부지명위(不知名位)'라 하여 명부에 근무하지만 이름을 모르는 말단 관리까지 빠짐없이 거론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예수재의 유래를 담은 〈예수천왕통의(預修薦王通儀)〉에 잘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북인도 마갈타국의 병사왕(甁沙王)이 25년간 49번에 걸쳐 예수재를 올렸으나, 어느날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잡혀가 명부의 옥에 갇히게 된다. 왕이 그 연유를 물으니, 명부시왕에게 수십 회의 공양을 올린 공덕이 크지만, 종관(從官)과 권속들은 공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에 왕은 종관의 명목을 몰라서 그리된 것이라 사정하여 총 259위의 종관명목을 받고 돌아와, 예수재를 지낼 때마다 한 분 한 분 청하며 법식에 따라 공양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왕뿐만 아니라 하급관리까지 세밀히 챙기도록 한 것은, 명부의 엄중함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크다. 사후에 만날 존재들을 강조할수록 자신의 현세 삶을 돌아보게 마련이다. 언제가 다가올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다.

참회를 이끄는 경전 빛, 금전 빛

예수재를 기복적인 의례로 보는 외부자들도 많다. 그럴수록 의례의 참 의미를 새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수재의 가장 큰 목적은 죽음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공부에는 소홀한 채 복된 내세만 바라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에도, 준엄한 인과응보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생사의 문제에서 "죽어서 타력으로 지어주는 공덕보다, 살아서 자력으로 짓는 공덕이 훨씬 크다"는 불교의 수미일관한 가르침이 예수재에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예수재에서는 독특한 설정을 하고 있다. 누구나 전생의 빚을 안고 태어났으며, 이는 경전을 보지 못한 빚과 금전적인 빚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불자라면 이것이 곧 업(業)을 뜻하는 것임을 알아차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예수재에 동참한 이들은 빚을 갚는 과제를 의례를 통해 수행해나간다.

〈수생경(壽生經)〉에 따르면, 모든 중생은 태어난 해에 따라 육십갑자별로 읽어야 할 경전과 금전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이라 하였다. 이에 동참자들은 각 단에 차례로 경배와 공양 의식을 올릴 뿐 아니라, 경전을 읽고 지전(紙錢)을 헌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빚을 갚고 나면 '함합소(緘合疏)'라는 한 장의 서류를 받는다. 재자의 이름, 주소, 갚을 경전 수와 금액이 적힌 이 서류는 예수재를 봉행하여 전생 빚을 갚았음을 인정하는 일종의 증명서에 해당한다. 함합소는 봉송 때 지전과 함께 태우게 되는데, 예전에는 반으로 찢어 한 조각을 간직하는 이들도 많았다. 나중에 명부에 가서 불태워진 조각과 맞추어보아 맞으면 그 공덕을 인정받아서 내세의 길을 밝히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재에서 생전의 업을 두 가지 빚으로 표현한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를 향한 수행'과 '남을 향한 보시'를 이끌기 위함이다. 경전 빚은 삼보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금전 빚은 공덕을 베풀도록 이끄는 방편이니, 이러한 수행과 보시 공덕을 쌓음으로써 업을 맑히도록 일깨우는 데 있다.

따라서 태워버리는 낭비와 번거로움을 감내하면서 만드는 지전과 간이경전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기 위한 것이자 업의 위중함을 새기는 종교적 장치이다. 각자 자신에게 부여된 업의 무게만큼 지전과 경전을 머리에 이고 탑을 도는 대중의 모습은, 예수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윽고 소대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봉송의 단계가 되면 모든 장엄 지물(紙物)과 함께 지전을 태우기 시작한다.

명부성중 봉송하고 예배하는 사이에 지전은 모두 불타 바람마저 잔잔하네.
복 쌓고 액 없애니 목숨은 바다 같고 번뇌의 불꽃 길이길이 벗어났구나.

잔치가 끝나고 초대했던 명부 손님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 지전을 태우며 읊는 봉송 구절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나의 업이자 번뇌를 저처럼 태워 없애는 길이 무엇인지 저마다 생각에 잠길 법하다. 이윽고 재만 남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정화하여 사후 준비를 마침과 동시에 저마다 성찰적 삶을 다짐하는 것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❼ 아귀와 갈애–윤회의 실체 (1)



▶한줄요약
우리의 존재 이면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갈애(존재하고자 하는 집착과 욕망)'는 〈감로탱〉이라는 장르의 불교회화에서 '아귀'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삶 속 모든 욕망 근원 '갈애'

우리를 윤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왜 자꾸 다시 태어나는가'라는 질문이다. 윤회한다는 사실이 실감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으로 시작해도 되겠다. 나의 근원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존재의 비밀은 무엇일까?

기독교 · 유교 · 도교 '존재' 창조설

'나는 무엇인가' 또는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존재의 창조설 또는 근원설에 대해 대표적 종교별로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기독교의 경우,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나'는 조물주의 피조물로 간주된다. 하느님(God)이라는 창조주가 그의 뜻에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다. 나의 생명과 성품은 주님의 은총이자 은혜의 결과물이기에 주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잘 활용하여 주님의 업적을 빛내는 것이 나의 소명이자 삶의 목표가 된다. '나'라는 것은 초자연적이고 전지전능한 절대자의 창조물인 것이다.

유교의 경우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고(父生我身, 母鞠我身)"라는 〈시경〉의 문구를 받들어, 내 몸의 탄생의 근원을 아버지에게 둔다. 아버지의 근원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된다. "조상이 돌봐서~"라는 문구를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유교의 제사에서는 조상신을 모시는데, 여기서 조상신이란 남성(아버지)만의 계보를 말한다. 가족 구성원 중 남성 연장자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이다. 반드시 남성(아들)만을 통해 해당 성씨(姓氏) 가문의 계보가 이어지기에, 여성(딸)이 태어나면 대(代)가 끊어졌다 또는 계보가 단절됐다고 간주한다.

또 동양 또는 중국 고대 사상으로 음양사상(또는 음양오행사상)이 있다. 이는 주역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론으로 기(氣) 철학에 근저를 둔다.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로서 기(氣)를 바탕에 두는데, 기에는 음(陰)과 양(陽)의 두 종류가 있다. 이것이 서로 만나면서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음양설에서는 하나의 존재, 하나의 조직, 하나의 국가, 나아가 하나의 천지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기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나를 존재하게 하는 주범, '나의 업'

자, 그러면 불교의 경우는 어떨까?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중생을 창조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여타 대부분의 종교가 브라흐마 · 알라 · 하느님 등 조물주를 설정하지만, 불교는 사뭇 다르다. 초기 불교경전인 니까야에는 "우주 만물의 생성"에 대한 질문에, 붓다는 현실적인 "나의 생성"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조언을 한다. 또 "윤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라는 질문에도 "모른다"라고 답하며, 내가 '나와 세상'이라고 착각하는 환영의 원리(육근과 육경의 만남)를 통찰하라고 일축한다.

그러면, 붓다께서 보신 우리들의 참 모습,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나를 태어나게 하는 원인을 붓다의 눈을 빌려서 보도록 하자.

"(큰 깨달음을 얻으신 뒤) 큰 자비심이 일어나/ 다시 저 중생들을 관찰하니/ 여섯 갈래 속에서 윤회하면서/ 태어나고 죽음이 끝이 없네/ 그것은 거짓이고 견고하지 못하여 마치 파초와 꿈과 환영과 같네.(〈붓다차리타〉)"

붓다가 밝히셨던 윤회를 끊는 방법
수행 통해 무명업장 12연기로 통찰
12연기 과정 중 '애취–유–생' 부분
무에서 유형의 生 받는 결정적 대목
존재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 의미
'갈애' 불교회화서 불타는 아귀 표현

붓다는 우리들이 삶과 죽음을 무한 반복하는 광경을 본다. 육도라는 여섯 갈래의 세상(지옥 · 아귀 · 축생 · 수라 · 인 · 천)에 자맥질하듯 번갈아 태어나며, 한 번 태어날 때마다 그것이 유일무이한 삶이라 매번 착각하며, 집착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다.

그런데 이러한 끝없는 윤회 속의 중생들의 모습이 모두 제각각 천차만별임을 목격한다. 어떤 이는 잘생겼고 어떤 이는 못생겼고, 어떤 이는 부자이고 어떤 이는 가난하고…. 어떤 이는 다음 생에 지옥 세상에 태어나고, 어떤 이는 다음 생에 동물 세상에 태어나고…. 이에 붓다는 윤회의 원인과 그 양태의 다름에 대해 알기위해, 통찰지를 더욱 깊고 미묘하게 키워서 꿰뚫어 본다.

"이어 한밤중에 천안(天眼)을 잇따라 얻어/ 일체 중생을 통찰하기를 거울 속 모양 보는 듯하니/ 중생의 삶과 나고 죽음, 귀천과 부귀는/ (각 중생들이 스스로 지은) 청정업(淸淨業)과 청정하지 않은 업(부정업不淨業)/ 그것에 따라 고락(苦樂: 고통과 쾌락)의 과보를 받네."



그림① 존재하고자 하는 '갈애'는 불타는 '아귀'로 표현된다. 〈해인사감로탱〉의 부분, 1723년 조성, 합천 해인사 소장.

12연기 과정 속에 치솟는 '갈애'

즉, 자신이 사는 동안 청정업과 부정업(또는 선업과 악업)을 얼마나 어떻게 지었냐는 것에 따라, 지은 대로의 과보의 생(生)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쁜 업(惡業)을 지은 이를 관찰하니, 나쁜 갈래(惡趣)에 태어나고, 좋은 업(善業)을 지은 이는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난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한없는 고통을 받지만 … 업행(業行)은 그를 결코 죽게 하지 않는다." 끝없는 윤회의 반복으로 나를 굴리고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나의 '업과 업의 작용(업행 또는 업력)'이었다.

'업과 업력의 마음 덩어리'를 업장 · 업식 · 영가 · 영혼 · 무의식 · 아트만 · 말라식 등 분야와 쓰임새에 따라 다양하게 부른다. 몸(육체)이 죽어도 죽지 않는 이 마음 덩어리! 바로 이것이 중생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주범이었다. 붓다는 궁극의 통찰지로 이 마음 덩어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꿰뚫어 보는데, 급기야 그것이 총 12단계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한다. 마음 덩어리(무명업장)가 12연기(緣起)로 해체되어 그 실체가 드러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무명업장이 이렇게 완전히 분해되니, 공(空)이 드러나고, 드디어 윤회는 멈추었다.

불교는 붓다가 밝혀 놓은 윤회 끊는 방법(통찰지를 키워 → 12연기를 보고 → 자신의 윤회를 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찰지를 키우는 과정을 '수행'이라 하고, 수행을 통해 자신의 무명업장을 12연기로 '통찰'해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붓다가 통찰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과정'인 '12연기'의 내용을 보자. '(1)무명 → (2)행 → (3)식 → (4)명색 → (5)육처 → (6)촉 → (7)수 → (8)애취(愛取) → (9)유(有) → (10)생(生) → (11)노(老) → (12)사(死)'의 일련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윤회의 실체였다.

'나는 살아야 한다!' 존재에 대한 '갈애'

12단계의 과정 중 특히 '(8)애취(愛取) → (9)유(有) → (10)생(生)'의 부분을 주목해 보자. 그 이유는 이 부분이 무형(無形)에서 유형(有形)의 생을 받는 결정적인 대목이기 때문이다. '애취'는 '갈애'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존재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자 집착의 마음을 말한다. 재생연결식(이번 생의 마지막 의식이 다음 생의 첫 의식과 연결되는 고리의 과정) 때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강렬하게 일어나는 에너지가 갈애이다. 다시 몸 받고 싶다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불같이 일으켜, 결국 나를 다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양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활동 밑에는 거의 언제나 이 존재에 대한 갈애가 깔려 있다. 사람은 살아가는 찰나를 거의 모두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갈애가 시키는 대로 한다.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계속 살고 싶은 욕망은 다른 모든 욕망의 원천이자 밑바탕 흐름이다.(구나라뜨라,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가-재생에 대한 아비담마적 해석〉, 고요한 소리, 1998)"

우리의 존재 이면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갈애(존재하고자 하는 집착과 욕망)'는 〈감로탱〉이라는 장르의 불교회화에서 '아귀'의 모습으로 표현된다.(그림①)

그 에너지의 모습 그대로 시뻘겋게 훨훨 불타고 있다. 굶주린 허기를 달래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아귀(갈애)는 불탄다. 타는 목마름과 움켜쥐려는 집착으로 눈망울은 튀어나올 듯하고, 크게 벌린 입에서는 화염을 분출한다. 발우를 든 손은 공양단을 향해 애타게 뻗어 있고, 온 몸은 불타고 있다. 구나라뜨라는 위의 저서에서 "(존재하고 하는) 갈애라는 강력한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소멸될 수 없다. 사람이 죽는다 해도 함께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이안의 Media In Buddha ⑬ 영화 〈오늘 출가합니다〉



▶한줄요약
오랫동안 출가를 준비해 온 아저씨 '성민'은 자신의 차를 주겠다며 친구를 꼬셔 출가를 하기 위해 사찰을 찾는다. 하지만, 나이 문제와 결혼 경력으로 출가 시도는 번번히 실패하는데…. 출가해 영원한 자유를 얻겠다는 '성민'은 출가할 수 있을까?

아빠가 출가를? 가출이 아니고?



4월 5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 〈오늘 출가합니다〉의 한 장면.

가출과 출가. 한자로 같은 자를 조합한 말인데 앞뒤 순서가 바뀌면 뜻도 확 바뀌는 말. 집 가(家), 날 출(出). 가출이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것이고, 출가라고 하면 세속의 집을 떠나 불문에 들어 승려가 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 된다. 가출은 세속적인 일탈로 여겨지지만 출가는 종교적으로 성스럽게 여겨진다. 응? 왜 그러지? 그런데 가만, 둘 다 집을 나가야 하는 거구나. 가족을 떠나야 하는 거구나!

〈오늘 출가합니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는 영화다. 영화는 오랫동안 출가를 준비한 성민(양흥주)이 신변을 정리하고 스승이 소개한 절에 가서 머리 깎기 전 날 친구들과 속세와의 이별하는 자리에서 시작한다. 아, '스님들도 출가하기 전에 군대 가는 청년들처럼 송별회를 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기에는 좀 별스럽다. 출가하겠다는 성민이나 같이 자리한 친구들이나 얼굴이며 몸매며 말투까지 다들 아저씨, 그것도 아주 나이 지긋한 중늙은이들이기 때문이다.

'수행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랴' 싶어도 다 자란 자식도 있고, 오래 함께 살아온 아내도 있는 사람이 세속에서 살다 살다 할 것 다하고 스님이 되려한다는 것은 등 두드리며 격려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굳은 뜻을 세웠다는데 억지로 뜯어말릴 수도 없는 친구들 표정이 난감하다.

이런 일이 영화적 상상이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데서 〈오늘 출가합니다〉의 재미와 공감이 솟아난다. 이 영화의 제작자인 박준호 프로듀서가 학창 시절 친구가 출가하는 길에 함께 했다고 한다. 박 프로듀서는 "그 친구의 출가가 이후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면서 이 체험담에 공감한 김성환 감독과 뜻을 모아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박준호 프로듀서가 친구의 출가에 함께 했던 일정은 1박 2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스님이 된 친구와의 사연이 하나씩 늘어났고, 이 이야기를 김성환 감독도 지속적으로 듣게 되었다. 그러면서 김성환 감독이 먼저 "그 스님은 잘 지내세요?"라고 관심을 보이게 되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그 스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안 될까요?"라는 제안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오래 갈무리 된 진짜 출가 스토리의 진정성이 지인 중심 지역 예술인들과의 합을 이루면서 이 영화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얼개와 장면들 안에서 억지스럽지도 않으면서 평범하지도 않은 이상한 조합의 인물들을 두루 이야기 속에 불러들인다. 심지어 실제 스님들과 크고 오래된 절, 흔히 볼 수 없는 불교 행사까지.

시작부터 애매한 이 영화의 주인공 도희 아빠 성민 아저씨가 쉽게 출가할 수 있었으면 영화가 될 이야깃거리도 없었을 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는 속담도 있듯이 성민의 머리를 깎는 일이 영 쉽지 않다. 스승의 소개로 처음 찾아간 절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하고, 다시 알음알음 찾아간 절에서는 세속에서 부부의 연으로 살아가다가 출가하겠다고 이혼한 기간이 문제가 되어 또 거절당하고. 그저 절에 의탁해 봉사도 하고, 일손도 거드는 객으로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계를 받고 승적에 이름을 올리는 일은 의지나 불심만으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4월 5일 개봉한 영화 '오늘 출가합니다'
아저씨 '성민' 좌충우돌 출가 여정 그려
녹록치 않은 출가 과정 위트있게 담아내
통도사, 월정사 등 명산대찰 풍광도 눈길

가만 짚어보니 처음부터 출가는 어렵고 어려운 일이었다. 석가모니 또한 열네 살에 결심한 출가의 뜻을 이룬 것이 무려 스물아홉의 나이였다. 그 지난한 고타마 싯다르타의 출가 일화를 일컬어 사문유관(四門遊觀) 또는 사문출유(四門出遊)라고 한다. 싯다르타가 태자 때에 카필라성의 동·남·서·북에 난 네 개의 문 밖에 나가 인생의 4고(四苦)인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직접 보고 출가를 결심하기까지의 이야기다.

고타마가 태어날 당시 아시타라는 선인이 예언하기를 왕자가 자라서 현실세계에 머무르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고 출가해서 수행을 한다면 위대한 깨달음을 얻는 자가 되리라고 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아버지 슈도다나 왕은 아들의 출가를 막기 위해서 세상과의 접촉을 막고 왕자로만 키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이라 해도 자라나는 아들을 언제까지고 성 안에만 묶어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나서야 할 일도 생기고 겪어야 할 일도 생기는 법. 자신을 위해 특별히 만든 궁전 밖으로 나설 일이 있을 때마다 고타마는 성을 나서려 할 때마다 채 세상을 겪기도 전에 매번 세상의 고통을 보고 깊이 생각에 들며 발길을 되돌리곤 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청소년이던 싯다르타는 동문 밖에서 늙은이를 보고 젊음이 사라진 존재의 누추함을 보았고, 또 세월이 지나 남문 밖에서는 병든 이를 보고 인간의 허약함을 느꼈으며, 또 세월이 지나 서문 밖에서는 죽은 이를 보고 생명의 유한함을 깨달으면서 날 때부터 생각이 깊었던 싯다르타는 권력과 생명이 허망하고 부질없다는 고뇌를 겪었다. 그런데 굳이 왕이 되고 싶을 리도 없었고.

그렇게 존재와 세상의 무상함에 대해 고뇌하던 시기 가운데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으나 그 고뇌는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북문 밖에서 수행자를 만나 마침내 출가의 뜻을 굳히게 되었던 것이다. 갓 태어난 아들과 사랑하는 부인을 남겨두고 나서서 멀고도 험한 6년 동안의 극심한 고행으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할 때는 또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세속에서의 극단적인 쾌락도, 죽지 않을 만큼만 생명활동을 이어가는 혹독한 고행도 아닌 '자비' 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서른다섯에 이르러서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었으니 성민 아저씨가 출가를 결심했다고 바로 승려가 되지 못하는 것도 다 부처님 뒤를 잇는 길일 것이다.

싯다르타의 성문 넷보다 성민의 여정은 더 스펙터클하다. 지역영상위원회의 제작지원을 받은 작품답게 주요 촬영지인 원주를 비롯해 관광지로 사랑받는 강원도 곳곳의 풍광이 마치 여행을 함께 하는 듯 한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성민이 출가를 허락 받고자 찾는 영축산 통도사, 오대산 월정사, 지리산 천은사, 치악산 구룡사와 같은 명산대찰들을 두루 보여주고 원주 미륵사의 미륵불처럼 지역 불자 아닌 사람은 잘 알지 못하던 곳까지 친절한 관광 가이드처럼 속속들이 카메라로 안내해준다. 직접 가서도 잘 볼 수 없는 전제 풍광은 수시로 하늘 높이 드론을 띄워 보여주고, 계절의 변화도, 바닷가 해돋이도 오래오래 공들여 스크린에 펼쳐낸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씨줄인 성민이 출가하러 가는 길에 같이 가주면 자동차를 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주는 척 첫 출가 목적지였던 절에 데려다주는 절친 진우(나현준)는 영화 안에서 독립영화 제작자로 등장해서 늙다리 아저씨 출가 못지않게 힘든 영화제작 과정을 날줄로 엮어낸다.

이 두 사람의 출가와 영화제작은 어렵지만 이루고 싶은 꿈이다. 그 꿈은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인 '아카데미 극장' 을 배경으로 현실에서 독립영화, 지역영화가 겪고 있는 아슬아슬함이 인생의 생로병사 못지않게 영화에는 커다란 고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전 건물 그대로 영사실부터 객석, 스크린, 극장주의 살림 공간까지 남아있는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지역에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화거점으로 사랑받고 있으나 멀티플렉스 시대에 건물 자체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명소이다.

진우와 성민은 출가 여정의 출발도 아카데미 극장에서 하고, 성민이 출가의 원을 이루는 동안 진우는 고군분투하던 영화를 완성해 관객을 만나는 무대를 아카데미 극장에서 맞는다. 아마도 김성환 감독은 성민이 출가하는 것 못지않게 아카데미 극장이 지역 영화공간으로 길이 남게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극장 안에서 특별 행사를 하는 시네필들, 문화활동가들을 직접 스크린에 불러들이고, 세월의 풍파로 퇴락한 극장 건물에 파사드 영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입히면서 이 영화 안에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명산대찰에 버금가는 공간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지역 문화예술인들, 문화공간들과 불교계의 지원까지 두른 이 영화를 만든 김성환 감독은 "〈오늘 출가합니다〉는 종교영화는 아니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영화로 만들고자 했다"라는 기대에 독립영화, 그것도 지역 독립영화의 희망까지 담아냈다.

엔딩 크레딧이 오를 때 동해 바닷가 흰모래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픈 성민의 래퍼 딸 '도희' 가 신나게 쏟아내는 노랫말처럼 "갑자기 찾아온 아빠의 영원한 가출. 아빠는 원하지 영원한 속세의 탈출. 혹시 나 때문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 그냥 아빠의 길을 가" 라는 응원과 천만관객, 천만공감을 축원하는 스님이 된 성민의 기원이 어우러지는 이 영화는 로드무비이자 버디무비이고, 가족영화이자 불교영화며, 성장영화이자 여행장려영화이기도 하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가 한창이던 시기에 제2회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것을 비롯해 서울독립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코리아프라이, 울주국제산악영화제,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등 여러 영화제에서 먼저 관객들을 만났던 이 재밌는 영화가 드디어 극장에서 개봉한다는 소식이 마치 성민의 출가 소식이나 진우의 영화제작 소식만큼이나 반갑다.

〈영화평론가〉





세상 모든 것을 진여로 보라

〈眞如〉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⑭ 진여

〈원문〉 "또 아난아, 어찌하여 12처가 본래 여래장인 미묘한 진여의 성인가 하면 아난아, 네가 기타림에 있는 샘과 못을 보나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들이 색이 눈의 견을 내는가, 눈이 색상을 내는가? 아난아 만약 눈이 색상을 낸다면 허공을 볼 적에는 색상이 아니니, 색의 성이 소멸할 것이요, 소멸하였으면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으리니, 색상이 없으면 어떻게 공(空)의 본질을 밝히겠느냐? 공도 또한 그러하니라. 만약 색진(色塵)이 눈의 보는 것(見)을 생기게 한다면 공(空)을 볼 적에는 색이 아니니 견은 곧 소멸해 없어질 것이요, 소멸해 없어지면 곧 아무것도 없으리니 무엇이 공과 색을 밝히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라. 보는 것과 색과 공이 모두 처소가 없어서, 색과 보는 것 두 곳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닌 성이니라."

〈강설〉 12처는 육근과 육진을 합하여 말하는 것이다. 육근(六根)과 육진(六塵)이 각각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처소(處所)라고 하여 합하여 12처(處)라 한다. 눈에 보이는 색(色)은 진(塵)이고, 보는 눈은 근(根)이다. 그런데 진(塵)인 색(色)에서 눈(眼)의 보는 작용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눈에서 색의 모양을 내는 것인지 부처님이 아난에게 물었다. 만약 눈이 색의 모양을 낸다면 허공을 볼 적에는 색이 아니니 그땐 눈이 색을 보는 성질이 없어지는 것이냐고 물은 것이다. 이렇게 물은 것은 눈이 물체(色)를 볼 적에 보는 견(見)이 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눈(根)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색(色)과 견(見)이 다 허망하여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性)이라 하였다. 그것이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이다. 불교의 수행에서 상(相)에 집착하지 말고 성(性)을 보라고 한다. 상(相)과 성(性)은 서로 상대적인 말이다. 상(相)은 차별이나 성(性)은 차별을 떠난다. 이 세상을 성으로 볼 때는 평등해진다. 거기서 얻는 것이 부처님의 평등지견(平等知見)이다. 이 세상은 깨닫고 보면 진여의 세계이고 중생도 깨닫고 보면 모두 부처라는 것이다. 성(性)은 현상의 배후이므로 본체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은 상을 떠났기 때문에 공한 것이고, 또한 불생불멸 하는 것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4구송(四句頌)에 "모든 존재에는 자성이 없다. 이렇게 존재의 성을 알면 곧 노사나 부처를 보게 된다.(了知一切法 自性無所有 如是解法性 卽見盧舍那)"라고 하였다. 〈능엄경〉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이 자성이 없는 법성 그 자체다. 〈수미정상게찬품〉에 설해져 있는 이 송구는 7세기 중엽 중국 오대산에 들어가 있던 신라의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여 직접 전해 받은 게송이라는 전설도 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성(性)을 관(觀)하기를 주장하는 법문을 성종(性宗) 법문이라 한다. 〈능엄경〉의 여래장 법문이 성종 법문이다. 이 법문은 주로 비유비무(非有非無)를 설한다. 유와 무를 동시에 부정해 놓고 성을 드러내는 법문이다. 반면에 유(有)를 설하는 법문을 상종(相宗) 법문이라 한다. 중생을 이해시켜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있다(有)' 고 설한다. 또 반대로 '없다(無)' 고 설하는 경우도 있다. 유(有)를 부정하여 무(無), 곧 공(空)을 설한다. 그래서 공종(空宗) 법문이라 한다.

부처님의 일대시교(一代時教) 가운데 초기에는 유(有)를 설하고 중기에는 공(空)을 설하고 후기에는 성(性)을 설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교상판석(教相判釋)을 하면서 해 온 말로, 일대시교의 전체적 흐름을 가지고 해온 말이다.

제 일과(一科) 오음에서 제 2과 육입, 그리고 제 삼과(三科) 12처를 통하여 여래장묘진여성을 밝히고 이어 십팔계(十八界)와 칠대(七大)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진여성임을 밝히는 내용이 2권 말에서 3권 전체에 설해져 있다. 〈능엄십의(楞嚴十義)〉 중 3권의 내용을 요약하여 '부석제상(剖析諸相)' 이라 하여 모든 현상을 해부해 분석한 것이라 말해 왔다. 사과(四科), 칠대(七大)를 분석하여 여래장인 미묘한 진여의 성품을 밝혔다는 말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진여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내용들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중심법 · 뇌척수로운동법…'장부순화' 빨라져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⑭ 순화

중심과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언제든지 내 속으로 들어가서 제도해야 할 대상을 만날 수 있다.

중심법과 뇌척수로운동법이 함께 쓰이면 훨씬 더 빨리 장부 순화가 이루어진다. 중심의 이면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공간적 관점이다. 또 하나는 상태적 관점이다. 중심의 이면은 텅 비어있다. 이것이 이면이 가진 공간적 관점이다. 중심의 이면은 '아무렇지 않은 상태' 이다. 이것이 이면이 가진 상태적 관점이다. '아무렇지 않다' 는 것은 각성으로 주시되는 대상의 상태이다. 현상을 대하는 의식이 아무렇지 않을 때 그 상태를 각성이 주시한다. 각성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어떤 상태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가끔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어떠냐고 되묻는다. 선지가 있으면 알아듣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리둥절해한다. 의식이 쓰일 때 관여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자리를 주시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자리가 이면이다. 공간적 관점에서 이면이 세워지는 자리는 명치 위 1㎝, 속으로 10㎝ 들어간 자리이다. 중심에서 등 쪽으로 5㎝ 더 들어간 자리에 이면이 세워진다.

이면에서는 어떤 일치도 일어나지 않는다. 관여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가 명치 위 1cm, 속으로 10cm 들어간 자리에서 세워진다. 척추뼈 순화수행이 깊어지려면 먼저 호흡이 안정되어야 한다. 호흡은 일정 속도(均)로 조용(靜)하고 미세(細)하며 길게(長) 이루어져야 한다. 바르게 앉아서 아랫배까지 숨을 들이쉰다. 억지로 아랫배까지 숨을 밀어 넣는 것이 아니다. 단전에 의식을 두고 아랫배가 숨을 빨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아랫배를 천천히 내밀면서 그 속도에 맞추어서 코로 숨이 빨려 들어오는 것을 지켜본다. 날숨에는 고요하고 미세하게 천천히 토해준다. 처음에는 이렇게 숨 쉬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다.

반복해서 연습해 주면 불편한 것이 해소된다. 척추뼈 순화의 시작은 양쪽 손바닥의 중심을 여는 것이다. 손바닥의 중심이 '노궁혈' 이다. 장심을 열기 위해 진동관법이 쓰인다. 진동관이란 심장의 박동을 활용해서 몸의 감각을 일깨우는 수행법이다. 사념처관법 중 신념처관의 기법이다. 목과 어깨를 자연스럽게 풀어준 다음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앉는다. 엄지 끝과 검지 끝을 서로 맞닿게 하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이때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도록 하고 손가락을 너무 세게 쥐지 않도록 한다. 맞닿은 손끝에서 일어나는 맥박의 진동을 느낀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손끝으로 의식을 돌린다. 폐, 대장, 삼초(三焦), 심포(心包), 심장 부위의 냉기나 병증이 다스려지면서 그런 증상이 생긴다. 계속하면 사라진다. 손끝의 진동이 순일(純一)하게 느껴지면, 손바닥 전체로 확대시킨다. 손바닥 전체에서 진동이 느껴지면, 손바닥 위로 기운이 모이기 시작한다. 상황에 따라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손바닥 위에 빽빽한 공이 얹힌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때로는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이 과정을 충분하게 반복해서 연습한다. 그런 다음 손바닥 중심에 구멍을 뚫는다. 손바닥의 중심을 '노궁' 이라 한다. 노궁에 구멍이 뻥 뚫렸다고 상상한다. 그 구멍이 팔목뼈를 타고 어깨를 거쳐서 척추뼈까지 이어져 있다고 상상한다. 손바닥 위에 얹힌 기운으로 탁구공을 만든다. 기운이 탁구공처럼 둥글게 뭉친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진짜 탁구공처럼 선명하게 뭉쳐지지 않아도 괜찮다. 기운이 둥글게 얹힌 정도의 느낌만 있어도 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⑭ 환상(幻像)

선택하려는 마음 진실하게 버려야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많은 것을 접하고 살아가지만, '실재' 를 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런 인식조차 일어날 수 없지만 말이다. 그럼 '나' 는 무엇을 접하고 살아가는지를 물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관점의 차이가 나타난다. 대부분은 질문의 관점을 '나' 에 두지 않고 '무엇' 이라는 대상에 치우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실재' 를 접하지 않는다면 내가 접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답을 요구하게 된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해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 다른 의견이 생길 것이다. 아마 다른 의견을 가진 이는 세상을 실유(實有)로 생각할 것이고, 그 자신은 분명히 실재를 보고 접한다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사실의 관점에서 보고 접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관념으로 보는 세상을 실재로 알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사실 그가 보는 세상은 실재가 아니라 환상(幻像)이다. 따라서 실재와 환상은 우리의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실재는 보이지 않고, 환상은 보인다. 실재는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환상은 누구나 보고 있다. 실재는 시공간에 나타날 수 없지만, 환상은 시공간에 항상 나타난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실재와 환상은 다른 물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물건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보았다는 관념 자체가 환상의 산물이고 생각(이미지)인 것이다. 그래서 그 관념을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재는 우리에게 나타난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정되어있는 어떤 실재를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재를 알기 전에 '나' 라는 생명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나' 에 대한 바른 정의 없이 밖의 사물에 대한 정의는 무의미하다. 행여나 밖의 사물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알더라도 나에 대한 바른 앎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일체법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며 인연을 떠나서는 근본적으로 생겨남이 없네. 그것을 주재할 어떤 조물주의 존재도 없기 때문에 형이상의 본체인 자성을 말해 일체법이 본래 스스로 생겨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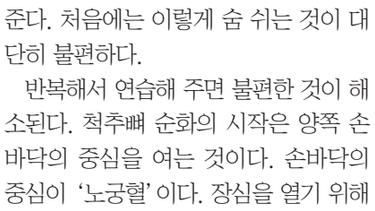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실재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말속에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여기에서 진짜 '나' 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하여 무엇을 찾는 이가 된다. 그렇다고 무엇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는 마음이 왜 계속 생기는 것일까? 이때 찾는 마음이 허상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허상의 마음은 선택하여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 선택한다는 마음이 옳은 마음이 아님이 뼛속까지 깊숙이 들어와야 한다. 세상에는 선택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의 탐진치가 선택이 있는 것처럼 조작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탐진치는 허상을 바르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재가 무엇인지를 계속 가려버린다. 그렇다고 탐진치를 버리려는 마음을 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선택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실재와 아주 가깝게 있는 것이다. 실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변함없이 있다. 그러니 쫓아가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쫓는 그 마음을 버리고 본질에 대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일이다. 그러면 저절로 본래의 마음이 드러나 밝음이 나타난다. 육조 혜능선사를 뒤쫓던 혜명 스님도 육조스님이 무엇을 얻었는지가 궁금하여 그를 쫓아갔었다. 그러나 육조스님의 질문 하나에 그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눈이 밝아진 것이다. 육조스님의 질문이 난해한 것이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초등학생 정도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물음이다. 그러나 그 질문의 요의를 밝히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변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하게 버려져야 하는 것이다.

육조스님이 혜명 스님에게 물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느 것이 명상좌의 본래면목입니까?"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법당서 누구 망신?

마이크와 2m 멀리서 작은 소리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로 바꾸어 드리는 최신 디지털 마이크 소개 : 법당서 스님 마이크와 본사 마이크와 스님 자신이 양손에 염불을 해 볼시 추호라도 광고 내용과 다르면 법당서 누구 망신?....비교시 장난감 성능 차이를 확인

오직! 마이크만 바꿔도 수 천번의 염불이 내 귀에 신명으로 힐링되니 보물이 따로 없다.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수 천만원까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7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 7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31호 | 17 | 전면광고

탐욕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
등의 악행을 짓지 않는 사람은
그 명예가 날로 더해간다.
마치 달이 보름달을 향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설선생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2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 가능 • 매가 : 15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약 130평 / 836번지 약 300평
- 4년 전 포크레인 작업, 조용하고 청정지역, 아담하고 포근한 자리, 샘물 나옴, 절터, 산소자리 적합
- 가액 : 3,150만원, 건강상 양도

010-7628-99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 대지 : 약 250평
  법당, 요사채, 주차장 70평
- 공찰소임 관계로 급매 / 시설 완비
- 가액 : 2억 5천만원

054-536-2587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내 십분 거리 조용한곳
- 대지 : 300평, 사유지 포함 1,000평 가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법당 집기 일체 포함
- 가액 : 2억 5천만원

010-5581-3081

포교원 안내

- 지역 : 구포시장 농협~신협(중간)
- 상가 : 1층 주차장 & 2층 건물 50평(전체)
- 법당 : 아미타, 대세지, 관음, 지장, 신중, 영단
- 시설 : 종무실, 객실, 공양간, 황토찜질방
- 주차 : 50평, 시장 유료 주차, (직)관리
- 전세 : 2천/90(1, 2층 포함), 사권 : 4천 8백만원 (현법회중)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350-2115
010-4535-2568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 2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금산 추부
- 대 지 : 280평, 임야 : 50평, 총 330평
- 삼성각 : 7평, 전통 기와 목조건물
- 법 당 : 22평, 경량골 철골
- 요사채 : 슬레이트 지붕, 블록, 방 5개, 거실, 주방, 화장실
- 대전 옥천 15분 이내(교통 편리)
-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가 액 : 2억 5천만원, 대출 5천만원

010-3875-630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 버스 역세권 도보 3분 거리
  도시가스, 유동인구 많음

010-3402-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건물 외 부속건물
- 가액 : 1억 2천만원

010-5436-5801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사찰 (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
- 대지 200평, 임대부지 약 300평, 법당 10평, 산신각 2평 용왕각 6평, 요사채 20평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일억 오천(조정 가능) 와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3757-3699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2억(살분만 전화)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23길 55 지장사
- 단독 주택, 법당 1, 큰방, 작은방, 화장실 2개
- 전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권리금 1000만원, 40평 안쪽에 마당 있음

010-4844-7098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44~43번지
- 대 지 : 5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5억(조정 가능)

010-6449-9552
010-3640-3128

암 자 안 내

통영 바다와 산의 경치, 공기가 좋은 곳

- 주소 : 통영시 정량동 840-1
- 법당, 삼존불, 신중, 약사불, 칠성, 용왕, 산신각, 집기 일체 포함
-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대지 : 법당과 텃밭 포함, 106평 (주차 다수 가능)
- 가액 : 1억 8천만원

010-3344-6667

사 찰 안 내

경기도 가평군 중미산 자락에 위치한 절입니다. 남향으로 전망 좋고, 법당도 넓고 깨끗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1층 82.53㎡ (방 3개, 부엌, 거실), 2층 82.53㎡ (법당, 방, 베란다)
- 보증금 3천 월세 80만원, 권리금 없이 모든 시설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직접 보실 수 있음)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160

010-2551-3752

절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5분 거리 42번 국도 옆
- 임야 5,000평, 안에 절터 자리 다수 있음, 대지 300평, 암자 6평, 약초농원
- 산 정상까지 길, 관수, 전기 시설 완료, 산삼급 약초 있음, 산 정상에 평탄작업 가능
- 가 액 : 급양도(상담 후 결정)

말기 암 환자 95% 완치도 있음(산기운이 좋음)

010-7922-207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주 남산 최고의 명당사찰, 통일전 부근
- 대지 : 1,000여평, 부지에 딸린 토지 720평
  법당, 요사, 황토방, 토굴방, 정자, 석불, 석물다수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이십사억(24억)

010-4536-1456

사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 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시내권 등산로 입구, 공원 입구
- 건물 : 상가 2층 건물 중, 2층 약 40평(옥상 단독 사용)
- 구조 : 방 3개, 법당, 주방, 욕실 주차장 : 4대 단독 사용
- 현재 포교당 겸 철학상담, 기치료
- 보증금 : 2천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협의)

010-2727-4684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9천만원

010-6898-911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387, 화룡사
- 가액 : 3천 2백만원

기타 문의는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010-6688-994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 8백평
- 건물: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10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 계곡물 흐르는 청정지역
  대지 : 388평
- 대웅전 요사채 1동
  산신각 용왕당 1동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4123-75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에서 10분 거리
- 종교 부지 243평 건물, 대웅전 27평, 용왕각 15평, 요사채 35평, 화장실 5평(재래식) 전 511평
- 가액 : 5억 5천

010-3845-24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대지 : 약 230평
- 스님, 법사, 보살님도 환영
- 집기류는 그냥 드립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1억 2천만원(조정 가능)

010-3415-7833

사 찰 안 내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신.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 건 물 : 법당 25평(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향토방 1동
- 해우소 1동(실사용), 주차장, 전 · 천오백평 감나무, 자두, 두릅, 나물, 고사리 등 다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포근한 살기 좋은 도량
- 가 액 : 5억, 차량 진입 가능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부근
- 대지 약 365평, 가용 평수 약 600평(하천부지 포함)
- 법당, 약사여래, 삼선각, 요사채, 스님이 사용하는 방 3칸 입석부, 종무실 1개, 창고 2개, 신도님 식당 약 15평, 23년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주차장 완비
- 시내버스 거리,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 가액 : 4억 1천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절 창건한지 90년

010-4583-4895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

010-5421-1536

사 찰 안 내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길 30, 3층 도불사(한국불교태고종)

- 법당 : 63평
- 보증금 5천만원, 권리금 3천만원, 월세 210만원, 관리비 30만원
-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스님께서 갑작스럽게 열반하심)

010-3784-0181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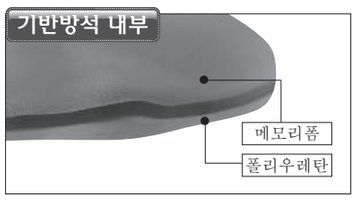
010-9424-4777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31호 | 18 | 전면광고

중생의 마음은
본디 부처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 않고
부처를 생각하면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부처를 볼 수 있으리.



부처님 말씀 읽기 -《능엄경》에서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재 보존회 학인 모집(영축사)

1. 법패(염불·장엄)
2. 작법무(오공양·운심게)
3. 바라(사다라니·사물)

- 특별과정수업
- 개인 3개월 과정

※ 사찰 등록 및 승려증 발급(종단)

사)부산영산재 보존회 사무국 담당 010-5511-7000

극락왕생 · 인도환생 발원
반려동물 천도재 · 49재
태아령(낙태, 유산) 영유아 천도사찰

해인승가대,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 큰스님 직접 집전

부산 온천장 약불사 051-556-2270
반려동물 수의판매 · 부산 반야원 010-8543-4289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民佛宗秘法傳修院

鬼門神功 귀문신공 知止神功 지지신공
六爻神功 육효신공 不立神功 불립신공

※ 다음카페 꼭 참고, 장애스님, 보살무료

Daum 역학대통령 ▼ Cafe.daum.net/yokhak

직통 02-907-5858, 백운곡 010-2693-771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북 문경 쌍용사
- 월 보시 : 200만원 (제비 별도)
- 개인 방사 (원룸식)

010-8819-8988

범음·범패 학인 모집

각단의식,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및 개인지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 륜 사
전화 010-7579-82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해오름 건축·중기

- 한옥/구들 시공/황토방 시공
- 미니 굴삭기(u20), 집게, 브레카
- 매립, 철거, 배관, 조경, 토목
- 소형 운반차(덤프) 임대, 판매
- 궤도운반기 소형 임대, 판매
- 원만성취로 보답하겠습니다.

010-7772-7886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66-2309 / 010-4804-2309
대구종무소 : 010-4009-2388(강법사)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단청, 탱화, 개금, 고건축

문화재청
화공기능보유자

010-9387-1518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⑥ 목련꽃차

비장에 좋은 소음인의 꽃차
〈脾臟〉

목련(木蓮)꽃은 나무 목(木)과 연밥 련(蓮)으로, 나무에 피는 연꽃이다. 꽃은 3~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꽃의 색은 흰색, 자주색이 있다. 꽃말은 '고귀함' · '숭고한 사랑'이다.

옥란(玉蘭)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백목련(白木蓮)의 색이 옥과 같이 맑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옥(玉)은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 안에 목련꽃을 그려놓기도 한다. 또 목련꽃봉우리가 붓을 닮아서 목필(木筆)로 부르기도 하고, 꽃이 피려고 할 때 끝이 북녘을 향한다고 해서 북향화(北向花)라고 한다. 생약명은 신이(辛夷)이고, 꽃은 신이화(辛夷花)라 한다.

우리나라에 목련꽃이 많은 이유는 옛날부터 목련의 종자, 뿌리뿐만 아니라 목련꽃, 잎까지도 약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집 주위에 많이 심었던 것이다. 꽃 봉우리 · 잎 · 열매를 차로 이용한다.

성분과 약성

목련의 성분은 정유 시트랄(citral), 오이게놀(eugenol), 1,8-신네올(1,8-cineole), 펠란드렌(phellandrene), 캠퍼(camphor), 사비넨(sabinene), 리모넨(limonene), p-사이멘(p-cymene) 등이 있다.

약성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맵고, 독이 없다. 축농증 · 비염 · 코 막힘 · 두통 · 기침 등을 치료한다. 또 얼굴 기미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얼굴에 광택이 난다. 폐(肺)를 따뜻하게 하여 습(濕)을 없애준다. 특히 야생 목련꽃이 향과 약효가 탁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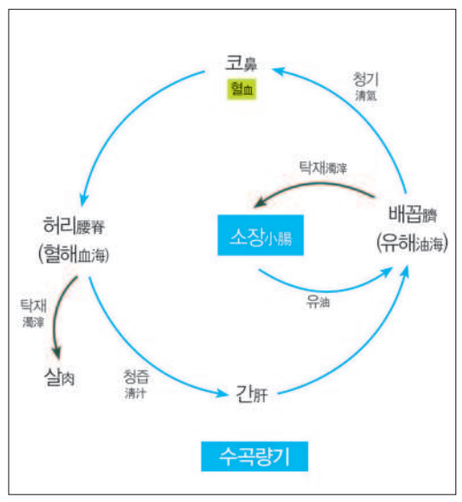
마음 · 기(氣)작용

목련꽃은 비장(脾臟)에 좋은 소음인의 꽃차이다. 맵고 따뜻한 목련꽃차는 기본적으로 소음인의 비장의 기운을 좋게 한다. 소음인(少陰人)은 신장의 기운이 크고 비장의 기운이 작은 사람이다. 신체적 특징을 보면, 상체는 빈약하고 엉덩이 부분이 크고, 대체적으로 선이 가늘고 단아하며, 여성스러운 면이 많다. 또 소화기능이 약하고, 손과 발이 냉하고 땀을 흘리지 않는다. 특히 미각이 발달하여 맛에 예민하고 미식가이다. 건강한 소음인은 소화가 잘 되고, 땀이 적으며, 배변 습관이 규칙적이다.

약성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독 없어
축농증 · 비염 · 코막힘 · 두통 등 치료

목련꽃차는 축농증 · 비염 · 코 막힘을 치료하는데, 이는 수곡량기의 기 흐름과 관계된다. 수곡량기는 소장(小腸)에서 유(油)가 생성되어 배꼽의 유해(油海)로 들어가고, 유해의 맑은 기운은 코로 나아가서 혈(血)이 되고, 코의 혈이 허리로 들어가 혈해(血海)가 된다. 목련꽃차는 유해의 맑은 기운이 코로 잘 나아가게 하여, 소음인 코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목련꽃차.



제다 및 음용

꽃봉우리를 3~4월에 채취하여 시들리기를 하고, 꽃을 한 잎 한 잎 떼어서 저온에서 덖음을 한다. 80~90% 건조되면 고온에서 맛과 향을 내어 완성한다. 목련꽃차 3~4잎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또 목련꽃차에 대추를 블렌딩한다. 목련꽃차 1g, 대추차 1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목련꽃차 블렌딩은 대추가 목련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하여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킨다. 또 비염과 폐 기관지염증에도 좋다.

사상인별 시음 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먼저 목련꽃차에서 절인 생강편향이 났으며, 마셨을 때는 살짝 매운향과 생풀향, 박하향 등이 났다. 첫잔에서는 시원한맛, 매운맛이 났고, 두 세잔을 마시니 혀가 아리고, 목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시음자는 목련꽃차의 향기만 맡았는데, 특유의 향기에 짜증이 나면서 관자놀이에 작은 통증이 왔다. 차를 마셨을 때는 오히려 꽃차 향기가 약해지고 밋밋한 맛이 났다. 계속해서 마시고 싶지는 않았다.

소양인이 마셨을 때, 목련꽃차의 향기를 맡았는데 위가 아파왔다. 맞지 않은 것을 알고는 겨우 한 모금을 마셨는데 눈이 충혈 되고, 졸음이 쏟아져 2~3시간 동안 비몽사몽이었다.

다른 시음자는 꽃차의 향기에서는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다. 처음 한 모금을 마시니 혀 끝에서 불필요한 음식물의 잡냄새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두 모금은 입속의 보호 코팅젤을 제거시키는 알싸한 느낌이 강했다. 10~15분 정도 지나니 눈 주변의 따끔거리고 가렵기 시작하였다. 머릿속, 허벅지, 얼굴에 가려운 증상이 나타났다. 태음인과 소양인의 시음에서 열이 많은 태음인과 소양인에게는 목련꽃차가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꽃차의 향기를 맡으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한 잔을 마시니 입안이 개운하고, 시원한 향기가 났다. 두세 잔을 마시니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따뜻해졌다. 평소 비염이 있는데, 콧속이 시원해지고, 콧물이 마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계속해서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여러 잔을 마시니 소변을 보고 싶었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김영숙의
효소건강칼럼
③ 발효식품

해독 · 배출 돕는 발효 식품

비만, 현대인에게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무게의 숫자만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에 따라 지방세포의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성장기 과정에서 지방세포의 수가 많은 사람도 있어서 몸무게의 숫자를 비만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비만이라는 것은 체내에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말한다.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근육량이 증가해 있고 지방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비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오히려 표준체중이거나 적은 체중이더라도 체내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경우는 비만으로 분류한다.

연구 사례를 보면 사춘기 이후의 성인 비만증에는 유전인자보다 식습관 등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젊었을 때는 몸무게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연령이 높아지면서 체내 근육이 줄어들면 체내 지방이 증가하게 된다.

건강한 몸의 유지는 체내의 해로운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하고 가벼운 몸을 위해서는 해독이 먼저다. 제거되지 않은 독소들은 모든 염증질환과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 · 소변과 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효과적인 디톡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효과적인 해독과 배출을 위해서는 섭취하는 음식이 중요하다. 간이나 신장 등 해독에 관여하는 장기가 건강하면 독소의 배출 역시 원활해진다.

하지만 현대의 음식에는 인공색소 등 인체에 좋지 않은 가공 첨가물이 많아 원활한 해독과 배출을 할 수 없게 하고, 그로 인해 인체에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된다. 살이 찌면 세포와 혈액 내에 지방질이 증가하고 유해 산소가 발생하는 등으로 혈액 순환이 나빠져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웨인 파거링 박사는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느냐' 보다는 내 몸에서 '무엇이 빠져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인체에 필요한 효소의 부족은 섭취한 음식의 소화 분해를 어렵게 하고 대사기능도 저하시킨다. 따라서 비만 체질로 변하게 된다.

디톡스를 위해 가끔은 절식을 하기도 하는데 절식 중에는 소화, 분해, 합성, 해독, 배설작용을 하는 소화기관들이 본래의 일을 하지 않아서 전적으로 해독과 배설 작용만을 하게 된다.

모든 먹거리는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잠재적인 '독'이라고 볼 수 있다. 50세 인체의 효소 잠재량은 신생아의 10프로 미만이라고 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효소를 적절히 취하지 않고 각종 가공식품 위주로 먹는다면 비축되어 있는 체내 효소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노화촉진과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체내 효소부족 대사기능 저하
발효식품 섭취로 효소량 증가

효소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병든 세포와 장기를 치유한다. 몸 속 효소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발효는 음식의 질감이나 맛과 향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김치나 치즈, 장류처럼 저장 기간을 늘려주고, 영양 흡수율을 높여 독소를 분해하며 장을 건강하게 해준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발효음식에는 항박테리아와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어서 감기나 폐렴에도 일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미생물의 존재를 몰랐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식품이나 주류에 이용되어 왔고,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발효가 효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주로 양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포도주 등의 주류, 빵 등의 효모류, 식초양조에 관여하는 초산균류, 요구르트 또는 피클에 관여하는 젖산균류, 장류 발효, 유제품이나 야채 발효에, 식초발효에 관여하는 여러 세균들이 있다.

발효식품에서 중요한 미생물인 효모는 알콜 발효기능이 강한 종류가 많아서 예전부터 알코올 제조, 제빵 등에 이용되어 왔다. 빵집에 가면 천연발효빵을 볼 수 있다. 천연이라고 하니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 충분한 숙성을 거치고 각종 미생물들이 밀가루의 글루텐을 분해해 소화하기 편하게 한다.

누룩 곰팡이는 단백질 분해력이 강해서 간장 된장 등에 이용되고, 푸른곰팡이를 이용하여 까망베르 치즈의 숙성에 사용하기도 한다.

효모균으로 부풀린 빵은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어먹기 시작 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는 발효 과정 없이 그저 가루를 물에 개어 돌에 구워서 단단했다.

효모를 알지는 못했지만 마시던 맥주나 포도주를 반죽할 때 사용하면서 발효 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퍼지게 되면서 잘 부푼 반죽을 일부 남겨 빵씨로 썼다고 한다. 그래서 유럽의 신부들은 시집갈 때 빵씨를 가지고 가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한국의 주요 발효식품으로는 전통장류인 간장 · 된장 · 고추장 · 청국장 등과 채소류 발효식품이 있고, 김치 · 절임류, 수산물 발효식품인 젓갈, 그리고 주류와 식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국 고유의 발효식품은 한국 식단에서 단일 식품으로는 큰 비중을 자치할 뿐만 아니라 다를 반찬류의 맛을 좌우하는 조미료로 광범위하게 쓰임으로써 전통적인 맛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대표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리활성물질들을 생성해 내 성인병 예방과 항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효소전문가〉

일일시호일

척추염에 식도·심장까지
구멍나 생명위협

스리랑카 가장 아누라씨, 응급 수술로 위기모면
수술 빚 1600만원에 척추 수술도 남아 막막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16 컴패션 경영이란?



▶한줄요약
직장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는 스트레스, 갈등 등 고통이다. 실제 한국인의 직장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0점이라는 조사도 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컴패션 경영'이 주목된다.

행복한 조직 만들려면 '컴패션' 일깨워라

〈compassion,연민〉

월요병(月曜病)! 네이버 국어사전에 '한 주(週)가 시작되는 월요일마다 정신적 · 육체적 피로나 힘이 없음을 느끼는 증상'으로 정의되어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주말을 쉬고 나면 다시 평일로 돌아가야 하는데 주말 동안 늘어졌던 몸이 회복이 덜되어서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진 상태. 또는 주말 동안 너무 잘 놀다 보니 다시 일하기 위한 콘트롤 모드로의 변환이 되다만 상태. 꼭 주말 다음 뿐만이 아니라 연휴 뒤나 주중에 끼인 휴일 다음날에도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은 주말이나 휴일에 편안히 쉬고 나서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일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주말이나 휴일이 빨리 지나가서 출근하는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분들은 아마도 극소수일 듯하다. 2022년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가 실시한 직장인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 직장인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40점이었다. 직장 또는 일터가 그다지 행복한 곳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직장 생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행복보다는 직장 내 스트레스, 갈등, 괴로움, 불편함 또는 고통 등을 이야기한다. 직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통 등은 당연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필자가 공역한 〈컴패션 경영(Awakening Compassion at Work)〉에서 저자인 모니카 월라인과 제인 더튼은 직장에서 고통에 대한 침묵을 깨야만 더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필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역량과 기여도에 대한 합당한 인정이 부족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사들이 이러 저러한 이유로 힘들게 할 때, 급박하게 업무를 처해야 하는 압박감이 밀려올 때,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가치를 찾기를 원하지만, 평가절하의 느낌과 박탈감이 밀려들 때 특히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낀다고 한다. 실제 직장에는 이런 종류의 고통들이 가득하다. 사실 너무 만연해서 그 고통들은 업무 환경의 일부인 듯 당연하게 간주하기도 한다. 고통은 일상적 직장 생활의 어딘가에 살며시 숨죽이며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고개를 들고 예고 없이 튀어나올 수 있다. 이에 더해 직장 밖에서 유발되는 고통의 원인도 많다. 가족의 죽음이나 질병, 이혼, 별거 등에서 오는 고통들.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 중독, 그 외 힘든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괴로움들. 직장밖에 고통이지만 직장 내 고통과 섞이게 되면 고통은 더 증폭되기도 한다. 또한, 고통은 조직 자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구조조정이나 인원 감축과 같은 정책 때문에 또는 급격한 시스템의 변화와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승진탈락이나 원하지 않은 직무이동 때문에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등 원인은 많다. 대부분의 경영자나 관리자들은 이런 고통들을 간과하거나 외면해왔고 때론 당연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업경영과 관련된 컴패션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고통을 받는 구성원들에게 공감적 관심을 느끼며 이러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적극적 행동을 취하는 컴패션 경영 또는 컴패션 리더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컴패션이 수익성, 혁신, 문화, 몰입 등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컴패션은 '자비' 또는 '연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함께 고통을 나누는'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compati'에서 유래되었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과 타인들의 고통에 대해 민감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깊게 헌신하는 일'이라고 컴패션을 정의했는데 컴패션을 고통을 알아차리는데 그치지 않고 고통을 줄이는 것까지를 포함한 능동적인 동기와 행동하는 실천력을 전제하고 있다.

링크드인 CEO였던 제프 와이너는 컴패션 경영을 하는 리더로 유명하다. 그는 "리더십은 직원들이 가진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공감이라는 요소가 중요한데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컴패션은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행동까지 하는 것을 뜻한다. 컴패션이란 속도를 줄이고 시간을 투자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실제로 제프 와이너의 컴패션 리더십 실천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2017년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링크드인에서 근무하는 직원 마리아 월턴은 이탈리아 베니스로 휴가를 갈 예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가 기간 중에 CEO인 와이너가 더블린 사무실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CEO를 직접 만날 기회를 놓치는 게 안타까웠던 월턴은 휴가를 떠나기 전 와이너에게 손으로 쓴 쪽지를 본인 컴퓨터에 붙여 두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더불어 휴가 때문에 CEO를 만나 사진을 찍을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적은 내용이었다. 월턴은 쪽지와 함께 자신의 셀카 사진도 남겼다. 더블린 사무실을 방문해 월턴의 쪽지를 본 와이너는 월턴의 안타까움에 공감해 그녀의 자리에서 그녀의 사진이 배경에 나오도록 셀카를 찍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월턴의 자리에 남기고 돌아왔다. 비록 월턴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월턴의 셀카와 함께 사진을 찍음으로써 그녀의 바람이던 자신과 함께 사진 찍기를 대신 이뤄준 것이다. 휴가를 다녀온 월턴은 와이너가 남긴 사진을 본인 링크드인 페이지에 올렸고 와이너는 이 포스트에 "더블린에서 만나지 못해 안타까웠다"라며 "맡은 일을 계속해서 잘해 달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다. CEO로부터 셀카 사진과 격려 메시지를 받은 직원이 동기 부여되지 않을 리 없다. 이런 와이너의 행동은 배려와 연민을 몸소 실천하는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큰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진심으로 구성원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실천 행동을 하면 된다.

韓 직장 만족도 100점 만점에 40점
직원 고통 공감 '컴패션 경영' 주목
경청, 공감하고 행동하는 게 '컴패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조직 변화 가능

직장의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어디든 고통이 존재한다. 그러니 직장에서 컴패션을 일깨울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항상 존재한다. 어느 날 한 직장인이 긴급한 업무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큰 병원으로 출장을 가는 택시에서 기사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뜻밖에도 택시 기사의 고충을 듣게 되었다. 알고 보니, 출장 가는 곳이 1년 전에 어머님께서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병원이었다. 택시 기사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년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병간호를 했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생각할수록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다. 가능하면 운행을 피하는 곳인데 손님이라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것이다. 이 택시 기사의 예에서 보듯, 고객과의 연결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키거나 슬픔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직장에서의 고통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면에 떠오른다. 손님에게 자신의 고통을 얼마나 드러낼지 선택할 수 있었던 택시 기사처럼, 상대방도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출장에서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여러 방해물을 맞닥뜨리게 될 때, 가령 택시 기사의 말에 공감하면서 귀를 기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낯선 사람이 표현하는 격한 감정을 외면할 수도 있다.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고, 아니면 묵묵히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흔한 장면들이며, 직장 생활에서 컴패션을 만드는 선택의 순간들이기도 하다. 우리는 대부분 혼자가 아닌 여러 동료와 함께 직장에서 일한다. 직장에서 고통을 마주치게 될 가능성은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다르다. 직장에서는 고통의 목소리가 표출되는 것을 싫어한다. 스트레스 받는 마감일과 치열한 경쟁의 압박감, 직원들에게 무심한 경영진, 권위적인 조직 문화, 끊임없는 일정과 업무 등이 조직 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원재료들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으로 모니카 월라인과 제인 더튼은 네 단계를 통해 조직 내 컴패션 깨우기를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조직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Noticing) 것이다.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컴퍼션도 없다. 알아차리기는 직장에서 컴패션을 일깨우는 관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탐색 작업(Inquiry Work)이 필요하다. 동료가 고통 속에 있거나 평소와 달리 힘들고 어려워 보일 때 이를 알아차리고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고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고통을 해석하는(Interpreting)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해석할 때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우선 고통을 받는 당사자를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가 겪는 고통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할 때 공감과 걱정은 사라진다. 다음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고정관념이나 낙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무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나 역량이 없다고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난 이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라는 생각은 자신의 행동을 제약할 뿐이다. **세 번째 단계**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공감적 관심을 느끼는(Feeling)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감의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의 인지적 측면은 타인의 관점을 취하거나 그 사람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는, 소위 말하는 역지사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자신과 교감할 수 있다. 또한, 공감적 경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숨은 감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고통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하는(Acting)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의 집합을 컴패션 활동이라고 한다. 조직 내에서의 컴패션 활동은 당사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향과 일이 계속 진행되게 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준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자원을 만들어내거나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거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재분배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고통의 시기에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통받는 구성원들의 필요와 선호도에 맞게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어느 조직이든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고통이 존재한다. 이러한 고통에 컴패션의 물을 부으면 행복이라는 무지개가 피어난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 게~"라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한마디로도 커다란 무지개가 떠오른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법상스님의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법상스님만의 논리적이면서도 편안한 생활법문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토) 22:30



자현·광우스님의 끝판! 맛수다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일) 14:00



동훈스님의 다음생 이야기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일) 21: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마음에 무겁게 짊어지지 마시고 가볍게 아주 탁탁 털어놓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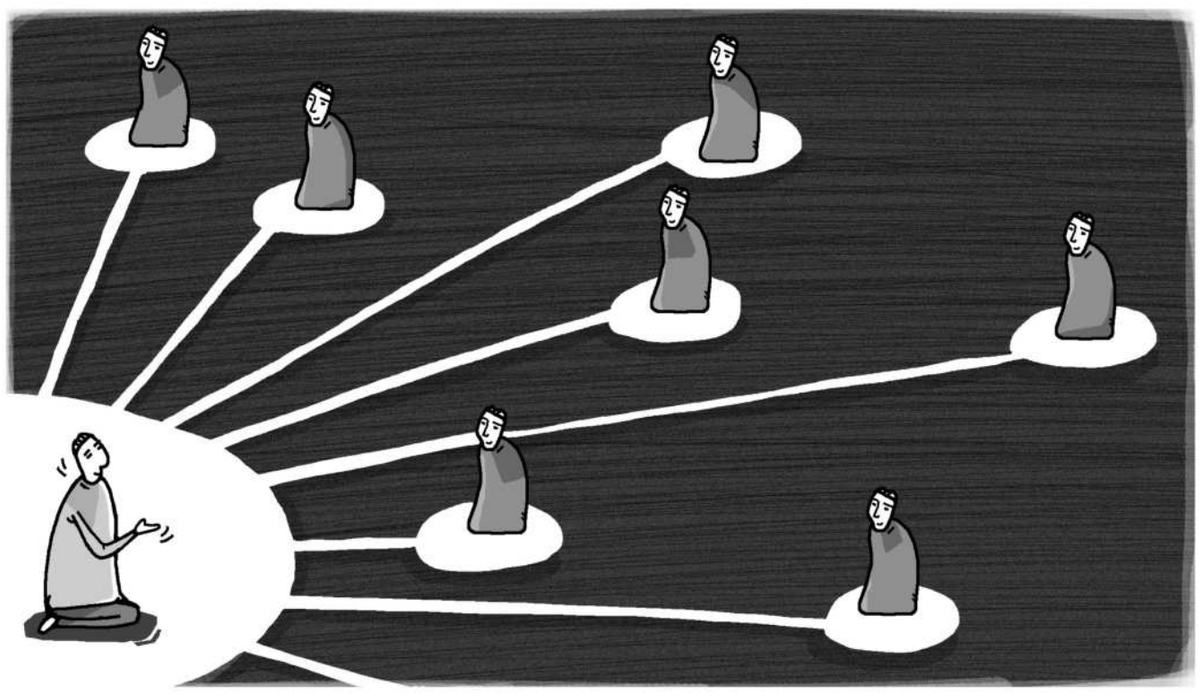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을 잘 쓴다는 건

질문 직장에서 제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인공에 맡기는데도 화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자식들이 없으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 꿀떡 같은데 이럴 때 마음을 잘 쓴다는 건 어떤 것인지요.

답변 마음을 잘 쓰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은 생각 내는 걸 그냥 우습게 보고 하루 살면서 그냥그냥 쉽게 생각 낸다고 그러지마는 보이지 않는 그 자체에서는, 생각 한 번 내는 데 보이지 않는 물질 없는 물체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도리를, 그렇게 마음 한 번 내는 게 귀중하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는 그 생산처가 천차만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이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심봉은 그냥 거기에 심봉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심봉에다가 생각하는 걸 좋게 생각해서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인해서 스스로 돌아가서 나한테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고 생산을 해내는 데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남이 억울한 소리를 해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탓으로 돌리질 않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착을 두게 되고, 욕심을 두게 되는 건 내가 생각 한번 잘못한 까닭입니다. 내 앞에 닥치는 거 닥치는 것대로 갖게 되면 갖게 되는 거고, 가진 것 내버릴 필요도 없고 끌어당길 필요도 없습니다. 욕심부리지 말랬다고 재산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착을 두지 말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은 관리인이에요. 잘 쓸 수 있는 관리인입니다. 마음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또 생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생각을 잘하면 말도 잘하게 되고 행도 잘하게 되지마는,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행과 말이 잘못 나갑니다. 우리가 번연히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건 알면서 받고, 몰라서 지키지 못하고 행을 저지르는 것은 모르고 받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받는 일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억울하다.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업보가 많아서 이러느냐?"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어저께 없는 오늘은 없죠. 그럼으로써 내가 하지 않은 게 어디 내 앞에 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생산처,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만 가지 생산을 할 수 있다, 닥치는 대로 생각을 잘해서 놓는다면 스스로 아주 훌륭하게 만 가지 생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자연 법에 의해서 아주 출중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깨달으면 독 안도 없고, 나올 것도 없고, 들어갈 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삼천 년 전에 그렇게 했고 단군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주인공을 타파 못 한다면, 자기 내공을 타파 못 한다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의 삼세심 내공을 타파 못 합니다. 삼세심의 내공을 타파 못 한다면 사공법을 모르고, 사공법을 모른다면 원심력을 기르지 못해서 원통자활을 못 하죠. 이것이 바로 자기한테 부(父)가 있고, 자기한테 스승이 있고, 자기한테 부처가 있고, 자기한테 법신이 있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바깥에서, 콩싹이 바깥에서 콩씨 찾듯이 그렇게 찾는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백 년을 가도 안 되고 천 년을 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잘되고자 생각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잘된다더라' 하는 것도 거기다 놓으세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마찬가지예요, 죽고 사는 거는. 한울에 매여 있어요.

각본대로 이렇게, 깨치지 못한 중생들은 각본대로 여러분이 한 것만치 받아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 한 것만치 악과 선 속에서 그냥 허덕이지 말고 그 속에서 활짝 벗어나란 얘깁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모든 것을 믿고 놓고, 모르고 아는 거를 다 감사하게 놓고, '거기서밖엔 할 수 없지.' 하고 놓고, 그러고 난 뒤 생각을 잘하시란 얘깁니다.

'언짢다'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절대로 언짢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짢을 게 없습니다. 어저께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이고, 내일도 오늘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자연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 가지 생산처가 있다면 여러분이 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만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산이 돌아갑니다. 이걸 이해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기 주인공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고 그 자기 주인공 자체의 근본자리에다 맡기세요.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세상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라. 이 마음을 타파할 때에 삼세의 공한 마음이 탁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때 가서 아, 스스로서 자연적으로 마음의 능력이, 샘물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데 공부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면 어떻게 회사에 가셨겠습니까? 노력이 있지 않고는 내 내공의 타파를 못 하며, 삼심 내공의 타파를 못 합니다. 이 세상 사공법을 모릅니다. 오심력을 기르지 못합니다. 즉 원심력 말입니다. 원통력을 스스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린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건 취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등 동물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의례 의식이나 모든 절차, 계율 같은 거는 이미 아시리라고 믿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런 거는 으레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여건도 내가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과 인간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탁 놓을 수 있는, 믿고 놓을 수 있는 그 마음만 가지신다면 훨훨 날 겁니다, 아마.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바람결같이 이 세상에 왔다가 바람결같이 가는 세상에.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짊어질 것도 아니니 무겁게 짊어지지 마세요. 가볍게 아주 탁탁 털어 놓으세요.

마음에 무겁게 짊어지면 몸도 아주 무겁고 아프고 모든 절차가 전부, 인간이 살맛이 안 납니다. 탁탁 털어 놓으십시오. 주인공에 놓으라고 일러 드렸는데도, 맡겨 놓고 사시라고 간곡히 일러 드렸는데도 그걸 놓지 못하고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낸들 어떡합니까? 허허허.

체험이 별로 없어요

질문 저는 선원에 인연 된 지는 좀 오래되었지만 이렇다 할 체험은 별로 해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도반들은 이런저런 맛을 보고 가는데 저는 공부에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답변 그런데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지켜봅니다. 즉 말하자면 무심으로서 자기가 진실히 자기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죠?

이런 일이 있어요. 인천에 사는 어느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가엾어서 안됐는데 영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쪽에는 얘기도 없이 내가 그냥 해 놓고 내가 지켜봤습니다. 아, 그

☞ 22면으로 계속



자기를 진짜로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러니까 글쎄 이튿날 그냥 툭툭 털고 취직할 데를 마련해야겠다 하고 온 겁니다. 이젠 다 나은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속으로 주인공한테 '주인공, 감사합니다.' 이럭하고선 감사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아이고, 이젠 병이 나았으니, 식구가 먹고살아야 할 테니 취직 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당신이 취직도 하게 하는 거지, 뭐. 저 사람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둘이 아니니까 내가 이런다면 저 사람 주인공도 둘이 아닌 까닭에 잘 끌고 취직도 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흘 만에 인천에 뭔가 하는 데 취직이 됐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부가 됐다고, 그 사람이 잘됐건만도 자기가 술을 한잔 사 주고 싶더랍니다, 고마우니까. 자기 공부가 되는 거니까. 자기 공부 대상이 됐거든, 실험 대상이 됐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실험을 해 보니 나도 좋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다 보살행이 아닙니까? 자기는 나쁘게 되고 남은 좋게 되고 또 나는 좋게 되고 남은 나쁘게 되고 이런다면 그건 보살행이 아니고 중생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보고 연구를 안 하고 행을 해 보지 않는다면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뚫리질 않아. 이거는 보석이려니 하고 가만히 두면 그게 줄든지 늘든지 그러질 않아요. 잘못되든지 잘되든지 한번 해보면은 잘못되는 거 잘되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안 돼도 자기 법, 돼도 자기 법이라.

그래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자기 실험으로써 잘 해 나갔는데 어느 때는 그렇게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스님께서 안 되는 것도 법이라더니 요놈, 되는 것만 법이냐. 안 되는 것도 법이라는 걸 모르느냐!'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인공이 날 가르치느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너무도 감사하더랍니다. 들고 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모든 것을 거기다 감사하게 믿고 놓으니까는 너무 좋더랍니다.

스스로서 자기가 벌써 생각을 하면 알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 생각을 해 보니까는 내일모레 감사가 나올 것 같더랍니다. 감사가 나오는 걸 알게끔 되니까 미리미리 착착 준비해서 감사에 걸리지도 않았다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닥칠 거는 벌써 착착…. 누가 움죽거리지 말라나요, 생각하지 말라나요. 생각하는 것도 움죽거리는 것도 다 공해서 돌아가는 거고 자기 실상이라고 해도 그 자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장부를 척척 해 놓으니까 뭐, 걸릴 것도 없고, 와서 보자기를 풀어서 턱 내놓으니까 그냥 그냥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생활 불교는 그대로 여러분의 진실한 생활에서 움죽거리는 법입니다. 옥수수나무도 올해 바람이 많이 불고 폭풍이 일어날 것 같으면 뿌리를 깊숙하게 박아요, 그해에는. 그렇게 알고 하는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닥칠 거를 자기가 튼튼하게 해 놓지 않습니까? 물이 쳐들어올 텐데 내가 어떻게 둑을 쌓아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너무 역력하게 아주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시라고 이런 공부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귀신 마구니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생으로만 고집하지 마세요.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바로 중생입니다. 이 몸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부처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고 물건이 있어야 보이죠? 부처님께서도 저렇게 물건으로 보이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물건으로 보이게끔 해 놓고 움죽거렸기 때문에 부처님을 저렇게 모습으로 모셔 놨지 않습니까?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처고요, 움죽거리면 법신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는, 무심으로 눈을 감고 앉아 있을 때 부처예요. 그리고 생각이 났다 하면은 법신이구요. 일어나서 움죽거린다 하면 화신이구요.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행하기에 달려 있고 마음 씀씀이를 넓게 쓰는 데 달려 있고 좁게 쓰는 데 달려 있으니 좁게 쓰면 업보가 더할 것이고 넓게 돌려놓으면 업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 들어요

질문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장가를 보내고 나니 이 부모를 본척만척합니다. 마음공부하면서 서운한 마음도 다 주인공 자리에 놓고 그 마음 돌려 보려고 애쓰지만 자식에 대한 착 때문에 그런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 잘 다스리고 마음 중심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한 말씀 일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고 가는가. 사람은 공부할 때는 부모에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상대성을 놓고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 친구들하고 몰려서 공부만 하다가 대학을 졸업합니다.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갔다고 하나,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부를 또 해야 한다 이 소립니다. 사회에 나가면 벌써 인간관계의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인가 하는 사회를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분야를 공부합니다. 자기가 전자에 공부했던 것을 바탕을 삼아서 잘하려니까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허둥지둥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가정이 생겼고 자식이 생겼고, 나중에는 자식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믿게 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늙어서 오십이 넘고 정년퇴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하, 나를 받쳤던 이 서까래가 하나둘 빠져 달아나가는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나중에는 하나둘 하나둘 다 빠져, 오두마니 그냥 자기 기둥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두마니 기둥만 서 있다가 홀연히 생각을 하니까, '아하, 내가 빈손 들고 나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이 마당에서 이 기둥 하나 선 것마저도 쇠퇴해 가는구나.'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 하는 게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도리를 모르면, '야,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를 내가 뛰면서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은 너희 살 궁리만 하고, 나는 한 달에 한 번 보거나 말거나 하는구나.' 하고선 아주 노여워하고 노발대발하고 그냥 척이 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 세상살이가 그런 거지. 본래 그런 거 아닌가? 저것들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는 섭섭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고서 그냥 홀연히 아주 안치를 해서 자기가 자기를 놓고 그냥 여여하게 좋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 한번 먹기에 달린 건데, 나 괴롭고 자식들 괴롭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자식은 바로 내 씨가 내 나무를 만들었고 내 나무에서 또 씨를 만들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인 것입니다. 부모도 미래의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하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 네가 속 안 썩이고 잘 살고, 네가 잘하고 사는 것이 나한테 갚는 것이구나. 나한테 갚을 것도 없다. 네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잘해라. 잘 살아라.'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날 싸우게끔 되고 척이 지고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하다 보면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복이 들어가겠습니까? 돈도 웃고 즐기는 데 들어가기 좋아하지 찌푸리고 싸우고 그러는 데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 없습니다. 가정도 만날 싸우고 그러면 자식들도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만날 싸워. 아이, 들어가기도 싫어.' 이렇게 돼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착하게 공부를 열심히, 자기 주인공 그 자체가 일체 만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일체 만법을 활용한다는 그 점을, 바로 도심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에도 세계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다 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우리가 무심코 그냥 한 번씩 던져서 행해 보십시오. '내가 모르니까 이거 못 해.' 이러지 마시고요.

패기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써 그냥 한 번씩 생활하시면서도 나한테 부당한 일이 올 때, 몸이 아플 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 보시면, 영가가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됐다 이런 것도 다 자기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니 그냥 해 보세요. 그냥 그냥 해 보시면 바로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그게 커지고 커지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알게 됩니다.

옛날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조선 시대인 모양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밤만 되면 항상 '이놈 때려죽인다' 고 미친듯이 도끼나 낫을 가지고선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그냥 찌르곤 야단이 난 겁니다. 그것이 어느 때서부터 그랬느냐 하면, 그 마을이 잘 살았는데 어느 때서부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동네가 다 망하다시피 했는데, 어느 스님이 들어오시다가 그곳에 들르셨답니다. 들르셔서 보니까 '아하, 이거 야단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몇 사람을 데리고서 "곡괭이하고 삽하고 괭이를 가지고 날 따르라." 이랬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래 스님을 따라서 골짜기로 올라가니까 그 산모롱이에, 왜, 산 혈맥이 있지 않습니까? 혈맥 귀퉁이 거길 파라고 하더랍니다. 그래 파니까, 옛날에 오물 묻었던, 넓게 지하실을 만들었던 자리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뼈다귀가 수없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뼈다귀를 다 태워 버리고 난 뒤에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일본 마적이 들어와서 여자들을 납치하고 또 그 식구들을 죽이고 데려온 여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데려다가 막 죽이고 재산을 뺏고 몰살을 시키고 묻어 버린 그 자린데, 그냥 혈을 끊어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 혈을 따라서 이 동네로 왔기 때문에 이 동네가 이렇게 망한다. 이것을 태워 버렸으니 이젠 괜찮을 거다." 하고선 부적을 하나 써서 "이것을 마을에 붙여라." 했답니다.

부적이 그래서 생겼는데,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혈도, 지금 이 공부 하시는 분들은 혈이 산에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혈이 이쪽으로 왔든 묘지를 쓰든 또 집을 짓든 이사를 가든, 아무 걱정 없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혈을 우리 마음대로, 혈이 이렇게 됐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 놓을 수도 있고 저쪽으로 해 놓을 수도 있어요. 누가 '혈이 없다, 이건 나쁜 터다' 이러더라도 내가 한번 딱 짚었으면, 지팡이로 딱 짚은 겁니다. 주장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짚으면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몸도 고정되지 않고 먹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보는 거 입는 거 모두가 고정된 게 없으니 공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쁘다 하면 나쁜 것이고 좋다 하면 좋은 것이지, 왜 남의 운운에 끄달리면서 노예가 돼 가지고 이리 왈 저리 왈 갈대와 같이 흔들리느냐 이겁니다.

이 공부는 자기 자성불을 이루어서 해탈을 하라는 뜻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뭐, 구태여 말로 해탈이랄 거 없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자기한테다 다시 놔라 이겁니다.

바람결같이 왔다 가는 세상에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탁 놓을 수 있는 마음,
믿고 놓을 수 있는 그 마음만 가지신다면 훨훨 날 것입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불논단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양자역학 발전에 '자유의지' 의문 대두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유명한 명제
의지 아닌 과거 영향으로 현재 결정돼
불교 '인과 · 연기'와 비슷하면서 달라

탄생 이후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결정론
부처님 부정했던 '카스트 제도'와 유사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한다'로의 변화
스스로 주체되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4차 산업혁명,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챗GPT 등 이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살아가며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시대의 발전과 일상과의 격차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온 것들이다. 과거 천문학, 지질학이 발전하던 시기에도 민중들은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바빴고, 그것들을 다루는 몇몇 소위 지배층이나 지식인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다. 누구라도 손바닥 안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세상 곳곳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과거와 같이 다른 이의 것으로만 여기고 자신들은 그것에 따라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달이 무조건 우리의 편의를 돕거나 의지처가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양자역학이 발전하며 가장 두드러지게 대두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의문이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Whatever can happen will happen)' 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다. 이는 우리 인생과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에 의한 영향으로 일어난 결정된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교의 '인과(因果), 연기(緣起)' 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이라고 하듯이 자신이 행한 과거의 원인이 업이라는 에너지가 되어 지금 혹은 다가올 미래에 결과를 불러온다는 가르침 그 자체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자신의 '받아들임' 이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결정론은 한 사람이 태어나 갖게 되는 가족, 환경, 교육, 대인관계, 습관 등에 의해 그 사람의 삶의 궤적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즉 태어난 순간에 그 사람의 대부분의 삶이 갖춰지게 되고 그에 따라 점차 선로를 달리는 기차와 같이 그 선로의 목적지를 향해서만 달려가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과거 부처님께서 무엇보다 부정하셨던 태어남에 의한 삶의 결정인 '카스트 제도' 와 같은 모습이다. 불교도 업에 의한 결정론인 '인과응보' 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카스트 제도, 양자역학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투철하게 바라보고 알아차림으로써 다음 찰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다 중요시한다.

이것이 불교수행에서 말하는 '정견', '알아차림' 의 가르침이다. 이를 통해 지금의 자신이 겪는 상황에 대해 남 탓을 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한 참회를 하여 다음에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가 아닌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한다' 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삶을 행동하고 그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며 깨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살아간다. 지금 현대문명의 발달도 마찬가지이다. 낯설고 자신과 동떨어진 것들로 생각되겠지만 그것들에 대한 관심과 작은 이해라도 가질 때 다른 이에 의해 삶이 이끌려가지 않게 되고, 변화라는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일도 없게 된다. 오늘 당신의 삶은 오늘을 사는 당신만의 것이다. 잠시 후 일어날 일을 스스로 확인하여 지금 일어나게 만들자.

社 說

'인생 회향' 모범 보여준 노보살들

평생을 아끼며 모은 재산을 인재불사를 위해 회향한 80대 노보살들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4월 6일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동국대 건학장학금 전달식' 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원성(이정옥) 보살, 대자행(권정원) 보살, 금강월(윤정희) 보살, 진여성(이성림) 보살, 불국화(홍옥자) 보살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산연꽃모임' 에서 만난 도반으로 신행과 지역사찰 봉사 등을 50여 년 간 펼쳐왔다. 어느덧 80대 노인이 된 보살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인재불사로 회향하고 싶다고 발원했고, 자신들이 마련한 49재 장례비용까지 모두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다.

기부금액이 5100만 원인 이유도 눈길을 끌었다. 본래 기부 동참 불자 1명이 1000만 원을 기부키로 했으나 대원성 보살의 지인이 1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며 최종적으로 5100만 원이 전달됐다. 노보살들의 소중한 정재는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동국대 대표 장학제도인 '동국건학장학'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자신이 닦은 선근공덕마저 자신이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의 '회향(廻向)' 은 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기치를 그대로 보여준다. 즉, '회향' 은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보살행' 의 궁극적인 태도다. 그래서 모든 불교의식에는 회향의 뜻을 필수적으로 반영한다. '중생무변서원도 · 번뇌무진서원단 · 법문무량서원학 · 불도무상서원성' 의 사홍서원 역시 불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회향의식이다.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선뜻 내놓은 80대 노보살들은 '회향' 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들의 회향이 민들레 홀씨처럼 아름답게 퍼져나가길 바란다.

불교계 4.3 유적 문화재 지정을

제주4.3항쟁 75주기를 맞아 4월 3일 서울 탐라영재관에서 '제주4.3 희생자 추모제사 및 4대 종단별 추모의례' 가 봉행됐다.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제주도민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길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난 자리였다. 또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4.3을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다짐의 자리기도 했다.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됐다. 4.3특별법이 규정되긴 했지만, 미해결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피해에 대한 상처는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제주 산간지역이 적성구역(敵性區域)으로 간주됐다는 점이다.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살하겠다는 무시무시한 포고령이 내려지면서 수많은 사찰들이 항쟁 가담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4.3 당시 36개 사찰이 소실되고 16명의 스님이 희생됐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일 뿐 규명되지 않은 진실 속에서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적성구역에서 가람을 지키고자 머무른 스님들과 대중들이 포고령에 의해 무고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제주불교계는 관음사를 중심으로 앞으로 4.3유적들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앞장서, 4.3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교훈을 전하는 현장으로 보존하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주4.3은 희생된 스님들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우리가 기억해야할 비극이자 평화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역사다. 4.3항쟁의 비참함이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불교계가 한 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⑬ 드라마 '더 글로리'

업보는 되돌아온다

'돼지의 왕' '더 글로리' '모범택시' '약한 영웅' '인간 수업' '구해줘' '펜트하우스' '학교 2015' '경이로운 소문' 등 최근 학교폭력을 제재로 다룬 드라마가 봇물 터지듯 방영되고 있다. 이는 여러 연예인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학폭투' (학교폭력 미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는 방증일 것이다.

학교폭력을 제재로 다룬 드라마 중 완성도 면에서 '돼지의 왕' 과 '더 글로리' 가 가장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작품을 제외한 다른 작품들은 학교폭력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들의 서사를 종합하면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신체적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폭행을 당하고 음식을 강제로 먹는 등 온갖 폭력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심지어 '구해줘' 의 피해자는 참다못해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반면 '돼지의 왕' 과 '더 글로리' 는 과거 학교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가 성장해서 가해자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돼지의 왕' 과 달리 '더 글로리' 의 피해자인 동은(송혜교)은 치밀한 계획을 통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 복수에 성공한다.

가해자들의 리더인 연진은 "적당히 명망 있는 직업에 가장 예쁠 때 결혼해서 애를 한둘 정도 가지는" 꿈을 이뤘지만, 명오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돼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다.

명오를 시켜 동은을 빗속에 세워두고 옷을 젖게 만들어서 속옷을 훔쳐봤던 재준은 내연녀 연진의 남편인 도영에 의해 살해된다. 동은을 고데기로 지졌던 사라는 유명화가가 됐지만 머리핀 대신 쓰던 연필로 혜정의 목을 찌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감된다.

동은을 가해자들의 아지트인 강당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한 혜정은 사라에 의해 목이 찔린 뒤 동거 중이던 재준에게도 버림받는다. 동은을 직접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했던 명오는 연진이 내려친 양주병에 머리를 맞은 게 원인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한다.

동은의 복수는 그야말로 동해보복에 해당한다. 사라의 손은 동은을 조롱하고 망가뜨렸던 손이다. 사라는 그 손으로 화가가 되고 마약을 하고 끝내 혜정의 목을 찌른다. 명오의 발은 동은의 고통에 앞장섰던 발이다. 명오는 죽기직전 그 발로 개처럼 기어 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혜정의 입은 동은의 고통에 크게 기뻐했던 입이다. 혜정은 그 입으로 친구들의 추문을 옮기다가 끝내 사라에 의해 목이 찔린 뒤 말을 잃는다. 재준의 눈은 동은을 비릿하게 바라봤던 음탕한 눈이다. 재준은 적록색약이라는 천형을 친딸에게 대물림하고 끝내 혜정에 의해 두 눈이 먼다. 그리고 폭행의 모든 순간에 기뻐했던 연진은 어릴 적 동은이 당했던 것처럼 가족들에게조차 철저하게 버려진다. 이러한 설정은 자신들이 지은 업보에 의해 자신이 벌전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글로리' 속 가해자들이 자승자박(自繩自縛)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탐, 진, 치 삼독심 때문이리라.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 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